

3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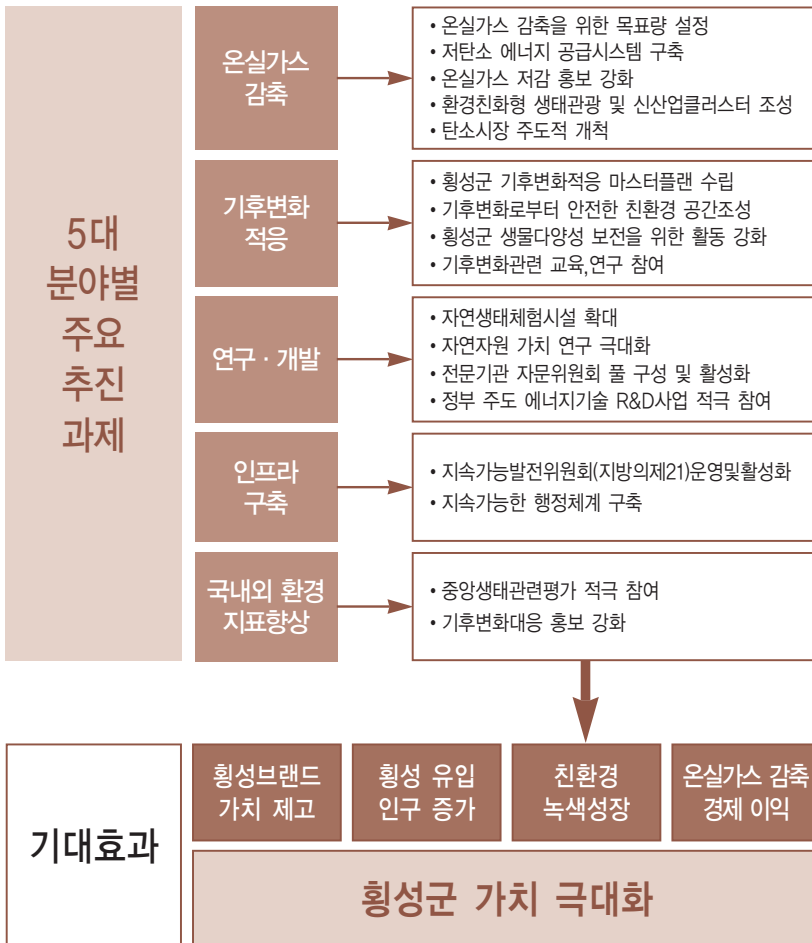
-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규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함으로써, 신경제 경쟁 구도의 선점을 위한 각축전 예상(※세계 500대기업 70%이상이 기업경영 위기요인으로 지목('07, 파이낸셜타임즈))
 - 지구적 감축계획 이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비용 증대로 기존 산업계의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저탄소형 기술 및 산업 관련 거대시장이 등장

- 생활·문화양식 변화
 - 농수산 서식지변화에 따른 食문화 변화, 기후변화적응 住居문화 도입 등 인간 생활 衣食住 전반에 점진적인 변화 유발

- 생태계·기상재해·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
 - 생물종의 멸종 위험 증가와 산림생태계 교란예상
 - 특히, 1980~1999년과 대비하여 1.5~2.5℃ 상승시, 생물종의 약 20~30% 멸종, 3.5℃ 상승시 40~70% 멸종 예상
 - 농작물 주산지 북상과 저위도 건조지역 작물 생산량 감소로 대기근 우려
 - 전세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지대 침수, 열파, 홍수, 가뭄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하고, 모기 등 질병을 매개하는 생물체의 분포 확대
 - 특히 빈곤층, 노령층 등 취약계층과 저위도, 저개발 국가에 피해 집중 예상
 - 아시아지역의 경우, 히말라야 산의 빙하 용해로 인해 홍수, 산사태, 수자원 부족에 직면하며, 관광지역 매력도 감소

II. 횡성군 기후변화대응

5대 분야별 주요추진과제*



Ⅲ. 추진내용

1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 시책 수립

횡성군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08. 하반기에 수립하여 11개 부서 30명을 T/F팀으로 구성, 2009. 1. 12일 4년차('09 ~ '12) 사업 총 62건(주요사업 : 중장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저탄소녹색마을 조성, 탄소포인트제 추진, 그린홈(태양열 주택) 보급사업 추진, 태양광발전사업 조성, 청사 13개소 및 공공체육시설물과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년차별 태양열 추진, 가로(보안)등 에너지절약형 고효율 앰프 교체, 그린투어리즘 활성화,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기후변화대응 시설원에 환경기반 구축, 기후변화대응 과수지역 적응 시험, 탄소흡수원 확충, 도시 녹지공원 확충, 산림재해 예방 시설기반 구축 등)에 대한 기후변화대응 시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시책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환경관리공단, 에너지관리공단 외 9개 분야 중앙기관의 전문가 15명으로 횡성군기후변화정책 자문단을 도내 최초 자체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횡성군 실정에 맞는 제안사항을 반영하고, IPCC표준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횡성군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분석, 국내외 온실가스 저감사례를 조사하여 횡성군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방안 제시,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사례 분석 도입방안을 검토, 횡성군 바이오매스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및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중기사업 타당성 용역을 한국환경자원공사 에코시티 지원센터 사업팀에서 용역을 수행하였다.

2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 구성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기구인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를 구성하고, 2009. 3. 20 기관장, 도·군의원 등 각계각층의 대표 10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김택천)이 횡성군을 방문하여 축사를 하고, 기후변화 바로알기 영상, 그간 추진상황 (PPT), "CO₂줄이기 나부터" 생활다짐 선언으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은 그린스타트 운동 캠페인으로 그린리더 양성, 기후변화전문교육강사 양성, 주민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내에서 최초로 20백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운영위원 25명과 임원 4명으로 구성되었다.

온실가스진단주간 행사시 '09. 6.16 에너지 시민연대 이아선 간사를 초청하여 횡성읍 소재 아파트 관리소장, 운영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탄소발자국 계산방법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개 아파트(대동,금광포란재,보람더하임)의 소등행사(971세대중 883세대 가구 소등(91%))와 병행하여 그린리더(7명)를 처음으로 모집하여 가구에 홍보하도록 추진하였다.

평생학습축제('09. 6. 17 ~ 6. 19)동안 “우리집 탄소발자국 알아보기, 온실가스 줄이는 다짐 내용 작성 후 스티커(얼음조각모양) 붙이기, 온실가스 줄이기 그린스타트 실천 약속 서명 하기, 기후변화 홍보 판넬 13점 전시”행사를 추진하여 1,000여명이 참여하였다. 9월에는 그린리더강좌를 개설하여 24명을 수료시켰다.



3 기후변화대응 주요 성과

'08. 12. 29일부터 환경부가 총괄하고, 환경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합동으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마을 600개 조성』계획 중 지역형 바이오 매스 에너지화타운 시범모델에 횡성군이 산촌형(5개 유형중)모델로 반영되어 용역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09. 7. 6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폐자원에너지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었다.

5 ●●●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환경위기로 시작

또한, S건설과 K건설, E산업 등과 바이오매스 타운에 대한 민자제안설명회를 열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 주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사업

• 하늘 바람, 태기산 천풍으로 에너지 생산 시작

강원도 횡성군과 평창군의 경계 위치한 태기산(해발 1261m)에 민간자본을 유치, (주)포스코건설, (주)유러스에너지저팬에서 총사업비 860억을 투자하여 40MW(2MW×20기)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2008. 11월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상업운전 중이며, 전력생산량은 연간 98,300MWh/년으로 이는 연간 약 2만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생산량이며 이와 함께 연간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6만톤 가량 줄여 조림지 3000ha 규모에 해당 되는 산림대체 효과를 가져온다.

• 저수지 유희부지 활용, 태양광 에너지로 전력 생산

한국농촌공사에서 민자 투자 11억원('08)을 유치. 우천(학곡)면 법주리 저수지에 유희부지 [제방외제부지(성토부지)]를 활용하여 157kW급 태양광발전소를 건립 연간 216M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 태양광, 태양열, 그린홈 확대

'09. 2월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설명회(코엑스)에 참석, 중앙정부의 강한 의지에 발맞춰 희망농가에 대하여 지난해 8가구(142백만원)에서 금년 33가구(921백만원) 규모로 확대하여 그린홈(태양열주택)을 보급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절감효과를 기대하기 위하여,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안흥면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3개소에 220m² 규모(214백만원)로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중에 있다. 그 밖에 버스승강장을 태양광 조명시설로 설치하였고(3개소/19백만원), 버스 노선 안내표지판도 LED로 설치하였다.(20대/34백만원)

• 누구나 숲속을 여유롭게 즐기며, 산소길 체험

남녀노소 산소길을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임도. 초기에는 벌채비의 절감 등 경



안흥면 지구리 임도

제적 효과와 산불진화도로 등으로 활용하였지만, 지금은 테마임도로서 여가를 즐기고 아름다운 경관과 산림의 효용을 느끼고, 자연을 탐방하기까지 임도의 기능은 다재다능하다. '08년까지 임도가 총 22개 노선/47km완료, '09년에 1.5km를 신설 중에 있으며(83%공정) 구조개량과 보수는 완료하였다. 앞으로 산림바이오매스의 운송도로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횡성에도 자연생태공원이 조성된다.



학교숲



자연생태공원

총 8,000백만원이 소요되는 3.1공원은 자연생태공원으로서 생태연못, 야생화단지, 생태탐방로가 조성된다. 도심 중앙에 있어 좋은 탄소흡수원이 될 수 있고, 주민들이 가까이 할 수 있어 더욱 더 좋은 산림녹지공간이다.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소공원 등 녹지 공간 조성도 금년에만 총4,830백만원이 소요된다. 3.1공원

내 965백만원의 조림공사와 청일 춘당초교, 공근 초교, 청일 신대리 성골내 소공원, 가로수 기본계획('08)에 의한 시범가로수 거리 조성이다.

• **맑은물이 흐르는 청정 1급수 하천, 물 부족 없는 횡성으로**

횡성을 감싸고 흐르는 섬강, 발원지인 고랭지 3개면(둔내, 청일, 강림) 6개 지구, 사업비 1,029백만원('09)으로 사면녹생도 작업과 집수정 설치 중에 있으며, 매년 흙탕물 저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집중강우시에도 깨끗한 하천을 유지할 수 있다. 기후대비에 따른 물 부족 및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한 광역상수도를 관내 전역 공급하고자 횡성군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아(환경부)안흥·둔내 송배수관로 3.75km(2,500백만원)부설공사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집중강우로 인한 산림피해와 하천재해, 예방 최우선**

산림피해 예방을 할 수 있는 사방댐을 '08년까지 55개소 완료하였으며, 금년 청일면 신대리의 5개소에 신설(1,530백만원)하였다. 기후변화에 안전한 하천의 방재를 위하여 강림 쿵쿵소의 3개소에 대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였고(110백만원), 풍수해예방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438백만원)

• **옛 폐기물 매립장 생태 복원, 폐기물 처리 더 효율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화와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정암리 비위생매립장을 정비(5,600㎡, 1,500백만원)하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공재활용 기반시설(압축기.100백만원)을 설치하고, 음식물폐기물 재활용을 위하여 시설을 1기(10톤/일.970백만원) 증설하였으며, 내년에는 폐기물 종합처리장내 태양광 발전시설(100kw/700백만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 **기후변화적응 농작물 개발 연구, 원예시설도 개선**

지구온난화에 따른 유망 특용수종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보급하고자 체리, 돌배, 다래, 매실, 비타민나무, 칼슘나무, 블루베리 등 1,200주를 대상으로 재배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원예하우스에 사업비 462백만원을 투입하여 내재형 천장개

폐 자동화시설, 온풍난방기 배기열 회수기, 파프리카 비닐하우스 측고보강, 수평권 취식 다겹보농커튼 흑서기 착과유도 천창 스프링쿨러 등을 설치하여 에너지절약 과 노동력 절감 등 주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적응을 준비하고 있다.

• 주민과 함께하는 LED조명 간판 개선, 온실가스 줄여

전력소모가 많고, 수은 방출로 인체에 유해하며, 수명이 짧아 자주 교체해야 하는 기존 형광등 간판, 이제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안전한 소재, 형광 등에 비하여 6 배 이상이나 수명이 길며 무엇보다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LED로 바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년 250백만원을 들여 3.1광장 주변 47개 업 소 110개 간판을 교체완료하였다. 기존 조명보다 설치비가 2~3배 높아 주민들의 부담(14%)이 가중될 수 있지만, 깔끔하고 아름다운 설치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다.

• 사라져 가는 생물종 연구, 생물다양성 보전기관 설립

전 지구의 평균온도가 1.5~2.5℃증가하면 전 세계 동물과 식물의 20~30%가 멸 종위기다.(IPCC.2007.제4차평가보고서) 대기중 농도증가와 온도증가가 생태계 구조와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횡성군에서는 사업비 50억이 소요되는 생물다양성 보전기관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설립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물종을 연구하고, 국제기구와 협약하여 국제 생물 다양성 보전기관으로 활용하고, 환경부의 서식지보존 기관과 연계하여 생태계 보전 연구 및 기술 인력 양성과 국제생태관광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III. 향후계획(‘10)

1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부여(전기 및 수도 감축량 가구)

- 횡성읍내 참여 공동주택에 대한 상품권 및 현금 등 지원(400개소)

2 그린스타트 황성네트워크 및 지방의제21추진 협의체 구성

- 그린스타트 황성네트워크 지원/ 20,000천원
- 지방의제 21추진 협의체 구성/운영비 지원(추경)

3 공공기관 배출권 거래제 시범 사업 추진

- 공공청사에 대한 전기사용량, 연료사용량 저감 목표치 설정

IV. 마무리

1 정부방향

- 2009.11.17. 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기로 결정했다.(*BAU(Business As Usual) = 특별한 조치(저탄소 녹색성장 등)를 취하지 않을 경우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전망치. 즉, 국민경제의 통상적 성장관행을 전제로 유가변동,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추계치이다.)
- 한국의 감축목표는 코펜하겐 협상의 타결 여부나 다른 국가의 감축목표 설정 여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발적이며 독자적인 국내적 목표로서, 단독적인(unilateral) 감축행동에 해당한다.
- 국가의 총량적인 감축목표가 정해짐에 따라 내년부터는 각 부문별로 세부목표를 정하고 관리하는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가 도입된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는 산업분야의 단기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감축여력이 많은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를 중심으로 감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 또한, 후속작업으로 부문별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업종별 국제경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축량을 배분하고 맞춤형 지원대책을 병행하기로 했다.

2 횡성군 방향

- 횡성군 기후변화대응 중기사업 타당성 용역을 수립한 결과 온실가스(CO₂(이산화탄소))년간 발생량이 323,587톤(산업공정제외)으로 산정되었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사용부문이 173,910톤(가정, 상업, 공공 112,856톤, 수송 61,054톤), 농업부문이 93,316톤(축산 59,909, 논 27,788, 비료 5,619)폐기물이 18,022톤(소각 14,951, 매립 2,470, 하·폐수 601)으로 연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온실가스 저감계획이 필요한 시점에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자발적인 노력으로도 줄일 수 있는 분야는 가정·상업·공공부문부터 시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린스타트 횡성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전 주민이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 전개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탄소발생량을 점차 줄여나가는 풍토가 자리 잡아야 함.
- 또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감축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과, 농축산 분야에 접목할 저탄소 녹색성장분야를 발굴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은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밀접한 생활과 연관되어 있다. 생태계, 산업·경제, 생활양식 변화로 다양한 금융 세제 개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이 온실가스 발생 감축의무 국가로 확정될 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지자체는 탄소배출권 구입비용예산을 별도 마련하여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왜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공공기관, 기업, 학교, 민간단체, 군, 주민 모두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다. 부디 미래청정법인 횡성과 더불어 저탄소 녹색성장이 상생할 수 있는 횡성군이 되길 기대한다.

향토문화의 I 숨결

- 限의소리, 삶이 노래(그 유장한 가락에 대한 斷想) 정재영
 - 풍수원성당
- 춘천, 횡성, 평창의 태기왕 설화 분석 최정훈
- 탐사와 검증을 통한 섬강 발원지의 재조명 김영배
 - 愛鄉心을 통해 본 橫城文化의 正體性 金性洙

恨의 소리, 삶의 노래 그 유장한 가락에 대한 斷想



● 글·사진 - 정재영 (小說家)
한국문인협회 회원 | 한국문인협회 강원도지회 부회장(소설분과위원장)
한국소설가협회 회원 | 황성문화원 부원장



체장수 노래 1

청천하늘에는 별도많아 얼러리 체장사 | 시내깨는 돌도많다 얼러리 체장사 | 가마꼭지
는 수도많다 얼러리 체장사 | 시집살이는 말도많다 얼러리 체장사 | 친정살이는 송도많
다 얼러리 체장사 | 요내가슴 수심도많다 얼러리 체장사 | 낭기래두 고목이되면 오던새
도 아니온다 얼러리 체장사 | 꽃이래두 낙화가되면 오던나비도 아니온다 얼러리 체장사
| 물이래두 간수가되면 놀던고기도 아니논다

소리 - 김지연(여, 87세, 원주 신림 태생, 19세에 이곳 서원면 금대리로 시집 옴)
체록 - 정재영(2001. 7. 27)



우리 소리를 찾아 우리 고장 안 간데 없이 편답 했지만 이 노래는 이 분 말고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가 없었다. 정말 내가 소중히 보물처럼 여기는 소리중의 하나이다. 김 지연 할머니는 고고한 학처럼 정말 곱게 늙으셨다. 청도 맑고 곱다.

지금은 농촌에서 체를 별로 안 쓰지만 예전에는 체가 우리 농촌의 생활필수품이었다. 디딜방앗간에서, 부엌에서 그리고 하다못해 타작마당에서 체는 긴요하게 사용됐다. 우리 마을 체 장수는 주로 늦가을에 찾아왔다. 저 멀리 남녘 담양에서부터 집집마다 체를 돌리곤 다음 해 가을에 곡식으로 쳇값을 받아갔다. 체 종류도 참 많았다. 가장 구멍이 큰 열개미 부터 가장 작은 도드미까지. 난 그 중 열개미 애용자였다. 어릴 적, 족대가 없던 난 열개미를 시냇가 풀숲에 대곤 버들치를 잡아냈다. 물에 대고 들썩셔대니 열개미가 배겨날리 만무하고, 몰래 실광에 걸어 놓지만. 결국 부지깥이로 얻어터지곤 풀러났다. 엄니한테.

가사가 무척 재미있다. 다분히 체장사를 놀리는 해학요지만 노래 한 울 한 울을 음미 해 보면 우리네 삶의 모습들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팔자 타령 2

세 살 먹어 어머니 잃고 | 다섯 살 먹어 아버지 잃고 | 삼오십오 열다섯에 시집이라고
 갔더니만 | 이구십팔 열여덟살에 총각과부가 웬일이나 | 열씨구 좋다 절씨구 아니노지
 는 못하리라 | 꽃은 피어 화산되고 잎은 피어 청산되어 | 꽃 꺾어 귀에 걸고 잎 뜯어서
 입에 물고 | 산에 올라 들구경 하니 질 가는 처녀가 질 못간다 | 열씨구 좋다 절씨구 아
 니노지는 못하리라

조사장소 - 서원면 옥계 2리 경로당 앞
 소리 - 서기만(남, 67세, 토박이)
 채록 - 정재영(2001. 7. 25)

신세를 한탄하는 노래는 참 많다. 한탄요(恨歎謠)는 시집살이 노래, 베틀가, 어
 러리 등 어떤 노래에도 빠질 수 없는 단골 메뉴였다. 특히 부녀자들의 시집살이의
 고단함을 노래한 소리는 지천으로 깔려있다.

황성 어느 골타데이 어느 누구를 붙들고 소리를 청해도 언제든 들을 수 있다. 남
 정네들이야 농주 한 사발에, 술추렴에 가슴 속 쟁여 뒀던恨들을 냅다 풀어 헤치곤
 했지만 이 땅의 여인네들은 그러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네들은 가슴 속恨을 소리
 로 승화 시켰다. 팔자 타령도 그런 노래다.

횡성 둔내면 논매는 소리(단회리) 3



1

어화 열신 단회리야 | 기러기떼 나르듯이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질머리를 따라가며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옆의 사람 눈치를 보며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한 칸닫고 한 칸
 짝고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호미목은 자주놀려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악우덩이도
 넘겨보고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팔뚝덩이도 하여가세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단호리
 참에 논넘어가네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여보시오 농부님네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갈게사기 힘을 쓰세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짚죽갈게 그만두고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둥근갈게 힘을쓰세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여보시오 농부님네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이내 말씀 들어보소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오늘날은 여기서 매고 | 어화 열신 단회
 리야 | 내일 날은 어디서노나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계원은 많아도 | 어화 열신 단회
 리야 | 소리가 적네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먼데 사람 듣기 좋게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옆의 사람 보기 좋게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구성지게 부름시다 | 어화 열신 단회리
 야 | 귀배미를 얼른매고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장구배미로 넘어가세 | 어화 열신 단
 회리야

2

명주나서 부모의복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묵논에다 피를 심어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피는지어 부모양식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묵밭에다 묵화심어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무성나아 우리의복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부대밭에 조를심어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조는 찌어 우리양식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조석으로 근심걱정 | 어화 열신 단회리
 야 | 오륜지도 능히하며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금수인들 변할소냐 | 어화 열신 단회
 리야 | 부자유친 으뜸이라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군신유의 버금이라 | 어화 열신 단
 회리야 | 안에들면 부부유별 | 어화 열신 단회리야 | 밖에나면 봉우유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형제간에 우애하면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장유유서 자연알제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방방곡곡 칭찬할제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이터전 성주전에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고사를 올려보세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재미쌀을 씻고씻어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정화수로 메를짓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촛대한쌍 갖춰놓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비나이다 비나이다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부귀영화 발원하니 | 어화 열신 단휘리야

3

노잘맨다고 슬나오네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이배미를 못다매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점심참이 늦어가네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호미목을 자주놀려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일락서산 해지기전에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농자는 천하지대본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농사밖에 또있는가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봄보리 가을보리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여기저기 던져놓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오곡을 심었으니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추수동장이 아닌가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여보시오 농부님네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이내말씀 들어보소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인생일장 춘몽인데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부모모양 하여보세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천지만물 생긴후에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귀한것이 사람일세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저기저기 저달속에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계수나무 한나무를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옥도끼로 찍어내어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금도끼로 다듬어서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초가삼간 집을짓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뒷메에다 뽕을심어 | 어화 열신 단휘리야

4

인복은 걸어들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물복은 흘러들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쪽 제비복은 뛰어들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구렁이 복은 기어들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아들을 나면 효자날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딸을나면 열녀로다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소를먹이면 우걱뿌리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말을 먹이면 용마되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닭을 놓면 봉황되고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개를 놓면 청삼살이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일년은 열두달 | 어화 열신 단휘리야 | 과년은 열석달 | 어화 열신 단휘리야

조사장소 - 둔내면 창촌리 메기기 - 안광수(1932년생, 남)
받기 - 박순택(1923년생, 남), 조순행(1935년생, 남) 채보 - 이소라(1986. 5. 24)

단호리 소리는 일 노래다.(勞動謠) 노동요는 서민들의 일터에는 어디 든 있다. 노동의 고됨을 잊기 위해 이 땅의 서민들은 노래를 불렀다.

삶의 노래, 恨의 노래를...

단호리 소리는 農事謠의 백미다.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특히 이곳 횡성 지방의 단호리는 소리는 주로 논을 맬 때 불렀지만 때론 모심을 때도 애창됐다. 논매기도 모심기 못지않게 고된 일이었다. 유난스레 잡초가 많았던(지금처럼 농약을 쓰지 않았기에) 그 시절 논매기는...

고봉으로 밥을 삼시 세 때 먹지만 그네들은 늘 허기에 지치고 일의 고됨에 지쳤다. 끊어질 듯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그들은 '아이고 허리야' 대신에 斷허리를 절규했다. 소리로.

단호리 소리에는 우리의 삶이 그대로 배어있다. 지금 우리의 들녘에는 논매기도 없고(제초제를 논은 물론 논두렁까지 쳐 대기에) 단호리 소리도 없다. 이제 들녘에 선 일손을 놓은 지 오래 된 연로한 그네들도 빛바랜 흑백사진처럼 가슴 한켠에만 그렇게 단호리 소리를 쟁여놓고 살고 있다.

어쩌면 머잖아 그 신명나는 단호리 소리도 그네들이 스러짐과 함께 이 땅에서 사라질 지도 모른다. 아니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영영.





‘춘향이 혼’ 내림 노래 4

춘향아 춘향아! | 남원골 성춘향아! | 나이는 18세 | 생일은 사월 초파일 | 어라썰썰 내림소서 | 어라썰썰 내림소서

조사일 - 2001년 8월 8일 소리 - 홍승녀(여, 66세, 경기도 양평에서 21세에 청곡리로 시집옴)
채록 - 정재영

춘향이 놀이 노래는 일종의 사면謠다. 으등 그런 겨울날 또래또래의 아이들은 저녁밥만 먹었다 하면, 으레 쇠물불로 짹짹 데워진 만만한 사랑방으로 몰려 들었다. 오늘날처럼 TV도 컴퓨터도 없던 시절 또래또래 아이들에겐 놀 거리라곤 별로 없었다. 고작 어른들이 하다 버린 짝 안 맞는 화투로 민화투 치기, 그도 아니면 남의 집 무우 구덩이 무서리하기.

춘향이 놀이는 무료하기만 하던 또래또래의 아이들한테는 귀가 번쩍 뜨이는 놀이가 아닐 수 없었다. 술래가 정해지면 술래를 가운데 앉히고 술래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두 손을 합장한다. 이내 둘러앉은 아이들은 주문처럼 춘향이 혼을 부르기 위해 노래를 부른다. 처음에는 느리게, 그리곤 점점 빠르게. 손바닥이 얼얼해지도록 박수를 쳐대며... 그러기를 30 여분! 이내 가운데 앉은 술래의 몸에 거짓말처럼 춘향이 혼이 실린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신명이 난다. 노래 소리는 점점 빨라지고 춘향이 혼이 완전히 몸속에 들어 온 술래는 또 다른 내가 되어 둘러앉은 아이들의 주문대로 움직인다. 춤을 추라면 춤을 추고 바지를 까 내리고 아직 숨털만 난 거시기를 꺼내 용두질을 치라고 하면 주문대로 용두질을 쳐야한다. 겨울밤이 이슬할 때 까지... 어른들은 잘못하다 혼이 온전히 나가지 않으면 반편이 된다고 해 우리들에게 이 놀이를 절대 못하게 했다. 지금은 없다. 춘향이 노래도, 놀이도.



우천면 목도 소리 5

어-허 이- 엉차 어허이 | 이엉차 허영 이엉차 허영 | 꼬리가 단다 허영(메기기) | 이어
차 허영(받기) | 앞머리 돌려 | 이엉차 허이 | 어허이 허영 | 어허이 허영 | 허영차 허
이 | 이엉차 허이 | 허영차 하자 | 이엉차 허이 | 허거정 하자 | 이엉차 허이 | 허거정
하자 | 이엉차 허이 | 허거정 하자 | 이엉차 허이 | 이엉차 허영 | 이엉차 허이

내리막길 나온다 | 이엉차 허이 | 앞머리를 허이 | 이엉차 허이 | 슬슬 돌려 허이 | 이
엉차 허이 | 허영차 하자 | 이엉차 허이 | 만수갑산 봉황새 | 이엉차 허이 | 새소리 들
리네 | 이엉차 허이 | 발이 빠진다 허이 | 이엉차 허이 | 허영차 하여 | 이엉차 하여 |
허영차 하여 | 이엉차 하여

기운차게 하여 | 이엉차 하여 | 여보시오 목도꾼들 | 이엉차 하여 | 기운차게 허영 |
이엉차 허이 | 잘두나 한다 | 이엉차 허이 | 얼른얼른 허여 | 이엉차 허이 | 소리맞춰
허이 | 이엉차 허이 | 허거정 하여 | 이엉차 허이 | 허영차 하자 | 이엉차 허이 | 허영
차 하자 | 이엉차 허이

물찬제비 같이 허여 | 이엉차 허이 | 어깨피고 허여 | 이엉차 허이 | 힘도차게 허여 |
이엉차 허이 | 잘도나 한다 | 이엉차 허이 | 돈벌기도 힘이나 든다 | 이엉차 허이 | 이
다리를 놓고나 나면 | 이엉차 허이 | 영화로다 영화로다 | 이엉차 허이 | 우리마을이
영화로다 | 이엉차 허이 | 허영차 허여 | 이엉차 허이 | 허영차 허여 | 이엉차 허이

발맞추어 허여 | 이엉차 허이 | 허영차 허여 | 이엉차 허이 | 허영차 허여 | 이엉차 허
이 | 허영차 허여 | 이엉차 허이 | 슬금슬금 잘도하네 | 이엉차 허이 | 마음합쳐 허여 |
이엉차 허이 | 이엉차 허영 | 이엉차 허이 | 이엉차차 허영 | 이엉차 허이 | 이엉차차
허영 | 이엉차 허이

물도맑다 허영 | 이영차 허이 | 잘도나 한다 | 이영차 허이 | 만물이 생성하니 | 이영차 허이 | 영글었네 허여 | 이영차 허이 | 땀방울이 영글었네 | 이영차 허이 | 목마르다 허여 | 이영차 허이 | 목마르면 술을 먹고 | 이영차 허이 | 배고프다 허이 | 이영차 허이 | 배고프면 밥을 먹지 | 이영차 허이 | 이영차 허영 | 이영차 허이 | 이영차 놓고

채록 - 양중환(남, 65세, 우천면 정금리,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정리 - 정재영(1999년 4월)



산관! 흔히 사람들은 벌목현장을 그리 불렀다. ‘살관’이라고도 했다. 그 만큼 산관은 늘 위험한 곳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는 스러져 갔다. 그래도 이 땅의 가난한 庶民들은 목숨과도 같은 돈을 벌기 위해 하루 노동의 대가로 보리쌀 한 말을 얻기 위해 겨울 한 철 산관을 기웃거렸다.

그들은 오야지라 불리는 木商이 마련해 준 움막에서 허기와 추위와 기나긴 고독과 윈겨우내 씨름을 했다. 해도 무렵까지. 목도소리는 베어진 나무들을 산 아래까지 나를 때 부르던 勞動謠다. 삶만큼이나 무거운 나무토막을 양어깨에 메고 우리네 산관꾼들은 고무신에 새끼로 감발을 치곤 목도소리를 흥얼거리며 산길을 내려섰다. 목도소리는 더 이상 노래가 아니었다. 이 땅에 사는 우리 서민들의 恨의 소리였다. 지난한.



황성 어러리 타령 6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어러리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얼었다가 녹아지니 봄철이로구나

세월아 가려거든 너 혼자나 가지 꽃같은 이내 청춘을 왜 데리고 가나 | 일변초당에 병
 이 들어서 홀로 누웠으니 어느 누가 임이라고 병치장하나 | 흥당목 저고리는 붉어야 좋
 고 물명주 단속곳은 넓어야 좋드라

모시대 참나물 쓰러진 골로 앞집에 김도령 모시고 나물캐러 가세 | 나두야 언제나 화류
 계 남아가 되어서 안남 산천 함박꽃같은 소첩을 두나

낙시대를 돌돌 말아서 개울가로 가거든 싸리 바구니 옆에 끼고 뒤따라와요 | 일락서산
 에 지는 저해는 지고싶어 지나 날 버리고 가신님은 가고 싶어 가나

태기산아 봉화산아 말 물어보자 임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 무덤이나 되나 | 울타리 밑
 에 저기 저 닭은 모이나 주면 보지만 | 저기 저 여자 불려면 무엇을 줘야 보느냐

물한동우 여다가 구정물 통에 붓고 임 한번 다시 불려고 또 이러갔네 | 담배불이 반짝
 반짝 임오시는 줄 알았더니 고놈의 개똥불이 날 속여주네

심심산천에 도라지꽃은 바람에 한들거리고 | 큰아가씨 손목은 제멋에 건들거리네

어둔골 연자방아는 사시사철 도는데 시집못간 뒷집처녀는 안달이 나네

청치마 꼬리에다 소주병을 달고 능라도 수풀속으로 임 찾아가ندا | 석세 베치마 사날 짚
 세기 신엿을망정 너 같은 못쓸놈은 눈알로 돈다

한치 뒷산 곤드레 딱지가 나지미 맛만 같다면 | 그것만 뜯어먹어도 봄 살아가네
 간다 못 간다 버르지 말고 인천 향구 배떠나 가듯이 뚝떠나 가지

해달은 오늘 가면은 내일이면 오지 한번간 우리님은 언제나 오나 | 우수야 경칩에는 대
동강이 풀리고 | 임자 당신의 손이 간대는 내속이 환히 풀린다

저건너 갈비봉에 비오나마나 어린신랑을 데리고서 잠자나 마나 | 일 강릉 이 춘천 삼
원주인데 놀기 좋고야 물색좋기는 횡성읍내로다

우리집의 서방님은 원주 현창나루에 소금 받으러 갔는데 | 일년 열두달 다 지나도 왜
아니오나

노랑대가리 얼키설키 뒤범벅상투 언제나 저 사람 길러서 내 낭군 삼나 | 여봐라 이 사
람아 그런 소리 마라 삼 년만 기다리면 네 남편 된다.

노랑저고리 다홍치마를 받고 싶어 받았오 | 우리 아버지 말 한마디에 울며불며 받았오
| 울타리밑에 저기 저 꿀베는 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 받아먹게

산이나 높아야 골이나 깊지 조그만 여자 속이야 더 할말 있나 | 무정유정은 정 드릴 탓
이요 잘살고 못사는 것은 중매장이 탓이라

술 잘먹고 돈 잘 쓸 적에는 금수강산이더니 | 돈 떨어지고 돈 못쓰니 적막강산이라
개울이 좋아서 개울가로 갔더니 시누이 남편이 돌베게를 베라네 | 당신은 나를 보면은
본척만척 하여도 | 나는 야 당신을 보면은 입맛이 변해져요

요놈의 총각아 치마폭을 놓아라 물명지 당사실로 주름 잡은 게 콩 튀듯한다.

채록 - 양중환(남, 65세, 우천면 정금리,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정리 - 정재영(1999년 4월)

이곳, 횡성에서는 아라리를 ‘어러리’라 부른다. 정선아라리와는 사뭇 다르다. 그
맛이. 정선아라리보다는 가락이 느린 듯하지만... 그래서 그런지 더 유장하게 들리
고 은근짜 하다.

‘어러리’는 노동요다. 나무하러 갈 때 나물 뜯으러 갈 때, 들녘에서 농사일을 할
때 우리네 농투산이들은 일의 고단함을 ‘어러리’를 부르며 잊었다. 어러리에는 보
일 듯 말 듯 한 性情이 더 입맛을 당긴다. 마치 민화 속 춘화도 처럼...

지게 작대기를 두드리며, 나물 바구니를 빙그르르 돌리며 아슴 아슴 그리운 이를
나즈막히 불러대며 그렇게 어러리를 불러댔다. 이 땅의 서민들은.

형성군 우천면 풀 썰는 소리 7



어- 우러리 | 개다리 힘내라 | 우러리 | 십리절반 오리나무 | 참 우러리
 방구찼다 뽕나무 | 누워서 자란다 눈버들 | 우러리 | 헤! 연-애 | 강릉 꽃감꼬지 들어
 간다 | 죽죽 번어 싸리나무 | 우러리 연-애
 어 물푸레 꼬투리여 | 개다리 힘났다 | 참 잘 썬다
 이거 아름다 | 어- 참 우러리- | 어 싸리 꼬투리 | 연-해 | 막 들어간다
 야! 이 옷나무 과부떡이다 | 아이-어이 | 어허 | 어이 풀 | 이렇게 | 먹섬거리 먹섬거
 리 | 잘 누린다 | 참 잘 누린다 | 야 이거 처녀
 소리가 난다 북나무 | 야 처녀 작두다 | 아 처녀 불알이로구나 | 어 참 우러리 | 어허 |
 어이 풀 | 목이 찬다 | 목이 차
 어시기 거시기 화식이 주식이 | 갈빗대 | 처녀 작두 | 곰방대 곰방대 | 처녀 불알 | 어
 불래 | 우러리 | 어 우러리 참 우러리
 잘 누린다 | 헤! 연애 | 연애 | 막 들어간다 | 우후후 | 어 하하
 힘도 써구나 | 문테 다리 힘냈다 | 연애 | 우러리 참 우러리
 고비 고사리 | 용문산 두리치냐 | 잘 썬다 잘 썰어
 아가리 짹짹 벌려라 | 열무김치 들어간다 | 연애 연애 | 어 불래 논다 | 참 잘 누빈다 |
 연애 연애
 돌쇠 재동이는 | 윤번 돌려라 | 돌려 | 연애 연애
 단풍들었다 단풍나무 | 감사하다 감나무 | 우러리 | 연애 연애 | 잘도한다
 아이구 맛있어 개암나무 | 연애 연애 | 꽃이 아름답다 복숭아 나무 | 연애 | 어이 | 우
 러리 | 벗벗 꽃꽂이 벗나무 | 산골 도랑 개부랄꽃 | 힘내라 힘내 | 개다리 힘내라

젊은 놈이 힘이 없나 | 우러리 | 참 우러리 | 어허 잘 디딘다
 팽팡 돌아라 팽나무 | 층층이 크다고 층층나무 | 우러리 | 허! 연애 | 연애
 이이 따가워 찢레나무 | 미출하다 미루나무 | 참 우러리 | 연애 | 들짐장수를 하였는가
 | 개다리 힘도 좋다 | 목도 차고 힘도 든데 | 추근추근 하여보세
 주인택 방울아기 | 막걸리 대령하소 | 연애 | 어 -어이
 더벅머리 소나무냐 | 어이구 침 돈다 살구나무 | 연애 연애
 속이 들어간단 국수나무 | 어서 자시오 잣나무 | 우러리 | 먹섬거리 먹섬거리 | 우러리
 | 연애 연애 | 사시사철 사시나무 | 늘 푸르다 측백나무 | 어이 연애 | 참 우러리 | 연
 애 연애 | 참 우러리 | 목이 찬다 목이 차 | 연애 연애
 기발 놀리듯 하지 말구 | 어서 목을 치워라 | 연애 연애 | 어이 | 참 잘한다 | 허리 한
 번 펴보세 | 야 호 !

채록 - 양중환(남, 65세, 우천면 정금리,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정리 - 정재영(1999년 4월 21일)

단오부터 시작한 모내기는 한 달 정도까지 가야 마무리된다.

그것도 비가 내려준다는 조건으로... 산골타데이 천수답은 하늘만 쳐다 볼 수밖에 없다. 그도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메물을 풀어야 한다(심는다는 토박이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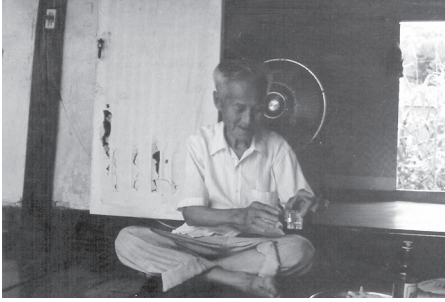
한가한 틈을 타 퇴비를 위한 풀썰기가 시작된다. 모내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아직 그리 크지 않은 연한 나무는 어느 것이나 퇴비 재료가 된다. 마당 한구석에 산에서 베어온 풀과 나무를 쌓아놓고 품앗이로 작두질을 한다. 하루 종일.

작두질은 힘도 들지만 매우 위험한 작업이다. 풀을 맥이는(작두에 들이미는) 사람과 작두를 발로 밟는 사람과 호흡이 맞지 않더라도 하면 한 순간에 손가락이 작두에... 그 호흡을 맞추기 위해 우리 선조들은 이리 노래를 불렀다. 박자에 맞춰... 마치 군가에 맞춰 일사분란하게 행진을 하듯...

가사가 참 재미있다. 노래는 주로 작두를 밟는 사람이 매기고 그 외 사람이 받는



다.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즉흥적인 가사가 많다. 그래서 더 재미있고 정겹다. ‘처녀불알’, ‘가문데 다리’ 우리 구비문학의 서민성과 해학성의 진수를 보는 듯하다. 지금은 작두대신 어른팔뚝 만한 나무도 금새 가루로 만들어지는 동력 분쇄기의 굉음이골타테이를 흔들어 낸다.



우밀어러리 (나무하면서 부르는 노래) 8

후렴 : 어러리 어러리 어러리요 어러리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가 : 심심산천에 도라지꽃은 바람에 건들거리고 | 큰아가씨 손목은 제멋에 건들거리네

나 : 흥당목저고리는 붉어야 좋고 물명주 단숫곳은 넓어야 좋더라

다 : 모시대 참나무 쓰러진 골로 앞집에 김도령 모시고 나무 캐러 간다네

라 : 나무야 언제나 화류계 남자가되어서 안남산천 함박꽃 같은 소첩을 두나

가 : 세월아 갈라거든 저 혼자나 가지 가까운 이내청춘 다 늙어간다

나 : 낚시대를 딸딸 끌구서 개울가로 들거든 | 싸리바구니 옆에 끼고 뒤따라와요

다 : 일락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나 날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가나

라 : 꽃은야 보거나 줄소마는 가지가 높아서 못 꺾겠네

가 : 태기산아 봉화산아 말 물어보자 임 그리워 죽은 무덤이 몇무덤이나 되나

나 : 울타리 밑에 저기 저담은 모이나 주면 보지만 | 저기야 저 여자를 불러면은 무엇
을 쥐야 보느냐

다 : 술이란 걸 잡수거든 취하지를 말고 임이라고 만나시거든 이별을 마라

라 : 물 한동우 여다가 구정물 속에 붓고 임 한번 다시보려고 또 이려갔네

가 : 노랑저고리 다홍치마를 받고 싶어 받았나 | 우리아버지 말한마디에 울며불며 받았소

나 : 안남산 뼈꾸기야 초성도 좋다 세 살적 들던 목소리 변치도않았구나

다 : 술은 술술이 잘 넘어가고 찬물에 얼음냉수는 충치가 인다

라 : 담배불이 반짝반짝 임 오시는 줄 알았드니 | 그놈의 개똥물이 나를 속이었네

가 : 심심산천에 도라지꽃은 바람에 건들거리고 | 큰아가씨 손목은 제멋에 건들거리네

나 : 열 두 칸 부수쌈지를 다 짓고 나니 | 병아리아범 암탉의 서방이 무등치듯 운다

다 : 노다 가거라 자다가거라 잠자다가 가거라 | 보름달이 떠닥지도록 놀다나 가세
 가 : 어둔골 연자방아는 사시사철 도는데 시집못간 뒷집 처녀가 안달이 났네
 나 : 청치마고리에다 소주병을 달고 능라도 수풀 속으로 님 찾으러 간다
 다 : 산천초목에 물과 요지는 임자가 있는데 | 요 내 인생은 무엇으로 생겨서 임자가
 없나
 라 : 석세 베치마 세날 짚세기 신엇을망정 너 같은 몹쓸 놈은 눈알로 돈다
 가 : 네 잘났느니 내 잘났느니 인기다툼을 말고요 | 시방시체 은전 짚죽이 제일 잘났네
 나 : 임자 당신이 나하고 살기 싫으면 민적초본을 갈라요 | 산수갑산 썩 들어가서 막걸
 리 장사나 할래요
 다 : 저건 네 목발은 작년에도 목더니 올해도 날과 같이 또 묵는구나
 라 : 부뚜막 뒤에다가 철길을 놓고 시아버지 진지나상을 발끝으로 미누나
 가 : 한치 뒷산에 곤드레 딱지가 나지미 맛만 같다면 | 그것만 뜯어먹어도 한봄철 나지
 나 : 일본 동경을 갈라니 노자돈 생각이 나고 | 남의 여자를 불러니 매맛을 생각이 난다
 다 : 심심산골에 참매미소리는 내가 듣기 좋고 | 늙은 과부 한숨소리는 내가 듣기 싫어
 라 : 울타리 밑에다 님 세워놓고 호박잎이 난줄 난줄 님 감춰주소
 가 : 물 본 기러기 꽃본 나비야 탐아봉적인데 나비가 꽃을 보고서 거저갈소나
 나 : 천지시간 만물지중은 다 잘 마련했건만 | 청춘홍안 백발이 되는 것은 누가 마련을
 했나
 다 : 우역뿔 얼룩암소에 정이나 들었지 손익은 연자방아도 정이나 들었네
 라 : 저 달 보세요 저 달 보세요 저 달 저길 보세요 | 님 하고 같이나 가려고 뒤떨어졌네
 가 : 어스럼 달밤에 귀뚜라미 소리 정드신 님 우리 낭군께 소식이 오지
 나 : 문전옥답에 요지전답을 왜 다버리구서 | 쓸쓸한 북망산천을 무엇하러 왔나
 다 : 보리방아 보리개떡에 인정이 오고 뒷집에 큰 애기 솜씨가 나는 좋아요
 라 : 삼밭에 수삼대는 늙고 늙드래도 우리 집 정드신 님은 늙지를 마오

노래 - 김영배(1929生, 남), 안경희(1932年生, 남), 이경상(1939年生, 남), 엄영태(1923年生, 남)
 채록 - 이종호(1927年生, 남)
 고증 - 김재춘
 정리 - 정재영



‘우밀’은 횡성 우천면 정금리에 위치한 마을이다. 대통령상을 수상한 ‘횡성 회다 지소리’의 본산이다. 이 마을 사람들 치고 소리 못 하는 사람이 없다. 누구든 지게 목발 두드리며 어러리 타령 한 자락쯤은 능히 할 줄 안다. 유장하게.

예전에는 농사일 못지않게 나무하는 일이 중요한 일거리중의 하나였다. 나무가 있어야만 난방이 가능하고 취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모심고 나면 농목이라고 산에 가 나무를 베어 단을 묶어 놓았다 가을철 돼 마르면 집으로 운반했다.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며 우리 농투산이들은 가슴 속 쟁여 뒀던 한의 타래를 꺼내 산골타데이에 냅다 풀어 던졌다. 유장한 가락과 함께.

기름보일러로 연탄보일러로 요즘은 나무가리도 나무하는 사람도 볼 수가 없다.



종달이 노래 9

아줌씨가 깨놓고 | 날보고 깐다고 | 지글지글 노글노글
 아줌씨가 깨놓고 | 날보고 깐다고 | 지글지글 노글노글

노래 - 박춘자(여, 62세, 횡성군 서원면 청촌리 거주, 전남 구례 태생, 22년 전 이곳으로 이주)
 채록 - 정재영(2002년 4월 21일)

종달새를 여기서는 종달이라고 부른다. 오늘 같이 눈이 부시게 푸르른 5월이면 그 황금빛 깃털의 종달이들은 아직 가래질하지 않은 산골 다랭이 논 들깨짚에 날아와, 당최 심심하기만한 골타데이를 향해 청아한 목소리를 뽑아 올린다. ‘지글지글 노글노글’

그에 화답이라도 하려는 듯 목청좋은 쟁기꾼도 종달이 노래가 끝나기 무섭게 윤기 찰찰 흐르는 소물이 소리를 뽑아 올린다. 까투리 깃든 파스텔 톤 갈나무 연초록 갈포기를 향해.

‘이러---마라소야---어후---.’

이 봄에는 종달이도 멋진 친구다. 박춘자님의 목소리는 환갑 진갑 다 지났건만 너무 청이 좋다. 아니 맑다. 이 노래를 들으면 마치 새 소리를 듣는 듯하다.



아버지 학교에 보내주세요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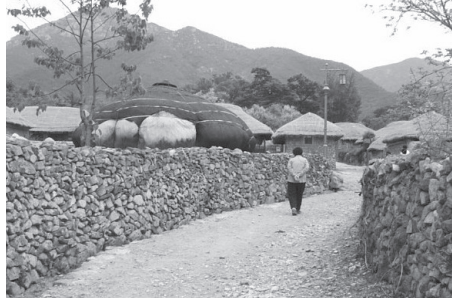
아버지 학교에 보내주세요 | 저 건네 저 아이들을 바라 보세요 | 깜장초마 흰저고리 책
보를 끼고 | 학교에 가는 것이 나는 부러워

나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 매일아침 머리 곱게 빗겨주시고 | 학교 가라 학교 가라
하시건마는 | 어찌되어 요 내 신세 요리 되었나

춘자야 춘자야 울지를 마라 | 니가 울면 내 눈에서 피가 흐른다 | 사랑하는 아버지는
소용 없더라

노래 - 허우순(여, 63세, 황성군 서원면 금대리 거주, 공근 태생, 18세 이곳으로 시집)
채록 - 정재영(2001년 3월 14일)

이 노래를 들려주신 금대리 허 우순씨도 無學이다. 허긴 그 당시 국민학교 문턱
에 가 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배움의恨은 평생을 간다. 죽을 때 까지... 학
교에 가고 싶은 간절함이 구구절절이 노래 전반에 녹아있다.



시집살이 노래 11

시아버지 죽었다고 엉덩이춤을 쳤더니 | 왕골자리 다 떨어지니 생각 나네
 시어머니 죽었다고 좋다구나 했더니 | 보리방아 물 쥐 놓고 선 생각이 나네
 임 보러 간다고 빗었던 머리 | 돈 한 푼 바람에 사슬이 됐네.

소리 - 권춘옥(여, 73세, 우천면에서 13세에 초원리로 시집옴)
 채록 - 정재영(2001년 8월 13일)

권 춘옥 할머니의 노래는 끝이 없었다. 시작하기가 어려웠지 한 번 시작하자마자
 붓물 터지 듯 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지난한 삶의 편
 린들을 내게 토해내고 있었다.

그 시절 어느 누군들 시집살이를 안 했을까마는 유독 권춘옥 할머니의 들려주시
 는 시집살이는 모질기 짝이 없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향한 연민이 노래 가
 사 행간에 살갑게 묻어있다.

다 저녁 때 난 물기 어린 할머니들의 배웅을 받으며 초원리 자들박을 넘어왔다.



달풀이 노래 12

정월이라 새복일날 새해로다 새해로다 | 찬란한 오색옷을 갖춰갖춰 갈아입고 | 떼를 지어 노니는 새해로다 새해로다 | 산우에 높이 올라 망울 하는 소년들아 | 우리네 님은 어디를 가고 정월인줄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다보내고 이월이란 한식날엔 | 원금산천엔 봄이 드니 불탄 불에 손님 나고 | 집집마다 찬밥이니 개자추에 녹지로다 | 봄바람 야오밀로 말달리는 소년들아 | 우리네 님은 어디를 가고 청명인줄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다보내고 삼월이라 삼짓날에 | 제비새끼는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 호접은 분분하야 옛 빛을 사랑할 제 | 야외 길로 노니는 소년들아 | 우리 님은 어디를 가고 삼짓절인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다보내고 사월이라 초파일날 |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앉아서 춤을 추고 | 한강수 깊은 물에 어령에 노래가 처량하다 | 장안마는 집집마다 관릉하는 소년들아 | 우리네 님은 어디를가고 관릉절인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다보내고 오월이라 단오날에 | 나물먹고 물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 여름구름이 구름이나 자주새 울음이 울음이냐 | 소백양유 긴긴낭개 그네 뛰는 소년들아 | 우리 님은 어디를 가고 단오절인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다보내고 유월이라 유두날은 | 반가월사 순풍이라 치마옷깃 휘날린다 | 김매고 방아 찧고 목욕하는 소년들아 | 우리네 님은 어디를 가고 유두절인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다보내고 칠월이라 칠석날에 | 아미산 달을 찌는 이적선에 청흥이여 | 견
우직녀 바라보고 눈물짓는 날이로다 | 우리네님은 어디를 가고 칠석절 인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다 보내고 팔월이라 추석날에 | 백곡이 풍릉하니 반가울소 추석이야 | 이
독수 옷깃 젖는 이내신세를 니가아리 | 찬바람 절석따라 대추가는 소년들아 | 우리네님
은 추석절인 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다보내고 구월이라 중구일에 | 만학에 단풍드니 꽃핀 듯이 반가워라 | 지
리산 천학봉에 등산하는 소년들아 | 우리네 소년들아 구두절인 줄 모르시나

그달그믐을 다보내고 시월이라 천마일에 | 공산에는 기러기여 독수공방 이내 신세 | 저
리 궁천 밝은달은 혼자 밝아 무엇하며 | 등잔불 끄고 앉아 풍월 읽는 소년들아 | 우리
님은 어디를 가고 천마절인 줄 모르시나

그달 그믐을 동지다 동짓날에 왕상이 맹자보다 | 효자다 이르더니 가신부모 따라가서 |
남은 효성을 바치려가 우리네임은 어디를 가고 | 동지절인 줄 모르시나 그달그믐을 다
보내고 | 설날 제석날에 돌아오는 순풍이야 어느 때나 맞으려

소리 - 이호병(남, 84세, 전주에서 80년 전에 이주)
채록 - 정재영(2001년 8월 5일)

이 호병씨는 현재 혼자 산다.(몇 해 전 작고하시고 안 계신다) 도곡리 외딴집에.
구집을 바라보는 연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은 언제 봐어도 입성이 깔끔하다.당신
스스로 빨래를 해 입는 처지임에도. 그분의 집도 마찬가지로. 안 안팎이.

이 호병씨는 젊은이 못지 않는 기억력으로 소싯적 배운 노래 가사를 한 귀절도
빠짐없이 기억하신다. 청도 아주 좋다. 정말 듣기 좋은 소리다. 그래서 그는 천상
소리꾼이다.

달풀이 소리! 귀한 소리다. 횡성 마을 다 핀답 해 다녔어도 이 소리는 다른 곳에
서는 듣지를 못했다. 일 년 열두 달의 세월이 이 소리에 다 녹아있다. 가락이 경쾌
하고 빠르다. 옆에서 듣고 있다 보면 절로 어깨가 들썩인다. 이 소리는.



방개 노래 13

방개야 방개야 방아 방아 방아야 | 딸각 딸각 방아야 아침 먹고 방아야
 점심 먹고 방아야 딸각 딸각 방아야 | 어이 잘 찢는다 딸각 딸각 방아야
 아침방아 저녁방아 딸각 딸각 방아야 | 아침방아 저녁방아 딸각 딸각 딸각

소리 - 신옥순(여, 60세, 홍천에서 18세에 초원리로 시집옴, 황성군 공근면 초원리 거주)
 채록 - 정재영(2001년 8월 12일)

신옥순 씨는 천상 소리꾼이다. 소리꾼은 청이 좋아야 하고 기억력도 남달라야 한다. 신옥순씨의 청은 가히 일품이다. 특히 꺾음은. 소싯적 자질구레한 일도 비디오 보듯 흰하다. 방개는 방아개비의 이곳 토박이말이다.

너나없이 없이 살던 시절 메뚜기와 방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먹거리였다. 어린이들에게는. 동시에 장난감이라곤 없던 어린아이들에게겐 장난감으로.

아이들은 이렇듯 자연에서 세상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저절로... 굶기를 밥 먹듯 하던 시절 어린아이들의 화두는 늘 '먹거리'였다.

아이들이 방아개비를 잡아 손으로 까닥거리며 방아를 찼었다. '이밥 먹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전래동요답게 가락이 경쾌하다.

횡성 방구 소리 14



시아버지 방구는 호랭이 방구 | 시어머니 방구는 잔소리 방구 | 며느리의 방구는 종알 방구 | 시누이 방구는 사랑 방구 | 미국방구는 양키 방구 | 한국방구는 평화 방구 | 얼 씨구 방구로세

소리 - 홍승녀(여, 66세, 경기도 양평에서 21세에 청곡리로 시집옴)
 채록 - 정재영(2001년 8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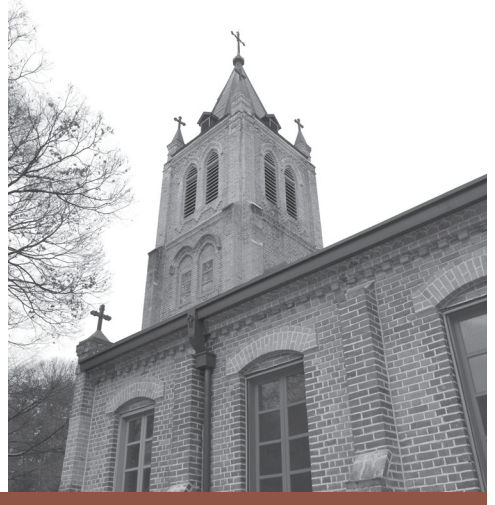
청곡리는 지금 중앙 고속도로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섬강 상류인 금계천을 앞에 두고 오순도순 정을 나누던 마을이었다.

홍승녀 할머니는 유독 수줍음을 많이 타시던 할머니였다. 무려 한나절을 조른 끝에 얻어 낸 소리이다.

이 노래도 다른 지방에서는 흔히 들을 수 없는 독특한 노래이다. 우리 소리의 해학을 엿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서민의 노래이다. 이 땅의 우리 서민들은 이렇게 노래를 통해 맘 속 응어리진 한을 풀어 내놓고 삭였다.

가락이 경쾌하고 무척 흥겹다.

풍수원성당



1982년 11월 3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

횡성은 다른 지역에 비해 천주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은데, 그것은 이곳이 초기 천주교도들이 숨어서 신앙을 키웠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마을인 풍수원은 천주교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마을이다. 이 마을은 순교자의 피로 얼룩진 초기 천주교 역사에 횡성군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게 한 데에 큰 몫을 하여왔다. 횡성군 서원면 유현리 1097번지에 있는 풍수원 성당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건축된 성당이며 전국에서는 4번째로 건립된 건축으로, 강원도 천주교의 발상지이며 한국천주교사에 전기를 마련한 성지로 1세기 가까운 풍상 속에서 의연히 복음을 전파한 도내 고딕식 벽돌양식 건물의 효시이기도 한 유서 깊은 곳이다. 1982년 11월 3일에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되었고, 건평은 120평이다.

1801년의 신유박해 이후 1802년 혹은 1803년경에 경기도 용인에서 신태보(베드로)를 중신으로 하여 40여명의 신자들이 8일 동안 피난처를 찾아 해매다가 정착한 곳이 풍수원으로, 이곳은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앙촌이었다. 이곳에서는 80여년 동안 신자들은 성직자 없이 신앙생활을 하여 오다가 1888년에 서울교구장이 풍수원 성당을 본당으로 승격시켜 초대 신부로 프랑스인 르메르(Le Merre) 신부가 부임하여 정식으로 교회가 성립케 되었고, 춘천·화천·양구·홍천·원주·양평 등 12개군을 관할하여 당시 신자수는 약2천명이었다.



풍수원 성당은 초가집 20여간에 불과했으나 현재의 성당 건축은 2대 정규하(鄭奎夏, 1863~1943) 신부가 부임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중국 폐낭 신학교에서 신품을 받고 귀국하여 풍수원 성당으로 부임한 정신부(아오스딩)는 풍수원 성당을 손수 설계하고 부지 1,500평을 마련하여 중국인 기술자 진베드로와 함께 현재의 성당을 착공하였다. 신자들이 용기가마를 만들어 진흙벽돌을 굽고, 목재를 준비하는 등 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여 1907년에 준공한 후 1909년에 낙성식을 가졌다.

당시만 해도 한양 250여리 길은 양평 까지만 사람이 겨우 다니는 소로가 있었고, 양평에서 한양 까지는 소금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었으므로 목재·백회·함석 등의 자재운반이 가장 큰 문제였으나 신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스스로 노역에 참여했다고 한다. 당시 노역에 참여했던 신자들은 ‘농사와 생계일을 팽개치고 성당건축 노역에만 전념했는데도 풍년이 들었고, 노역에 손발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 신바람이 났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건축양식은 고딕식으로 지붕은 직접 프랑스에서 들여온 두꺼운 동판을 깔았고, 벽돌 쌓기에는 백회를 써서 줄눈의 이음새를 처리하였으며, 선물의 기단부분은 모두 석재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대역사는 1년만인 1907년에 완성되었으며 준공기념으로 정규하 신부가 심었다는 느티나무는 거목이 되어 있다. 정규하 신부는 45년간 이 성당을 지키면서 광동초교의 전신인 성심학원을 세워 교인 자녀들에게 한글·한문·수학을 가르쳐 문맹자를 퇴치하였고, 우수학생을 서울 등으로 성직 유학을 보내 국내 어느 본당보다도 많은 신부를 배출해냈다.

춘천, 횡성, 평창의 태기왕 설화 분석

강원도 상고사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



● 최정훈 (민족사관고)

I. 서론

● 연구 동기 및 목적

강원도의 상고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사료의 부족이다. 삼한이나 부여와 같은 정치 세력의 등장 또한 명확하지 않고, 그것을 증명하는 거시적인 유물이나 유적도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강원도 향토사학계에서는 금석문이나 문헌과 같은 공식적인 자료보다는 지명, 설화 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러한 준(準)사료의 일종으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 태기왕에 대한 설화

가 있다.

춘천에서는 춘천 지방의 고대 왕국이 었다는 맥국의 왕 태기왕에 대한 설화와 춘천 신북면 발산리 일대에서 기와 조각 등의 유물들, 삼악산, 화천 용화산의 산성들을 바탕으로 맥국이 실재했다가 외부 세력의 공격으로 멸망했다는 가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춘천 지역 설화 중에서는 특히 그 중 발산리 지역에 맥국의 궁성이 있었다는 것과 삼악산에서 맥국이 항전하다 멸망했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연구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아 왔다. 1)

1) 김영기, 『춘천 맥국의 전설』, 춘천문화원, 1980

한편, 횡성에도 태기왕 설화가 전한다. 그러나 횡성 지역에서는 태기왕에 대한 언급은 있어도 맥국에 대한 것은 드물고 또 태기왕의 몰락에 대한 설화와 춘천에 전해지는 맥국에 멸망에 대한 설화 사이의 공통점도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²⁾

그런가 하면 춘천과의 사이에 횡성을 두고 있는 평창, 특히 봉평면에서는 또 맥국의 왕 태기왕에 대한 설화가 있으며³⁾ 태기산 산신령곳과 같이 그를 기리는 무속도 있다.⁴⁾

이 세 지역에서 이런 현상이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흡했다. 그러나 많은 향토사학자들은 자세히 검증되지 않은 이런 설화를 자료에 준하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 왔다. 또한 다른 지역의 태기왕 설화를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만 채택해 인용하여 주장의 근거로 삼는 등의 문제도 있었다.

이 점을 의아하게 여겨온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이처럼 지역적으로 서로

다른 설화들을 분석하여 이들이 같은 설화라고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설화가 아닌 민중을 통해 구전되어온 역사로서 보는 관점은 타당한지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다.

● 연구의 방법

이번 연구는 설화의 분포 현황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 만큼 현장 조사에 주로 기반을 두었다. 그러나 충분한 구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나 사정상 방문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직접 채록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각 지역의 문화원에서 간행한 구비문학 전집을 주로 이용하여 추가적 자료를 확보했다.

현장 조사는 먼저 문헌을 통해 이번 연구 주제와 관련된 설화가 전하는 지역을 파악한 뒤 그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마을 회관을 방문하는 방식과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택을 방문하거나 마주치는 마을 주민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러나 조사를 주로 진행했던 시기가 7월 말부터 8월이었기 때문에 농번기와 겹쳐 마을 회관 방문은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또,

2) 이대범, 「태기산 주변의 구비전승」, 횡성문화원, 2003

3) 이대범, 동일 논문

4)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p.500

춘천 덕두원리나 횡성 병지방2리처럼 휴가철 피서객들로 인해 마을 출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춘천문화원과 횡성문화원에서 간행한 향토사 관련 서적들을 바탕으로 그 일대의 상고사에 대해 조사했다.

II. 본론

●강원도의 태기왕 설화

강원도 춘천, 횡성, 봉평 등에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 중 태기왕에 관한 것이 있다. 태기왕 설화는 백국 또는 진한의 왕이었던 태기왕에 대한 이야기로 크게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1) 고대의 통치자로서의 태기왕에 관한 설화

이 이야기는 전란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이야기로 태기왕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로 횡성 청일면, 갑천면의 일부 지방과 춘천 일부에서 전해진다.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이 마을 옆에 이 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어답산이라고 해발 780m인데 말이지 왜 어답산이냐면 말여 그 옛날에 저기 저 진한의 왕이 신라 박혁거세랑 싸우다가 져서, 아 글썄 아 마 땅 뺏으려고 싸웠겠지, 일루 도망을 왔는데 먼저 여기 어답산에 왔단 말야. 그런데 보니까 땅이 너무 좁거덩. 그래가지고 저기 봉평쪽에 태기산으로 갔대. 그 왕 이름이 태기왕이라서 산 이름을 그래 부르게 됐대.

저기 산 너머는 병지방골이구 그리 가보면 또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또 저쪽 골은 어염골인데 왜 어염골이라고 부르냐 하면 그 태기왕이 여기 있을 적에 그리 가서 소금을 샀다고 해서 어염골이래. 또 저기 아래는 태장골인데 태기왕이 장, 그러니까 곤장을 쳐서 잘못된 사람 벌을 줬다 그래서 태장골이래. 5)

저 아래쪽에 보면 공서울이라고 있지? 거기 원래 이름은 공세동인데 지금은 다들 공서울이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거기서 옛날에 태기왕이 세금을

5) 남일희(83세, 남), 횡성군 갑천면 삼거리, 2009년 8월 2일 채록

걸었다고 해서 공세동이라는 이야기가 있어. 또 거기서 올라가면 은전머리라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걷은 은전으로 세금을 모아 놓았던 모양이지. 6)

이 두 설화의 내용은 태기왕이 법령을 정하고 그것을 집행했다는 것, 소금을 구매했다는 것, 세금을 걷었다는 것 등 일반적인 행정을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것으로부터 태기왕의 통치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

또, 춘천 발산리 일대의 지명이나 그에 관한 설화도 있다. 태기왕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많으며 제방 중 ‘백둑’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 지명 중 ‘왕뒤’(왕대)라는 것 등의 이야기로 이런 이름들이 옛 맥국 시절 있던 성지(城址)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7) 또, 예전에 맥국 궁궐이 발산리에 있었다는 설화도 있었으나 이제는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 8) 이로부터 맥국이 관개시설 정비나 축성 등의 건축 사업을 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설화들은 이렇게 고대의 통치자인 태기왕이 실제로 행정을 처리하면

서 각종 사업을 벌이기도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춘천의 경우 태기왕이 통치했다는 맥국이 등장하는 반면 황성의 경우 단지 태기왕이 어딘가에서 옮겨온 군주라고 나타날 뿐 그 세력 기반이 뚜렷하지 않다. (간혹 진한의 왕 또는 왕자였다는 설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춘천에서는 태기왕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황성에서는 거의 항상 태기왕이라는 지도자가 분명히 드러난다. 평창에서는 전하지 않는다.

(2) 권도중래를 꺾하다 패하는 태기왕에 관한 설화

이 이야기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태기왕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로 외부 세력의 압력으로 인해 추방당한 태기왕이 인근의 산에 들어가 재기를 꾀했으나 결국 패하고 사망하거나 어딘가로 달아났다는 이야기이다. 춘천 남면 삼악산 인근이나 황성 갑천면 병무산, 청일면 어답산 일대에서 전해진다.

이 형태의 전설은 황성의 경우 태기산(태기산 동쪽 기슭의 평창군 무이리 등

6) 최영순 (50세, 남), 황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2009년 8월 2일 채록.
 7) 유재춘, 「고대 춘천지역의 관방시설에 대하여」, 춘천시·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8) 조사차 방문한 발산리 마을 회관에 있던 노인들로부터 들은 사실.

에도 이런 이야기가 전한다. 9)이나 어 답산, 병무산을 중심으로, 춘천의 경우 삼악산의 것을 중심으로 전해진다. 횡성에 전해지는 것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

여기 병무산이구요. (중략) 그럴 적에 신라 시절에 태기왕이 늙어 왔다가 가는데 (중략) 그런데 그 때 그 태기왕이 그 복덕 더운지 신라 시절에 이 갑천면 와 가지구서리 이 갑옷을 강물에다가 시탁을 해입었다고 그래서 갑천면이라구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구. 그 래선 여기 군사를 데리고 와서 농사를 태기산에서, 거기 성자리도 있고 그러 잖아요, (중략) 그냥 사뭇 (신라의) 군사 가 확 들어왔으니까 (중략) 그래 농구서는 흥천 벌막에다가시리 그 산중 터로 해서 벌막으로 들어서 그리 싸우다가시리 거기서 패해가지고서는 거이 인제 탄광태가 있어요. 탄광태 앉아서 탄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낙수대가 있어요 낙수대를 또 또 저가지구서는. 면온이라구 가서 멀서를 하구. 그 아래 또 산둥고개라구 있어요. 그래 산

둥 거기 가서 태기왕이, 그 바닥서는 태기왕이 이름도 없다는 게요. 10)

횡성 일대에 전해지는 이런 이야기들은 태기왕의 출신 내력과 횡성으로 오게 된 이유, 세력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태기왕의 노력, 그리고 추격해온 적에 의한 재기 계획의 좌절, 태기왕의 도주와 몰락 등의 요소를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춘천에도 전해지고 있으며 이는 예로부터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곤 했다. 그러나 이 경우 태기왕이라는 인물과 그가 처한 상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점에서 횡성의 민담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춘천 남서부의 삼악산을 배경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이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의 내용을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예전에 춘천에는 맥국이 있었고 강릉에는 예국이 있었다. 예국에서 맥국을 침공하자 맥국은 도읍을 삼악산으로 옮겨 항전했는데 워낙 험준한 산이라 공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국에서는

9) 이대범, 동일 논문

10) 원영환,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횡성의 구비문학 II p. 1990에서 인용.)

계락을 마련했다. 말을 말끝에 풀어놓아 풀을 먹이고, 늙은 군사들만 모아 칼봉에서 조련하는 시늉을 시키고, 의암에 빨래를 널어놓으니 맥국 군사들은 적이 싸우려는 마음도 없고 그리 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고 방심했다. 그사이 예국에서는 덕두원 방향으로 몰래 돌아가 다리를 놓고 성벽을 넘어들어와 삼악산의 한 쪽이 무너졌다.

또 다른 쪽에는 할미문이라는 관문을 넘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러자 예국에서는 패물을 파는 할미리를 시켜 수문장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뒤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했다. 결국 그렇게 양면으로 협공을 당하자 맥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망국대라는 곳에서 최후의 항전을 한 뒤 멸망하고 말았다. 11)

이런 이야기는 크게 맥국과 예국의 대립(위의 설화처럼 태기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을 수 있다.)과 그로 인한 맥국의 농성과 그것을 뚫기 위한 예국의 계략, 그리고 그 계략의 성공으로 인한 맥국의 몰락을 다루고 있다.

횡성 일대와 춘천 일대에 분포하는 이

런 유형의 태기왕 설화는 그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태기왕이 옮겨옴→재기를 꾀함→다시 추격당함→몰락 순의 이야기 구조를 가지는 횡성의 설화와 맥국(태기왕)이 산에서 농성함→예국이 계락을 꾸밈→계략의 성공→맥국의 멸망 순으로 이어지는 춘천의 설화는 사실상 별개의 설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유형의 설화들은 다른 단편적인 태기왕 설화에 비해 상당히 그 내용도 길고 대체로 그 세부 내용이 자세하게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태기왕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은 (1)과 같이 춘천에서는 맥국의 왕, 횡성에서는 불명 혹은 진한의 통치자로 나타난다. 보통 앞서 언급한 삼악산, 병무산, 어답산, 태기산 등의 산들을 중심으로 구전되며 실제로 이야기에서 언급하는 산 중 삼악산과 태기산에는 산성과 기타 유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유형은 사료로서 태기왕 설화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형태이다.

(3) 태기왕의 몰락에 대한 설화

평창 봉평면에서 주로 전해지며 간혹 횡성이나 춘천에도 있다. 태기왕이 달

11) 최선화 (당시 43세, 남), 구 춘성군 서면 덕두원리(임석재전집 4 한국구전설화 함경북도·함경남도·강원도편, 임석재, 평민사 p.98~100)

아나게 된 이력은 상세하지 않으며 주로 태기왕의 패배로부터 사망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여튼 그래서 태기왕이 여기 좀 머무르다가 저쪽 청일면 봉명리를 거쳐서 태기산으로 들어갔다는 것 같은데 봉명리가 왜 봉명리냐면 태기왕이 거기를 지나갈 때 닭이 울었다. 근데 닭이 울었다는 이야기는 날이 섰다는 거 아냐. 그래서 이제 끝났다(날 섰다) 하고 있는데 점 치는 신하 한 명이 그게 닭이 아니라 봉황이므로 좋은 징조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봉명리가 되었다고도 하고. 12)

그러니까 저기 태기산 왼쪽에가 회령 봉이고 거기서 보면 성골이란 데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흥천, 횡성, 평창 경계야. 그 옛날에 태기왕이-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거기 가서 성을 쌓고 지냈대. 근데 그러다가 패배해서 이쪽(진조리)으로 도망을 왔는데 요즘에서 옥새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여길 옥새를 잃었다고 옥산대라고 하는데 또 그래서 그 여기 옥

산대 위로 가면 왕묘리라는 데가 있는데 그게 그 왕 무덤이라는 거지. 그래서 저기 횡성쪽에 멸온(면온)이라고 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완전히 멸망을 했다 해서 멸온이고 그쪽에서 이리로 도망와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애. 13)

이런 설화들은 태기왕이 여러 곳을 거쳐(보통 병무산→갑천→어답산→태기산→멸온→옥산대 순이며 병무산, 갑천, 어답산, 옥산대는 경우에 따라 생략되기도 한다. 또 각 지역 사이에 더 세부적인 내용이 추가되기도 한다.) 이동했다가 결국 사망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

이 유형의 설화는 춘천에서는 태기왕과 그 군대가 삼악산에서 옥쇄하거나 삼악산 근방에서 최후를 맞는 것이 보편적인 결말이기 때문에 (2)와 통합되어 구전된다. 반면 횡성, 평창에서는 태기왕의 도주 경로가 상당히 긴 편이기 때문에 (2)와는 별도로 전해지는 경우도 많다. 태기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태기산의 횡성 쪽에서는 설화 속에서의 시점을 전후한 태기왕의 이동 경로(‘저

12) 최영순
13) 김복희 (72세, 남),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2009년 8월 22일에 채록.

쪽 마을의 무슨 봉에서 건너와 이쪽을 거쳐 저쪽으로 가다 망했다')에 대한 상세한 언급¹⁴⁾이 있는 반면, 평창 쪽에서는 단지 어딘가에서 태기산으로 도망 온 뒤 다시 도망치다 죽었다는 식으로 설화의 시점에서 벗어난 부분에 대한 언급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혹 횡성 쪽에서 태기산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상당히 막연하다. ¹⁵⁾ 특이하게도 평창의 (3) 유형 설화 중에는 횡성의 것과는 달리 태기왕의 출신지를 맥국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¹⁶⁾ 또 평창의 태기산 산신령곳에서 기리는 대상이 맥국 태기왕인 것으로 보아 태기왕¹⁷⁾이 맥국에서 왔다는 설은 평창에서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태기왕 설화는 일반적인 강원도의 민담이나 설화와는 다른 여러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담 연구의 관점에서 충분히 연구의 가치가 있다.

먼저 태기왕 설화의 전반적인 특징은 주인공인 태기왕이 패배해서 도망친 지배자일 뿐 영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태기왕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지도 않으며 단지 지도자로서의 역량만 나타날 뿐이다. 또한 다른 군담 설화와는 달리 주인공의 모습이 사실적으로 묘사된다는 점 역시 독특한 점이다. 어엿골 전설에서 볼 수 있듯 소금을 사려 한다든지, 아니면 봉평의 전설에서 볼 수 있듯 패배하여 달아나던 중 옥새를 잃어버린다는지 하는 것이 그 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구술자들이 이 설화를 '역사'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태기왕 설화를 필자에 구술한 주민들 중 상당수는 (총 25명 중 16명) 이 이야기를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역사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9명도 아직 남아 있는 유적들을 보면 태기왕 설화의 내용 중 적어도 일부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태기왕 설화의 역사성

1) 역사적 인물로서의 태기왕

가) 춘천

춘천에서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태기왕은 '맥국'의 마지막 왕이었다. 맥국

14) 원영환 등 15) 김복희

16) 하찬수 (당시 74세, 남) 평창군 봉평면 무이리, 2002년 11월 16일에 채록, 이대범의

17)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자료원 p.500

은 옛 삭주 (춘천) 일대에 있었다는 고대 부족국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8) 그 예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9월에 화려와 불내 두 현 사람들이 서로 모의해 기병을 거느리고 북쪽 변경을 침범하니 백국의 거수가 군사를 거느리고 하서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쳐서 이겨 물리쳤다.”(유리이사금 17년)¹⁹⁾는 기록이 있는 등 옛 강원도에서 상당한 위세를 떨쳤던 국가 내지는 부족이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신북면 발산²⁾리가 도읍지였다고 전해지며 실제로 그 일대에서 고려시대 이전의 기와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 ‘왕뒤(혹은 왕대)’, ‘맥독’ 등 몇몇 지명에 백국의 자취가 남아 있다. ²⁰⁾

그밖에 동국여지승람에서도 맥국이라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²¹⁾ 여기에 따르면 춘천, 즉 옛 삭주는 옛 맥국 땅이며 어사매 또는 황천도 여기에 속해 있다고 전해지는데 황천은 곧 오늘날의 황성이다. 만약 이러한 지역 구분이 사실이라면 실제로 맥국의 지배자가 자신의 세력권 내에 있었을 황성으로 도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²²⁾

그러나 정작 맥국의 도읍이었다는 발

산리에는 맥국에 대한 이야기가 단편적으로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는 마을 주민들이 설명했듯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갔고 또 이런 종류의 이야기에 밝은 주민들이 이미 많이 사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동지도』나 『청구도』와 같은 고지도에도 발산리 일대가 ‘옛 맥국 궁성의 터’ 등으로 언급되어 있고, 1915년 출판된 『춘천군향토사료』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로부터 당시 발산리 주민 사이에서 발산리에 맥국 도읍이 있었다는 설화는 상당히 널리 퍼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²³⁾

그러나 삼악산 등지에서는 태기왕이 맥국의 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맥국의 중심지였다는 발산리에는 태기왕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지지 않는다. 이것은 태기왕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데 자세한 것은 다음 단락에서 다루겠다.

나) 황성

황성의 몇몇 설화에서는 아래 구술 내용에 나타나듯 태기왕이 진한의 마지막

18) 삼국사기 권 제 35(잡지 제4) 19) 삼국사기 권 제 1(신라본기 제1)

20) 유재춘, 「강원의 수부 춘천 맥국의 재조명」, 춘천시·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6

2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지46 춘천면

22) 삼국사기 권 제 35(잡지 제4)에 나오는 삭주 설명에도 이런 내용이 있다.

23) 정지연·황은영, 「춘천의 중심지 이동에 관한 연구」, 춘천문화원, 2008

왕으로 박혁거세에게 추격당해 횡성까지 도망쳐 왔다고 전해진다.

옛날에 저기 저 진한의 왕이 신라 박혁거세랑 싸우다가 져서, 아 글썄 아마 땅 뺏으려고 싸웠겠지, 일루 도망을 왔는데 먼저 여기 어답산에 왔단 말야. 그런데 보니까 땅이 너무 좁거덩. 그러가지고 저기 봉평쪽에 태기산으로 갔대. 그 왕 이름이 태기왕이야. 24)

태기왕으로 말하자면 뭐 난 신라때 살다 쫓겨온 어디 왕자라고 알고 있었는데 또 봉평 같은 다른 동네에서는 맥국 왕이라고도 하데. 어떤 사람들은 박혁거세가 쫓아왔다고도 하는데 내 생각에 그건 신라랑 싸웠다는 게 잘못 전해진 것 같아. 25)

그러나 횡성 지역의 태기왕 설화 분포를 살펴보면 굳이 맥국은 아니더라도 태기왕이 북부에서 이동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아래 그림 1 참조. 붉은 점이 태기왕 설화를 확인한 곳.)



(그림 1)

태기왕은 분명 외지에서 온 지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설화에 나오는 것처럼 상당한 병력을 거느리기도 했다.

이쪽으로 가면 병무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뭐 기쁜 일이 있어서 병사들이 춤을 쳤대. 또 거기 넘어가서 보면 병문안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병사들이 문안을 드렸다고 해서 병문안골이고. 26)

또, 앞서 다루었듯 횡성 갑천면, 청일면 지역에 태기왕의 행정 처리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는²⁷⁾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횡성이 태기왕의 세력권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태기왕이 신라에 쫓겨 진한에서 피신해 왔다는 설은 상당히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고

24) 남일희, 1)에서 인용한 채록 내용 중 일부를 다시 적음.

25) 최영순

26) 최영순 27) 1)의 내용 참조.

황성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세력, 즉 맥국 혹은 그 밖의 다른 북쪽 출신 지방 세력의 지도자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진다.

또, 신라가 황성 일대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이 6세기 이후이며 게다가 춘천 지역에 대한 신라 중앙정부의 통제가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 선덕왕 6년(638년)²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라에 의해 쫓겨 왔다는 설은 더욱 믿기 어렵다.

다) 평창

평창의 태기왕 설화의 경우 그 고증에 있어서는 황성과 같이 취급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그 줄거리와 성격이 황성의 그것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창은 황성과는 달리 오늘날 춘천 지방과의 직접적인 연결에 관한 언급이 없고, 또 태기왕 설화가 전하는 곳도 극히 일부분(봉평면 일대)이기 때문에 이곳의 태기왕 설화에 대한 역사적 진실성은 더욱 알기 어렵다.

2) 태기왕 설화에 대한 고증 가능성

이미 많은 학자들이 고고학적 성과와 설화를 바탕으로 맥국과 태기왕에 대한 가설을 여럿 세워 놓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기왕이 쌓았다는 삼악산성과 태기산성 모두²⁹⁾³⁰⁾ 삼국시대의 산성과는 거리가 먼 후삼국시대 혹은 몽고 침입기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다. 물론 이것이 산성을 축조했을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삼악산이나 태기산에 대한 고고학적 고증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또, 춘천 신북면의 아침못처럼 태기왕 전설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맥국의 성터라고 전해진다.³¹⁾) 유적 역시 아래 설화에서 볼 수 있듯 일체강점기 또는 그 이전에 이미 그 본 형태를 잃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 아침못이 뭐 언제 교수들이 이야기하는거 들으니까 뭐 맥국의 성터다 뭐다 하기는 하던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침못이 이렇게 큰 건 아니었어. 그 쇼와 18년에, 그러니까 그게 아

28) 삼국사기 권 제 35(잡지 제4) 중 앞서 언급한 부분

29) 유재춘, 「태기산성의 유적현황과 역사적 고찰」, 황성문화원, 2003

30) 노병식, 「춘천 삼악산성의 축조양상」, 한국성곽학회, 2005

31) 김영기, 「춘천 맥국의 전설」, 춘천문화원, 1980

마 1942년일텐데, 막 일본놈들이 지 네 군사들 멕일 쌀을 더 많이 거둬가 려고 그걸 막 정비를 해서 지금처럼 크게 만들었어. 32)

화에 등장하는 지역에서 실제로 석조 건물의 유구(遺構)가 나타나는 등³³⁾ 그 정도는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태기왕 설화의 역사성을 논할 때 언급했듯 발산리의 유적이 비록 그 종류와 분포가 단순한 주거지는 아니었음을 암시하고 있으며 고지도나 지리지에도 발산리 일대가 '옛 맥국 궁성의 터' 등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맥국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과 태기왕 설화 사이의 연관 관계는 확실치 않다. 따라서 발산리에 전해지는 내용으로서는 맥국의 존재는 확인할 수 있어도 그것을 통해 태기왕 설화를 고증할 수는 없다.

●태기왕 설화의 사료로서의 신빙성

지금까지 태기왕 설화를 바탕으로 하여 주로 춘천 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신라 이전의 역사를 유추하고자 하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연구가 전제하고 있는 바는 어디까지나 구전되어온 설화가 아직 충분한 사료로서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 전제가 확실히 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데 있다. 그 이유는 크게 아래와 같다.

횡성과 평창에서 전해지는 설화는 비록 그 세부 내용이나 태기왕의 출신 지역에 대한 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체로 갑천, 면온(대부분 멸온이라고 부른다.) 등이 공통적으로 언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한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춘천 삼악산에서 구전되는 것 역시 설

1) 태기왕 설화의 배경 사실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지 않음

태기왕 설화의 사료로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앞서 살펴보았듯 태기왕 설화의 지역적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태기왕 설화를 하나로 묶뚱그려 그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

32) 정재호 (81세, 남), 춘천시 신북면 유포1리, 2009년 7월 31일 채록
33) 심재연, 「三岳山城考」, 춘천문화원, 2006

능하다.

물론 태기왕 설화를 춘천에 전해지는 것과 횡성·평창에 전해지는 것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춘천·횡성·평창(봉평면 일대) 이 세 지역이 예로부터 자주 외부세력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곳이라는 것이다. 먼저 1세기부터 3세기 초까지는 백제가, 6세기 중엽까지는 고구려가, 그 이후로는 신라가 이 지역을 통치했으며 그 과정에서 온조왕 34년(서기 16년) 마한의 옛 장수 주근(周勤)이 춘천에서 난을 일으키는 등 잦은 소규모 변란이 있어 왔다. 34) 따라서 이들 중 하나 이상이 각각 하나의 설화의 배경이 되었으며 이런 하나 이상의 설화들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 주인공이 모두 태기왕으로 통일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 경우 태기왕 설화가 정확히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없다.

2) 구전된 것이라고 알려진 설화가 사실은 문헌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

음

춘천 발산2리, 횡성 병지방1리에서 확인된 경우다.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과거에 이미 문헌을 통해 전해지던 사실이 어느 시점부터 구전되었을 경우 그 문헌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문헌이 다시 구전된 시점에서 또 그 내용이 와전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소개한 최영순 씨의 이야기 역시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최영순 씨는 부친으로부터 태기왕과 관련된 지역 전설을 많이 들어 알고 있었는데 자신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준 부친 역시 그 설화를 횡성 지역의 태기왕 설화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채록하여 하나로 정리한 시도한 동네 훈장에게 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알게 된 것이었다고 저자에게 말했다. 35) 이 경우 그 훈장이 기록을 하면서 잘못 적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었을 가능성, 최영순 씨의 부친이 훈장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실제 적혀있는 것과는 다르게 듣고 전했을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또, 비교적 최근에 맥국 또는 태기왕

34) 김영기, 「춘천의 변천사」, 춘천문화원, 1999

35) 최영순

설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결과물을 지역 주민이 다시 접하게 되고, 그것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강원도 일대의 설화에 대한 조사와 기록이 이미 일제강점기부터 이루어져 왔고, 1980년대에 이르면 김영기의 『춘천 백국의 전설』과 같이 향토사학자들의 저술도 출판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3) 자체적으로 설화의 변형이 일어났을 수 있음

삼악산에 대해 또 이야기가 어떤 게 있냐 하면은 그 가다 보면 대궐터라고 있어. 그 자리에 아직도 산성이 남아 있는데 그게 언제적 거냐면 삼국시대에 말야 고구려는 북쪽에서 내려오고 신라는 저기 경상도서부터 올라오는데 여기서 만나서 싸움 했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병사들은 저기 삼악산에 성을 쌓고 신라 군사들은 저기 강 건너에 진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 할미목이라고 있어. 거기서 고구려 군사들한테 밥을 날라 주는 할머니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신라 병사들한테

저기 고구려 군사 있소 하고 일러 바쳐서 신라 병사들이 (할머니를) 따라가서 들이치니까 고구려군은 다 죽고 산성만 남아있다 뭐 이런 이야기지.³⁶⁾

위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앞서 다른 태기왕 설화의 변형된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앞서 1. 강원도의 태기왕 설화에서 다룬 삼악산에 얽힌 전설과 비교해 보면 할미문에 관한 모티프가 같지만 맥국과 예국 대신 이것은 곧 지금까지 사료로 활용되어오던 설화 또한 태기왕이 등장하지 않는 다른 설화의 변형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또 한 지역의 설화 중에도 그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앞서 태기왕이 행정을 처리한 사례에 대한 설화가 전해지던 삼거리의 바로 옆에 있는 점촌리에서는 ‘태기왕이 어답산에 머물러 살다가 갑천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장군이 어답산에 머물며 살았다’와 ‘태기왕이 어답산을 밟고 갑천으로 갔다’ 이 두 가지로 나뉘어 전해지기도 한다.³⁷⁾

36) 박형구 (72세, 남), 춘천시 남산면 당림2리, 2009년 7월 31일 채록
37) 조덕진 (76세, 남), 횡성군 갑천면 점촌리, 2009년 8월 2일 채록

4) 설화를 아는 사람이 적음

또한 이 설화를 아는 사람의 비율이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 또한 설화가 와전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심지어 평창 원길리나 춘천 당림리처럼 온 마을에 태기왕 설화를 아는 사람이 한둘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다. 삼악산에 인접해 있는 당림1·2리의 경우 필자가 직접 질문한 주민 21명 중 2명만이 태기왕(혹은 백국) 설화를 알고 있었다. 이는 21명 중 18명이 마을 뒤의 골짜기인 패일골(혹은 배일골, 뽕골)에 얽힌 전설에 대해 알고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경우 설화 자체가 구전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설화에 변화가 생길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긴 것인지 대조하여 알아낼 수 있는 원본 설화를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II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횡성과 춘천, 그리고 평창의 태기왕 설화는 그 내용에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각

각의 내용마다 그 분포 위치와 특징이 다르다. 그러나 이들은 그 내용이 사실적이고 자세하다는 점, 설화가 아닌 역사로서 구전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른 설화와 다르다.

문헌에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사실들, 역사적 정황 등을 분석하고 또 얼마 남아있지 않은 유적을 조사함으로써 태기왕 설화에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제로 고증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게다가 태기왕 설화가 반영하고 있는 역사적 사실이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 없으며 설화가 원형대로 유지되며 전해졌는지 알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설화를 알고 전승하는 주민의 비율이 상당히 낮다는 것 때문에 태기왕 설화의 사료로서의 신빙성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태기왕 설화를 역사를 반영한 구전문학으로 간주해야지 실제 사료와 동급 혹은 그 바로 아래 등급의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보고 또 그것을

역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며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마땅히 주도면밀하며 입체적인 분석과
 밝혀진 역사와의 대조가 선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임석재, 『임석재 전집 4 : 한국구전설화 함경북도 · 함경남도 · 강원도 편』, 평민사(1989)
- 『춘주지』, 춘천문화원(1984)
- 『횡성의 구비문학 II』, 횡성문화원(2003)
- 『춘주문화』 제14호, 춘천문화원(1999)
- 『춘주문화』 제21호, 춘천문화원(2006)
- 『춘주문화』 제23호, 춘천문화원(2008)
- 『어사매』 제18호, 횡성문화원(2003)
- 김영기, 『춘천 맥국의 전설』, 춘천문화원(1980)
- 서대석, 『한국구비문학대계 2-1 강원도 춘천시 · 춘성군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80)
- 장정룡, 『강원도 민속연구』, 국학연구원(2002)
- 노사신 외, 『한국고전영인대보 신증동국여지승람』, 명문당(1994)
- 김부식, 『삼국사기 상 · 하』, 이병도 역주, 을유문화사(1997)



탐사와 검증을 통한 섬강 발원지의 재조명

● 김영배 (청일면장)

지난 11월 12일 섬강발원지인 황성군 청일면 속실리 봉복산의 ‘돼지우물’을 기념하고 보존하기 위해 우리 면에서는 기념 표지판을 세우고 우물을 정비했다.

섬강의 발원지가 그 동안 태기산이 발원지라는 사람도 있고, 발교산 수리봉이라는 사람, 속실리 원골이라는 사람등, 섬강의 발원지가 어디인지를 놓고 저마다 의견이 분분했다. 백과사전이나 책자에서도 서로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그 누구도 섬강의 발원지가 어디인지 단언하지 못했다.

『위키백과』와 『Encyber 두산백과』는 황성군 태기산이 발원지라 했고, 『네이트 사전』은 청일면 속실 리가 발원지라 했으며, 신정일의 『다시 쓰는 택리

지4-복거총론』에서는 봉명리 수리봉을 발원지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08년 9월 17일 YBN영서방송에서 방영되었던 HD특집다큐멘터리 ‘생명의 고향 섬강(SN프리덕션 류관희 감독제작)’에서는 봉복산 지류인 청일면 속실리 원골 쌍폭포 위의 이끼바위가 발원지가 아닐까 추측했다.

그동안 우리는 유명산에 있는 샘이나 물을 강의 발원지로 여겨 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강의 발원지를 일반적으로 강의 하구부터 가장 먼 곳으로 보고 있다. 해방이후 지금까지 우리는 일제 때 조선총독부 임시조사국에서 실측 조사한 것을 정확한 조사 없이 그대로 사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가 많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면 과연 섬강의 진정한 발원지는 어디일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각종 백과사전이나 책자에서 섬강의 발원지라고 지칭하는 곳이 모두 우리면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이다. 태기산이 위치에 따라 청일면도 될 수 있고, 둔내면도 될 수 있겠지만 말이다.

강의 발원지는 역사·문화적으로 가치와 수자원으로서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민 자긍심으로의 가치를 갖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발원지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관심이 크고, 그에 깊이 집착하고 있다. 우리는 지



청일면 속실리 봉복산에 위치한 섬강의 발원지 돼지우물과 기념표지판을 세우는 모습

리적으로나 학술적으로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섬강의 발원지를 찾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모으고 섬강발원지를 탐사해 보기로 했다.

우선 그 동안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놓여온 공사에서 제공된 GPS지도로 하천을 따라 가장 먼 곳을 측정해 보았다. 측정 결과, 청일면 초현리의 하천 분기점에서 유동천을 따라 청일면 속실리 원골 계곡이 22.7km, 봉명 수리봉이 21.5km, 계천을 따라 신대리의 낙수대가 14.9km로 속실리 원골계곡이 가장 긴 것으로 잠정 조사되었다. 섬강의 길이도 『EnCyber 두산백과』는 73.02km이고, 『네이트 사전』에는 103.5km로 무려 30km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 5월 20일 우리는 속실리 원골 계곡을 중심으로 섬강의 발원지를 찾아보기로 하고, 김춘환 군의원과 관내기관단체장, 그리고 우리지역 산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심마니 김철수씨 등 총 9명이 탐사에 나섰다.

우리는 더 이상 차량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는 속실리 제1폭포에서 하차하여 강의 본류인 원골계곡을 따라 가려 하였으나, 절곡계곡이 원골계곡보다 물량은 적으나 계곡의 길이가 더 길고 봉복산 북서쪽 능선 90% 지점인 도토 무대의 ‘돼지 우물’이 섬강의 발원지라는 김철수씨의 주장에 따라 탐사방향을 ‘돼지우물’로 선회했다.

심마니 김철수씨에 의하면, 몇 년 전에 이름 모를 교수와 군청직원으로 기억되는 분들이 속실리 강성백옹(당시 64세)과 김덕순(당시63세, 사망)씨의 안내로 섬강발원지 조사를 나왔었는데 원골계곡과 돼지우물을 돌아본 그들이 돼지우물이 강의 길이가 더 길고, 우물로 되어 있어 섬강의 발원지라 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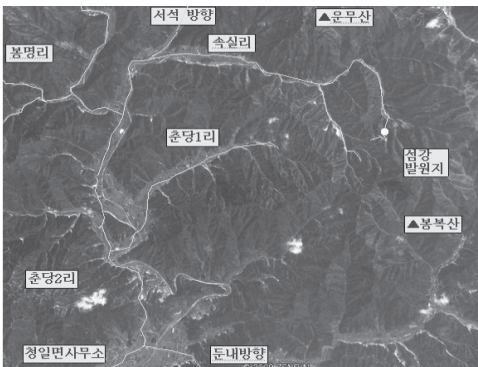
‘돼지 우물’은 멧돼지가 물을 마시기 위해 파 놓은 우물로, 강성백옹에 의하면 자신이 어렸을 때인 일본 식민지 시절에도 있었고, 옛날 아주 그 옛날부터 있어왔다고 옛 어른들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하며 지금도 돼지들이 와서 목욕을 하고 간다고 했다.



멧돼지가 물을 파 놓은 돼지우물”은 일년 내내 마르거나 얼지 않는다.

계곡과 가파른 능선을 따라 약 1시간 30분여를 오르다 보니 90% 능선의 도토무데에 이름 모를 묘가 있었고, 그 옆에 ‘돼지 우물’이 있었다. 그러나 우물은 생각보다 아주 적었고, 물량이 극히 미미했을 뿐 아니라, 물길도 몇 미터 안가 땅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도 이 물은 여름 이나 겨울이나 물량이 한결 같고,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아 분명 이 곳이 섬강의 발원지라고 심마니 김철수씨는 몇 번이고 강조했다.

그렇다. 여기가 바로 섬강의 발원지다. 남한강 합수지점인 원주시 부론면 흥호리부터 103.5km, 그동안 섬강의 발원지로 거론되어 왔던 봉명리 수리봉과, 태기산보다 강의 길이가 더 길다. 우리는 비록 한강의 발원지인 태백의 검용소나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보다 그 규모가 적고 힘차게 치솟는 물이 없더라도 분명 여기가 섬강의 발원지라고 믿었다.



청일면사무소에서 섬강발원지까지 가는 안내 지도

탐사를 다녀 온 후, 군청 홈페이지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와 각종 카페에 섬강 발원지에 대한 탐사 결과를 올렸고, 군정종합소식지인 <자치마당>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렸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었고, 또한 격려해 주셔서 뒤늦게나마 감사를 전한다.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얼마나 지나지 않아 소설가이자 지역 향토사학자이신 정재영 강림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도 10여년 전에 문화원 관계자와 원주 MBC특집 팀이 섬강 발원지 탐사를 한 적이 있는데 속실리 ‘돼지우물(봉복산 서쪽 상부능선 소재)’이 섬강의 발원지 같다고 했으며, 우리나라 수계 연구의 권위자인 이형석님도 “봉복산이 섬강의 발원지라고 하셨다”고 전해 주셨다. 그리고 그 당시 탐사결과를 횡성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어사매>에 특집으로 게재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즉시 문화원 사무국장님께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 했으나 ‘너무 오래되어 찾을 수 없다’며 문화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지난 <어사매>를 확인해 보라고 안내해 주었다.

10여년 전이라던 교장선생님의 기억은 15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1993년 12월 30일 발행된 어사매 특집 제10호에 옛 그대로 실려 있었다. 여기에는 봉복산 ‘돼지우물’이 섬강의 발원지임을 확실히 해 주는 자료가 있어 그대로 옮겨 적는다.

『한국 하천연구학회』회장님이신 이형석님의 논문은 사실 충격에 가까웠다. 몇 년 전 직접 섬강의 발원지를 답사하고 발표한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글학회에서 펴낸 “새한글 사전”에는 섬강은 강원도 횡성군에서 시작하여 한강으로 들어가는데 길이는 92.6km라고 기록되어 있고, “한국지명총람”에는 『횡성군 청일면 봉명리 수리봉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흘러 남한강으로 들어감』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학원사 발행 “세계 대백과 사전”에는 횡성군 청일면 및 갑천면에서 발원하여 길이 92.6km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동아출판사에서 발행한 “원색동아대백과사전”에도 『남한강의 지류 92km, 횡성군 태기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흐르다 남한강으로 유입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 문헌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한결같이 1918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9년간 실측 조사 발표한 “조선지리지자료”를 아무 검증 없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이형석님은 비교적 소상하게 발원지와 섬강의 길이의 오류에 대해 그의 글에서 그것들을 바로잡고 있다고 했다.

지구상의 표면상의 길이를 계측하는 방법으로는 실측과 도상계측이 있다. 실측의 경우나 도상계측의 경우 모두 오류의 요소를 갖고 있으며 다만 어느 편이 정확한 실체와 가깝느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많은 장비, 인력, 경제력이 소요되는 실측보다는 도상계측으로 정확한 섬강의 길이와 발원지를 조사했다.

조사자료는 1:50000지도와 1:25000지도를 곡선자로 계측한 후 그 결과를 실측 발표된 ‘조선지리지자료’의 결과와 대비했다.

그리고 섬강이 남한강과 만나는 합류점이며 섬강의 하구인 원주군 부론면 흥호리 동매부락 서쪽지점에서 길이가 가장 긴 곳을 발원지로 잡고 계측했다.

이런 계측결과 이형석님은 발원지는 이제까지 문헌마다 통일되지 못하고 태기산, 수리봉으로 무책임하게 논의 되었는데, 섬강의 발원지는 정확히 횡성군 청일면 봉막부락 서남쪽 계곡의 샘이며 정확한 섬강의 길이는 기존의 문헌에 기록된 92km가 더 긴 103.5km로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당시 원주문화방송 영서한마당 촬영팀과 섬강발원지 탐사팀(정재영선생님, 권용환 당시 문화원부원장, 조임식당시 문화원사무국장)은 속설리 토박이 김덕순씨와 강성백씨를 앞세워 탐사에 나섰고, 산속에서 두 서너 시간을 헤맨 끝에 섬강의 발원지를 찾아냈다고 했다.

일명 ‘돼지 샘’으로 불렀는데 산돼지들이 와 물을 먹고 가곤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했다. 또 그 샘은 일년 내내 마르지 않았다고 그 당시 이 집

터에서 한문을 배우러 다녔다는 강성백씨가 증언해 주셨다고 한다.

● 정재영선생님의 ‘섬강의 발원지 흔적을 찾아서’ 중

‘봉복산’ 돼지우물이 섬강의 발원지라는 사실은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 발견된 사실이 아니다. 『한국하천연구학회』 이형석회장님의 논문과 1993년 황성문화원 섬강발원지 탐사팀에 의해서 이미 밝혀진 사실을 재조명한 것에 불과하다.

‘돼지우물’이 섬강의 발원지라는 사실을 학술적으로나 탐사와 검증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 놓고도 그동안 관계기관의 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잊혀졌다는 사실이 무척 아쉽다. 이제 우리는 섬강의 발원지에 기념 표지판을 세우고 우물을 정비해서 ‘돼지우물’이 섬강의 발원지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고 널리 홍보하고자 한다.

강의 발원지는 강의 시작점이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아주 작은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고, 강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경지가 형성되어 풍요로운 삶과 희망을 안겨 주고, 끊이지 않는 역사로 이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섬강의 발원지가 우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자긍심을 심어 줄 수 있고, 주민들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으며, 모두가 힘을 합쳐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참고문헌*

정재영, 어사매 특집 제10호 1993.12.30.발행.

愛鄉心을 통해 본 橫城文化의 正體性 愛鄉詩 屯內 十一景을 中心으로



● 詩人 金性洙

나는 횡성을 주제로 200여 편의 愛鄉詩를 쓰기 위해 약 2년간 횡성 전 지역을 답사하며 산천마다 골골마다 서리어 있는 각 고장의 정서와, 아름다운 경관, 또 그 속에 녹아 있는 훈훈한 인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내가 살고 있는 횡성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자랑스러운 점에 대해서 새롭게 느낀 바가 있다.

<가장 향토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특성을 잘 살려 독특한 문화유산을 창출해 온 선조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느끼고 횡성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횡성의 문화를 발전시켜 온 기저에는 다음 세가지의 측면으

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로 충과 효열의 정신을 들 수 있고 두번째는 애향정신을, 세번째는 선비정신을 들 수 있다.

민족의 자존을 위해 요원의 들불같이 3.1운동이 번져 갈 때 우리 횡성 4.1만세 운동은 강원도 만세운동의 발화점이 되어 뜨겁게 타 올랐으며 6.25 사변 때는 조국의 위기를 구하기 위해 책 대신 총을 들고 공산군과 용감히 싸운 이 지역의 학도병의 숫자가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았고 또 어찌 그뿐인가 조국 광복을 위해 장렬히 숨진 강림면과 서원면에 있는 의병총, 이 땅을 수호하기 위해 자율반공대를 조직하여 공산군과 싸우다 숨진 갑천의 8용사 총흔비... 좀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진주성에서 충 효 열 신의를 다하며 순국한 진주부사 서예원 일가의 순국과 그 정신을 기리는 공근면 매곡리의 육절여 정문(六節閭 旌門) 그 외에도 이 고장 곳곳에 산재해 있는 효자각과 열녀문은 이 지방이 충과 효열의 고장임을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안녕을 위해 주민들 스스로가 탑을 쌓아 올려 온갖 액운을 막고 풍년을 기원하는 공근면 초원에 있는 원탑이라든가 고장의 특성을 살려 장례문화의 전통을 살려 온 우천면 정금리의 회다지 소리,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것의 보존과 애향심을 나타난 애향시 둔내 십일경(十一景) 등 과연 이런 사연들은 고장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애향심 없이 가능한 일이었을까?

횡성 지방에는 참으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었다. 고려 때 삼대가 문하시중(최고의 벼슬)을 지낸 조영인 조충조계순 선생, 육조판서를 모두 지낸 팔계군 정중영 선생, 대관령 길을 뚫은 고행산 선생, 고려의 충신 이반계 선생, 성정(性情)이 청풍명월 같았던 정구 선생, 임진왜란 때 임금을 모신 호성공신 정곤수 선생, 성품이 춘풍해빙 같았던 조린선생, 대쪽 같은 선비 조정립 선생

등 수없이 많은 올곧은 선비들이 이 땅에 나셨으며 이 고장 문화에 자양분이 되어 우리 횡성을 길이 빛내고 있지 않는가.

필자는 그 중에서 애향심의 표본인 둔내면에 세워진 열한 개의 고장 찬양의 시비를 소개하고자 한다.

둔내 십일경(屯內 十一景)

옛부터 둔내는 태기산을 비롯하여 삼교리 마암리 석문리 둔방내리 자포곡리 두원리 우용리 조항리 현천리 영랑리 화동리 등 경관이 뛰어나고 인심이 순후하여 주민들은 이 곳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930년 일제 강점기 일본인들이 우리 것을 착취해 갈 때 이 곳에 사는 지식인들은 우리 것에 대한 긍지를 지니고 특히 30여 명이 모여 시회(詩會)를 만들어 고장의 아름다움과 그 곳에 서려 있는 애향정신을 시로 노래하였다. 다음의 시는 영랑리 안운담 시인이 그 당시 백일장에서 장원한 작품이다. 둔내면에서는 그 아름다운 애향정신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해 2004년에 면이 주관하여 마을 마다 시비를 세우게 되었다고 한다.

德高淸風 玄川里

淸涼非夏亦非冬 | 最愛新鮮日夜從 |
 勝概分明仙境處 | 吹聲簫瑟鶴巢松 |
 千峰林列雲生岫 | 萬鶴連環霧掩容 |
 勝地景光非不在 | 詩人浪跡幾留筇 |



덕고청풍 현천리

덥지도 춥지도 않은 청량한 바람은
 신선한 것을 좋아하는 나를 언제나 따
 라 다니네.

여기는 승지가 분명하니 신선이 노는
 곳이요 바람소리 소슬한 나뭇가지엔
 학이 둥지를 틀었네.

천개의 봉우리 마다구름이 피어나고
 수많은 골짜기 마다엔 안개가 산 얼굴
 을 가리네.

이 곳 현천리의 풍광은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으니 시인의 발걸음이 수없이
 머무는구나.

梅堂山竹 雪橋里

梅竹相隣物理住 | 堂中斲者動詩懷 |
 風蒜紅朶香盈室 | 月導淸陰綠抱崖 |
 斑色分明湘水岸 | 丹青完爾武陵崖 |
 千蒼萬紫花林美 | 飛蜂舞蝶亂前街 |



매당산죽 삼교리

매화와 산죽이 서로 이웃하여 자연의
 조화를 이루었으니 풍류를 즐기는 사
 람의 시심이 저절로 이는구나.

바람에 붉은 가지가 흔들리니 향기가
 집에 가득하고 푸르른 달빛은 비랑을
 껴 안은 듯 한데...

아롱진 그 빛은 소상강 언덕과 같고
 고운 단청은 무릉의 물가와 같구나.

푸르고 붉은 꽃 수풀이 아름다우니
 춤추는 벌 나비가 거리에 가득하여라.

松亭睡鶴 馬岩里

蒼蒼不染世塵灰 | 伴鶴一生幾甲回 |
 影過遼陽登化羽 | 聲聞天闕謝恩孟 |
 青光獨帶物中秀 | 閒夢常遊雲乘來 |
 枕睡支離難覺處 | 不知世事萬端催 |



송정수학 마암리

푸르고 푸른 마음은 세상 티끌에 물들
 지 않고 학과 벗하여 몇 년이나 지냈
 던고.

그림자가 요양에 지니 신성에 오른 것
 같고 소리는 천궐에 들리니 사은배를
 받겠네.

홀로 푸른 빛을 띄었으니 만물 중에
 제일이고 한가한 꿈은 항상 구름을
 타고 노는 것 같구나.

졸음이 와 떠나기가 어려우니 수많은
 세상 일을 재촉한들 무엇하리

牛谷落照 屯坊内里

場谷何論餞日慮 | 桑盈愉仄各分偶 |
 橫岑影子還高下 | 暎澗纖光正有無 |
 歸船吹笛相招友 | 忙步行人急渡戶 |
 山寺野店皆閉戶 | 殘燈處處客窓孤 |



우곡낙조 둔방내리

해 뜨는 곳에서 어찌 지는 해를 걱정
 하라 뽕나무 그림자는 각 각 기울어
 방위를 나누더니,

산 그림자는 높고 낮으며 물에 어린
 가는 빛은 어느새 없어지는구나.

돌아가는 길에 부는 피리 소리는 서로
 친구를 부르고 바쁜 걸음의 행인들은
 물을 건너간다.

산사와 상점들이 다 문을 닫았으니
 쇠잔한 등불 곳곳에 나그네의 창문은
 고독하구나.

岐山白雲 禾洞里

雲白岐山太古眞 | 天藏地秘景維新 |
 麥牟豐也時庚夏 | 童子浴乎序暮春 |
 名振西方稱別界 | 功過三國閱風塵 |
 無心出岵徘徊處 | 中有登仙老幾人 |



기산백운 화동리

태기산 흰구름은 대고적 같고 하늘을 가리고 땅이 신비로우니 경치가 더욱 새로워라.

보리가 풍년 드니 때는 여름이요 어린 아이가 목욕을 하니 봄도 저물어 간다

이름이 서방에 떨쳤으니 별계라 칭하고 여러 곳을 지나오느라 풍진을 겪었구나

바위굴에서 나와 무심히 배회하는 자 있으니 산 중의 선경에 몇 사람이나 올랐는가.

花硯春雨 石門里

春雨濛濛景色齊 | 硯中花鳥一雙啼 |
 滿庭香氣紅桃院 | 連野錦光碧柳溪 |
 洞口煙霞無遠近 | 簷端漏水有高低 |
 捲雲霽月清明後 | 堂上頤頤玄鳥棲 |



화연춘우 석문리

가랑비 내리는 봄날 경치는 참으로 아름다운데 꽃벼랑 위에는 화조 한 쌍이 노래를 부른다.

복사꽃 활짝 핀 곳에는 향기가 가득하고 버들잎 피는 시내의 푸른 빛은 들판으로 이어졌다.

동리 어구에는 노을이 가득하여 멀고 가까움을 모르겠고 처마 끝에 물이 떨어지니 그 높낮이를 알겠는데

구름 걷혀 청명한 날에 당상에 새들은 오락가락 하는구나.

自浦商船 自浦里

飽聞自浦數多魚 | 吳楚商船日夜居 |
 頻不往來因遠近 | 易言賣買有親疎 |
 住民生活眞皆富 | 行旅經綸累寓餘 |
 雖美焉能心內恃 | 是非爭利晝宵如 |



자포상선 자포리

자포리에 고기가 많아 풍요롭다는 소문을 듣고 여러 곳 사람들이 밤 낮 와서 살고 있네.

원근의 거리 때문에 자주 오가며 쉽게 매매를 하지 못해도

모든 사람들은 부유하고 생활하는 데는 여유가 있음이여.

비록 아름답다고 어찌 속 마음을 믿으랴 서로 다투는 것은 밤과 낮이 따로 없구나.

梨湖魚火 鳥項里

梨湖之水易爲江 | 魚火常時亂北窓 |
 施罟江邊魚串串 | 驚飛派上鷺雙雙 |
 如星玉燭縣舟楫 | 滿尺銀鱗換酒缸 |
 罷釣平明歸去路 | 不勝清興喚清腔 |



이호어화 조항리

이호의 물이 강으로 흘러 드니 고기 잡는 불빛 북창에 어리는구나.

그물 던질 때 마다 고기가 잡히고 놀라 출렁이는 물결 위에는 백로가 쌍쌍이 날고 있다.

별빛 같은 옥 촛불 배 위에 떨어질 때 한자나 되는 은빛 고기를 술항아리와 바꾸네.

낚시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은 청아한 흥취를 이기지 못하여 흥겨운 노래를 부르네.

永湖明月 永浪里

水滿平湖月滿東 | 清流通照兩相同 |
 并歌窈窕清春客 | 獨照銀鱗白首翁 |
 隔岸泓波煙柳碧 | 橫天淡影桂花紅 |
 明區勝景真何處 | 百態俱成在此中 |



영호명월 영랑리

물은 주천강에 가득하고 달은 동쪽 하늘에 가득하니 맑게 흐르는 물과 밝게 비추는 달빛이 서로 통하는구나.

젊은이들은 그윽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머리가 허연 노인은 홀로 낚시를 즐긴다.

강언덕에 물결이 부딪히니 물안개가 푸르고 하늘에 맑은 그림자 비추니 계수나무꽃이 붉어라.

명승절경은 어느 곳에 있는가 백가지 모양이 함께 어우러진 바로 이 가운데 있구나

文灘白鷗 右用里

霜身雪羽意持支 | 長泛文灘間幾時 |
 只欠風潮朝暮急 | 無關魚子去來遲 |
 俄瞻奔走千波景 | 忽見躊躇日帆枝 |
 物外紅麗終不染 | 清閑興味孰能知 |



문탄백구 우용리

서리 같은 몸과 눈같이 흰 깃에 높은 뜻을 지니고 오래 동안 여울에 떠 있으니 그 시간 얼마나 되었는고.

다만 물살이 빠름이 불편하지만 고기는 지나가도 또 오는 것이기에 시간이 간다고 초조할 게 무언가.

잠시 보니 물결 위에서 바쁜 듯 하더니 문득 돛가지에서 주저함을 보겠네.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으니 맑고 한가한 흥미를 누가 능히 알겠는가.

美岳丹風 斗元里

美岳雖云景小微 | 風林繫馬坐忘歸 |
 錦如非服人難信 | 花似無香蝶不飛 |
 一山春色綠初瘦 | 萬樹秋聲紅返肥 |
 眞像分明皆花彩 | 心懷恍惚獨欄依 |



미악단풍 두원리

두원리 산의 경치를 누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하는가 단풍 든 숲 속에 말을 매고 돌아가는 것조차 잊었구나.

비단 같으나 입지 못한다 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고 꽃 같으나 향기가 없으니 나비는 오지 않지만...

산에 가득했던 봄빛은 이제 스러지고 모든 나무에 가을은 더욱 붉기만 하여라.

참으로 아름다운 수채화를 보는 듯 하니 마음이 황홀하여 홀로 난간을 의지하고 서 있다

얼마나 아름답고 정겨운 마음인가 내 고장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이처럼 고운 정감으로 시를 쓸 수는 없으리라. 또 이 시가 나라 잃은 설움이 가득했던 1930년대에 창작되었다는 점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일본인들이 모두를 다 빼앗아 갔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 있는 민족혼과 애향심은 빼앗아 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둔내십일경은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본다.

횡성의 문화는 이처럼 애향심에 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수많은 꽃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그 어느 지방의 문화보다 위대하고 미래의 비전이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지역문화 Ⅱ 평생 학습

- 횡성교육 2009 최육진
- 횡성도서관 평생학습관 횡성도서관
- 작은 실천이 인생을 꽃 피울 수 있다 심형기
-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한국어교육 중급반... 이영식
- 동아리 그림풍경을 만나다 박현숙

황성교육 2009



● 최옥진 (강원도황성교육청 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강원도황성교육청교육장 최옥진입니다.

기축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때에 올 한해의 황성교육을 되짚어 보면 6가지의 교육시책과 2가지 특색교육, 5가지 노력중점사업을 통한 활동 실적은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라 하면 지난 4월에 개최되었던 강원도소년체전 2부에서 종합 우승이라는 성적과 과학, 음악, 문학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이런 성과의 기본 바탕에는 학부모님과 황성이라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하며 올해보다 더 나은 내년의 황성교육이 되리라 기대해봅니다.

I. 기본 방향

교사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가르침의 열정으로, 학생은 미래 사회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설 수 있는 배움의 열정이 있고, 교사와 학생 사이, 학생과 학생 사이는 사랑으로

함께 하며, 신뢰가 바탕이 되어 교육공동체가 함께 움직임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목표는 『도리를 지키고, 슬기롭고, 건강한 글로벌 인재 육성』이다.

『도리를 지키고』는 교육의 기본 바탕인 인성교육을 의미하며 인성 교육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출발점인 동시에 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요체이기도 하다. 지식 습득 이전에 인간 됬됨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바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슬기롭고』는 인성교육의 바탕 위에 이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지식과 정보를 중시하는 지식 기반 사회에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담고자 하고 『건강한 글로벌 인재 육성』은 인성과 지식을 바탕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지닌 이 사회 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횡성교육이 담당하고자 하는 것이다.

의 ‘씨줄과 날줄 인성교육’ 등 각급학교에서 학교별 특색 있는 인성교육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4·1만세 운동 참여를 통한 애교·애향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학부모와 지역사회, 교사가 함께 참여하여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권역별 생활지도 연합팀을 운영 하여 학생들의 탈선을 막고 인간 존중의 가치관을 확립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② 맞춤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충실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을 위한 토요일·휴업일 프로그램인 ET Day를 중학생 대상으로 횡성중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학습부진 학생 제로운동을 전개를 위해서는 방학 중 ‘재미나 한걸음’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하여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기본학력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청의 학력향상 T/F팀을 운영하여

II. 교육 시책

① 인의예지 인성 교육 강화



올바른 생활을 위한 기본 습관 형성을 위해 관내 초, 중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브랜드화하여 실천하고 있는데 횡성 초등학교의 ‘횡성 바르미’, 우천중학교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학력향상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별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교실수업 충실을 통한 학력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교육청 내 로봇과학교실 체험장을 설치하여 한주에 1회씩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로봇과학교실을 운영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으며 2009. 1. 12일 개원한 황성특수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통합 중심의 특수교육활동과 공교육화를 대비하는 유아교육에 충실을 기하고 있다.

③ 미래 선도 창의성 교육 내실



종합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독서·논술 교육에 충실하고 2009년 3월 18일 초·중학생 80명으로 황성영재교육원 개강식이 있었으며 매주 수요일 황성초, 성북초, 교육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

또한 초등보육교실 프로그램 운영 11교와 특기적성 141, 교과 176, 영어27,

평생교육 11, 총355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질 높은 방과후학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화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자녀 초등 109명, 중등 73명에 대해 정보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국제적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④ 행복 평생·체육 교육 강화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평생 배움을 가질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가 2009년 6월 17~19일 3일 동안 황성체육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2009년 4월에는 강원도소년체전 2부에서 종합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루기도 하였다.

⑤ 신바람 교육 복지 구현

단위 학교의 자율 경영을 통한 학교 교육력이 향상되었으며 초등학교 네곳, 중학교 세곳, 고등학교 한곳 총 여덟학



교에 4억 4천만원에 대한 농산어촌 돌봄학교 예산이 지원되어 농산어촌 학교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다양한 특기 적성 및 학력 향상 프로그램이 이루어져 교육안전망 구축을 통한 교육 격차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⑥ 신뢰·감동 교육행정 혁신



사용자 중심의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실 두곳 외 열세곳에 대한 환경조성이 새롭게 이루어졌으며 횡성교육계획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횡성교육정책 구현을 실현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행정 체제를 구축하여 교육수요자 및 민원인에게 신뢰와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Ⅲ. 특색 교육

① NIE 활동을 통한 경제 교육



21세기 미래 지향적 경제 의식 고취 및 근검절약하는 태도와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형성시키고자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교육은 학교별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2009년도 우리교육청이 지정하는 연구학교 운영 주체로도 선정하여 횡성초병설유치원, 둔내초등학교, 서원중학교에서 1년간 연구학교 운영을 하였으며 운영된 결과를 2009년 11월 10일 공개보고회를 통해 일반화시키고자 한다. 학생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거나 용돈을 아껴 쓰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 등을 통해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바람직한 소비습관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② 에듀피아 인재 육성

에듀피아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개인차를 고려한 분야별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데 특별히 운영되는 방과후 로봇체험교실은 우리교육청만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7기까지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과학적 사고를 확산을 통한 미래사회를 주도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을 기르고자 추진하고 있다.

② 학력 향상 목표제



학업성취향상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청은 담임장학제를 운영하고 학교관리자는 학업성취향상 책임 경영을 추진하고 교사는 수업시간 지키기, 목표도달 확인, 보충지도와 학업성취 개인별 카드 활용을 통한 좋은 수업 전개를 위해 노력하며 학생은 자신의 학력향상 목표점수를 인식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③ 우리선생님 최고!

교단에서 묵묵히 교육에 전념할 수 있

IV. 노력 중점

시대의 요구와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더하기 위해 시책사업 외에 5가지 노력 중점사업을 운영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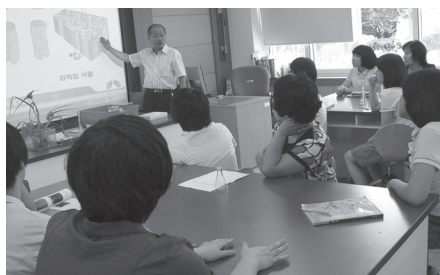
① 횡성 문화 시민 ‘어사매’ 운동

횡성군의 옛 지명을 딴 ‘어사매 3운동’은 횡성 교육 공동체의 공통 실천 과제로서 ‘어르신 공경하기’, ‘사랑 나눔의 봉사활동 실천하기’, ‘매사에 참고 건디기’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함양을 도모하고 인성교육브랜드와 함께 추진하여 학생들에게 횡성인



는 여건을 조성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생이나 동료교사, 학부모들이 선생님을 칭찬하는 코너인 우리선생님 최고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는데 칭찬의 글들이 다양하게 게재되어 선생님들의 사기가 진작되고 있으며 월말마다 가장 많이 칭찬받은 교사에 한해서 이달의 우리선생님이란 이름으로 교육장 격려통신문을 전달하고 있다.

4 함께 하기 3운동



함께 듣기, 함께 공감하기, 함께 움직이기의 함께 하기 3운동 실천을 통한 교육구성원 전원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5 영어는 내 친구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능력 신장 및 영어 노출 기회 확대를 위해 성남영어 체험센터 운영 및 둔내초등학교, 우천초등학교의 초등영어체험교실 확보, 횡성중학교 외 6교의 영어전용교실 확보를 통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삶의 에너지 행복의 원천 평생학습 황성도서관 평생학습관

황성도서관의 평생학습관은 언제나 여러분의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 033) 344-6591~2, 홈페이지 | <http://www.hslib.or.kr>

● 황성도서관

1989년 11월 10일 황성군 공공도서관으로 개관하여 2001년 2월 20일 강원도교육청 지역 평생학습관 지정되었으며 2007년 12월 8일 행정자치부 황성군 평생학습 협력기관 지정.

2007년부터 2009년 현재 조상의 습격을 느낄 수 있는 한글서예, 사군자, 풍수지리와 생활도예, 공예 프로그램인 pop, 포크아트, 천연향비누화장품, 어린이강좌인 어린이한자, 어린이논술, 영어회화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영어, 성인영어, 한글교실이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방학기간에는 특강 프로그램

(한지사랑, 포크아트, 종이접기)을 개설하여 초등학생과 부모님이 알차고 보람된 방학을 보내는데 기여하였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3월부터 개강하여 11월까지 운영되며 지역주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07년~2009년에는 수강생들의 작품이 강원 평생학습축제와 황성평생학습축제에 전시관과 체험부스 운영, 평생학습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장을 마련하였다. 한글서예와 사군자는 각종 전국서예대전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어, 평생학습을 널리 알리는데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수강인원	수강료	대상	비고
폼아트	3월 - 11월(화)	황성도서관	20	무료	지역주민	
풍수지리	3월 - 11월(화)	황성도서관	20	무료	지역주민	
한글서예	3월 - 11월(수,금)	황성도서관	20	무료	지역주민	
사군자	3월 - 11월(수)	황성도서관	10	무료	지역주민	
영어회화	어린이	3월 - 11월(수)	15	무료	초등학생	
	성인	3월 - 11월(목)	15	무료	지역주민	
생활도예	3월 - 11월(목)	황성도서관	15	무료	지역주민	
포크아트	3월 - 11월(금)	황성도서관	20	무료	지역주민	
천연항비누화장품	3월 - 11월(금)	황성도서관	20	무료	지역주민	
어린이한자	3월 - 11월(토)	황성도서관	20	무료	초등학생	
어린이논술	3월 - 11월(토)	황성도서관	20	무료	초등학생	
한글교실	3월 - 11월(수,금)	황성도서관	20	무료	한글 모르는 어르신	

평생학습관련 주요성과*

- 01월 2008평생학습운영계획
- 02월 평생학습 수강생 홍보 모집, 수강생 신청 접수
- 03월 평생학습 개강식
- 06월 제1회 황성군 평생학습축제 작품전시 및 체험 참가
- 08월 여름방학특강
- 11월 제7회 강원평생학습축제 작품전시 및 체험 참가
- 12월 평생학습강좌 수료식, 수강생 작품전시회



- 01월 2009평생학습운영계획
- 02월 평생학습 수강생 홍보 모집, 수강생 신청 접수
- 03월 평생학습 개강식
- 06월 제2회 황성군 평생학습축제 작품전시 및 체험 참가
- 08월 여름방학특강
- 11월 제8회 강원평생학습축제 작품전시 및 체험 참가
- 12월 평생학습강좌 수료식, 수강생 작품전시회





나를 행복으로 이끈 평생학습

● 이종희 (황성읍 교항리 보람[Ⓢ])
2009 제2회 황성평생학습체험 수기 공모 당선(배움상)

여성회관에 다니며 미술을 배운다는 친구를 보며 그래 나도 무언가는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그럴때마다 “나는 시간이 없어” 라는 생각이 조그맣게 피어나는 꿈같은 소망을 접어 버리곤 했습니다.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지는 않는데 힘이 없고 그냥 눕고만 싶어지는 나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던차 서울 사시는 큰댁 형님이 황성으로 이사를 오셨다.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형님을 꽤나 좋아했던 터라 서로 오고가며 친분이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을 서너바퀴 뛰면 힘이 솟을 것 같았던 어느날이었습니다. 도서

관 벽을 타고 평생학습이라는 문구와 몇가지 과목이 예정된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처럼 우리집을 찾은 형님께 도서관에 가보자고 했더니 나보다 더 좋아하시면서 잘생긴 이를 보이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형님과 도서관 관장실을 찾았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어찌 그리 신이 나던지 둘이서 너무 기뻐했던 기억이 지금도 즐거움이 묻어납니다.

우린 한글 서예반에 가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쑥스러워서 전혀 용기가 나지 않아 화단에 있는 나무를 다듬는 기사분을 앞세워 2층 서예반에 갔습니다. 반겨 주시는 선생님을 뵈니 위촉되

있던 자세가 좀 풀리는 듯 했습니다.

학생분들이 쓰신 글이 각 책상위에 있는데 너무 잘 쓰셔서 희망이 절망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괜히 찾아와서 매를 맞고 고생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첫날이라 자리만 배정받고 집으로 오다가 문앞에서 문화원에 다니며 붓글씨를 써온 동갑네를 만났습니다. 서예할 마음이 있어 도서관 서예교실에 다녀온다 했더니 도서관엔 모두 명필이라 들어가야 못 배기고 모두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 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틀 후 서예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이 발목을 잡는데 형님이 도서관 가자고 오셨습니다.

내 자리는 가운데 줄이라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능숙한 붓놀림에 멋지게 쓰신 글 만이 눈 안에 가득 들어 올 때면 작아지는 자신을 여러 번 느끼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달이 가고 일변인 홀소리부터 시작한 글씨연습이 어느새 30번이 넘어 단소리까지 끝을 맺고 문자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 뒤로 들어온 신입생들이 여러분 계시고 이제 나도 초년생을 넘어 중등반에 이른 듯 하였

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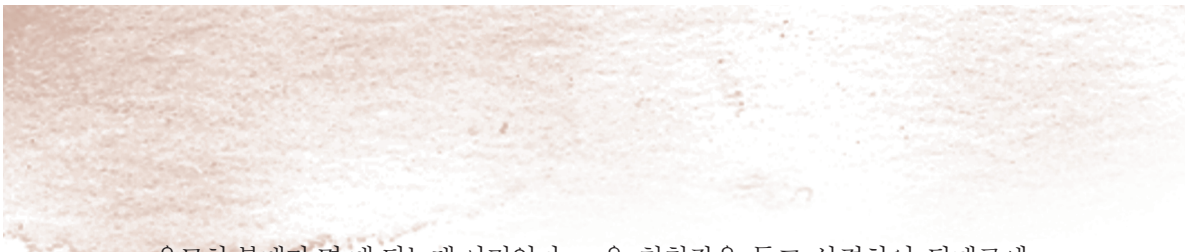
이제는 배움의 시간이 짧다는 생각에 학과시간이 끝나도 책상을 떠나지 않고 한시간쯤 더 쓰고 가방을 정리하였습니다.

내 책상 앞에도 화선지가 놓여지고 문장을 쓸수 있다는 사실이 마냥 행복하였습니다. 서예시간이 기다려지고 가방 들고 도서관 갈때면 발걸음도 가볍고 콧노래까지 흥얼 거려집니다.

며느리, 아내, 엄마의 자리 때문에 가사에 매여 모든 것을 포기하며 살아온 30여년간 세월이었는데 나도 내자리가 찾고 싶어 입문 해 보았더니 기쁨 두배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들과 노느라 바쁘지만 시간 나는대로 글을 써봅니다. 배운다는 사실이 이렇게 아픈 몸도 아플 새가 없이, 즐겁고 활력소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여성회관에 다니며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습니다. 바이올린부에는 젊은 엄마들이 많습니다. 어께하나에는 지지귀 가방, 다른 어께에는 악기를 멘채 유모차 곁에 한 두살 먹어 보이는 형아를 포함하여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아이기를 때면 얼마나 바쁘는지 그 시기를 지나고 난 내가 왜 모를까?



유모차 부대가 몇 대 되는데 아기엄마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멋져보입니다. 그 바쁜 시간도 내어 배우러 다니는데 난 이제 시간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늦으면 늦은 대로 속도감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배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반짝 반짝 작은별”로 시작하여 지금은 브람스의 왈츠나 헨델의 부레를 연주 할 수 있어 행복하다. 때론 싫증 날때면 노래책을 뒤적여 쉬운 노래를 연주해 보기도 한답니다.

“그 옛날에”, “깊어가는 가을밤”, “메기의 추억”, “동심초” 등 손길가는대로 찾아 연주하며 은은한 행복감에 젖어 보곤합니다. 간혹 친구가 그리워질 때는 컴퓨터에 앉아 친구와 메일을 주고 받는 기쁨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느냐는 물음엔 나 요즘 너무나 바쁘다, 정말 엄청 바쁘다라는 말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참 바쁘다는 대답은 아마 행복의 함성이리라...

인생은 육십부터라 했지만 기울어지는 나이에 누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겠는가? 평생학습도시인 황성에 사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봄 친구 딸 혼사에 참여 해달라며 보내

온 청첩장을 들고 상경하여 퇴계로에 있는 엠버써더 호텔을 찾았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내지는 특별한 사람들이 혼인한다는 예식부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고상하며 격조 높은 실내 장식이었습니다. 원탁엔 먼저 온 친구들이 중년이 넘은 여인네가 되어 앉아 있기에 합류하여 반가움에 잠시 떠들어댔습니다. 경음악이 은은히 흘러 나옵니다. 음악엔 아무것도 모르는 나였지만 많이 들어본 듯하여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바이올린부에서 배운 바흐의 미뉴에트구나. 참 반갑고 기쁩니다. 평생학습에서 배운 노래가 여기서도 나오다니... 음악에 실내 분위기는 더욱 고조되는 듯 했습니다.

기쁜 마음에 너댓 모인 친구 앞에서 목에 힘주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너네들 지금 들리는 경음악이 무슨 노래인지 아냐? 글썸다 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이건 바흐의 미뉴에트야 알겠냐 내 소리에 친구들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건야 “음악전공한 사람이나 알지 우리가 아냐”고 하였습니다. 야 이런 것쯤은 상식 아니니? 하며 평생학습도시인 우리 황성에선 하며 두 번째 목소를 높이며 빠기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골 사는 친구라고 깔보았다간 큰 코

다치겠다며 친구들이 말했습니다.

대성병원 뒤에 밭이 있어서 가끔 밭에 오갈때면 앞내다리 건너기전 고인돌 모양을 한 우직한 바위에 썩여있는 “평생 학습도시황성”이라는 글귀는 내인생에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소박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는 글귀인가? 무능하다고 자학하며 살았던 나는 정성껏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붓글씨며 바이올린이며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게 꿈만 같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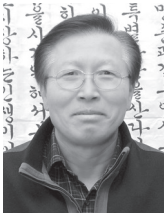
나이 들어가며 자녀들에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보다는 배운다는 자세를 보임이 얼마나 유익한가? 때론 다늦게 배워 뭐하냐는 질문에 난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평생학습이라는 상이 다 차려져 있는데 골고루 다니며 맛보니 그 맛이란, 기쁨 두배, 행복 두배 였노 라고 함께 가서 배워 보자고 말도 자주 하는 편입니다.

배우고 익히다 보면 내면이 풍요로워지고 즐거움이 수반되어 행복 충만의 삶이 되고 교만하거나 모나지 않는 사람이 되며, 넉넉한 인간미가 흐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방면으로 채워주는 내고장 황성 평생학습도시인으로 사는 것이 무척 자

랑스럽습니다. 내 작은 실천을 통하여 베풀어 주며 도약하는 우리 황성에 모범군민이 되며 바쁘다고 게을리 말고 연한 새싹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여 시원함과 마음에 편안함을 주듯이 배우고 닦으며 나 하나만이 아닌 이웃을 살피는 멋진 일등 군민, 평생학습인이 되리라 다짐해 봅니다.

작은 실천이 인생을 꽃 피울 수 있다



● 심형기 (형성문화원 서예반)

형성문화원 서예반에 발을 들여 놓은 지도 벌써 삼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니 마치 긴 철로 위를 쉬지 않고 달리던 열차가 종점에 다다르면서 엔진을 끈 것처럼 허탈하며 어딘가 더 달리고 싶은 충동으로 마음의 제어가 되지 않아 몸은 서있지만 마음은 어딘가를 향해 달리는 느낌이었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지내면 지루하지 않고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써보고 싶던 붓글씨가 배워보고 싶어 망설이던 끝에 얻은 결론이 서예를 배우기로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어느 사람이건 자신이 평생직업으로 생각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이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꽃을 피우는 기간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그 직업에 종지부

를 찍고 나면 보람과 허탈함이 교차하며 이제 인생이 거의 지나갔다고 느끼면서 이제껏 고생하고 살아왔으니 이제 부터는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편안하게 남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아보자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치부하며 편안한 안주를 꿈꾸며 인생의 파라다이스를 마음껏 거닐며 살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지나간 자신의 직장생활만을 자랑하고 우려먹으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게 주어진 나머지 시간이 얼마 인지는 몰라도 허송세월을 살게 되어 정말로 가고픈 목적지가 없는 항해를 하는 배가되어 표류하는 인생을 만들게 되어 보람을 창출하지 못하는 그저 밋밋한 삶을 살게 되리라 본다.

그러던 중 어느 직장의 선배가 한 말

이 생각났다. 직장생활 이십 오년을 하고 퇴직하여 “이제는 할만치 일을 다 했으니 이제부터는 정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보자” 라고 했단다. 그렇게 중언부언(重言復言)하면서 지내온 것이 이십년을 살았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지나간 직장생활을 자랑만 하며 살아왔던 세월과 퇴직한 이후의 세월의 량을 계산해 보니 그 자랑스러운 과거의 직장생활의 세월 삼분의 이를 넘게 과거의 자기 자랑만 하며 무미건조하게 보낸 지난 이십년이 너무 허무하고 아까운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언가를 해보며 살아야 하겠다.” 는 생각을 하게 되어 결정을 한 것이 어쩌다 외국에 나아갔을 때 불편했던 세계 공통 언어인 영어를 보충해 보자는 생각으로 영어공부를 시작하고는 몇 년이 지나자 지난 이십년을 왜 그렇게 살았나하며 너무 아깝고 후회스럽게 생각을 하며 늦기는 했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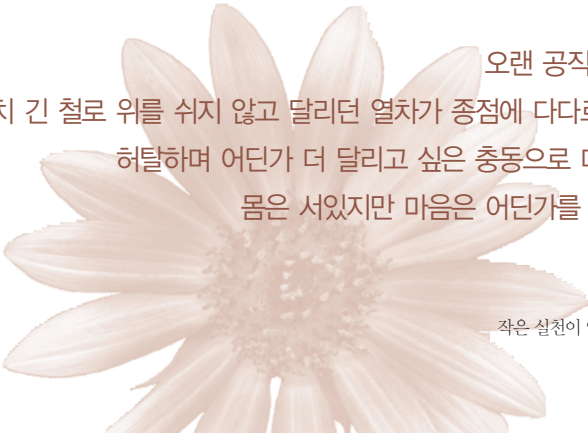
재미있게 지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 선배처럼 퇴직이후의 삶에 후회하는 시간을 만들지 않게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서예를 결심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만큼의 세월을 허락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열심히 무언가를 배우며 살다보면 결과가 미약할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서 몰랐던 얼마간의 보람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인생의 족적에 후회는 적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서예를 배우고 있다.

하늘이 내게 준 시간이 혹여 나의 지난 공직생활을 한 기간만큼을 주신다면 공직에서 멋진 꽃을 피우고 퇴직했듯 내 인생의 새로운 시발점에서 서예가로서의 멋진 꽃도 피워보고 싶다.

퇴직 후 고등학교 동창 친구와의 대화에서 서예를 배운다고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서예를 배우다 보면 그것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고 하였다. 서예를 배우는데 무슨 스트레스가 생길까하며 의아해했는데 욕심이 화를 낳는다는 속담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나니 마치 긴 철로 위를 쉬지 않고 달리던 열차가 종점에 다다르면서 엔진을 끈 것처럼 허탈하며 어딘가 더 달리고 싶은 충동으로 마음의 제어가 되지 않아 몸은 서있지만 마음은 어딘가를 향해 달리는 느낌이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본인이 어떤 일에 얼마만큼 몰입하고 열성껏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 있듯 붓글씨를 좀더 빨리 잘 쓰고 싶은 욕망을 앞세우다보니 정말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느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서예를 하기 싫어지기도 했다.

그러면서 나는 개체는 너무 조급한 동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 붓을 잡은 지 일년도 안 되어 평생을 몸 바친 서예대가의 작품을 보고 나의 실력이 그곳에 머물게 되기를 기대하다보니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이 인생 십년을 투자했으면 나의 인생도 최소한 그만큼 투자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밖에 못쓰나하는 애기를 하면 몰라도 지금 이 시점에서 내 글씨가 이렇고 저렇고 하는 생각은 마치 뛰는 노력을 하지 않고 남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달하려하는 어리석은 자의 우매한 욕심을 부리고 있음을 알고 자책의 반성도 해 보았다.

“서당 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는데 나의 필력이 벌써 그 삼년의 세월에 도달했는데도 풍월은커녕 나는 아직 붓 가는 길도 제대로 모르고 헤매는

것을 보면 서당 개 보다 아둔한 것 같아 자학도 해 보았다. 그러나 인간이 배움에서 개보다 무디지는 않겠지만 서당의 개는 매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인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살다보니 풍월을 할 법도한데 나는 문화원에 나오는 날만 붓을 잡으니 당연히 서당 개 보다 늦게 배울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세상의 모든 이치는 본인이 어떤 일에 얼마만큼 몰입하고 열성껏 시간을 투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일하지 아니하고 대가만을 기대하는 게으름에서 벗어나야하는데 아직까지 인생 욕심을 넘게 살아놓고도 아는 것도 실천하지 못하고 사니 언제나 철이 들으려나 모르겠다. 문화원하면 취미생활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실력을 배우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모든 문화원의 존재 가치가 그러하리라 본다. 그런데 우리 형성 문화원 서예반의 몇 몇 분들은 필력이 수준급에 다다르고 있는 것을 보면 서 마치 서예학원에 다니는 듯한 착각을 가끔 하게한다.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려면 서예학원

에서 전문적인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한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성문화원은 선생님들의 능력도 수준급인데다 가르치는 성의도 최선을 다해서 마치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다니는 족집게 학원에서 열심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를 보게 되는 분위기라 많은 실력을 배양하게 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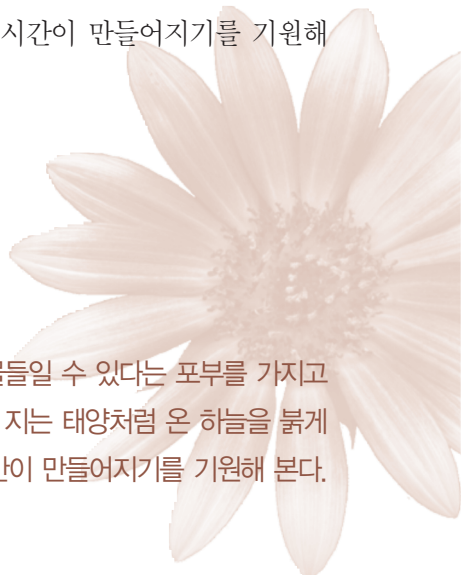
우리 형성문화원 서예반원의 일부 수강생은 취미를 익히는 수준을 넘어서 조금의 시간만 더 보태면 지역에서 이름 있는 대가로 탄생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어서 형성문화원 서예반 출신이 그 명성을 떨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열정을 보이는 것 만큼 나도 시간이 나는 대로 붓 잡는 시간을 늘려서 선생님들이 바라는 수준은 못 간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모습의 수강생이 되도록 노력 하여야겠다는 마음이다. 모든 일은 후반전이 잘 마무리되어야 그 일이 잘 끝났다는 평가를 받는 것처럼 내 인생도 “그만한 인생이

면 잘 만들어진 인생이다.” 라는 평가를 받도록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배우면서, 인생길에서 잘 못된 부분은 수정하며, 주위에 조금만 더 덕을 베풀며 더불어 살아가는 시간으로 살아가려 한다.

우연히 좋은 인연으로 만난 우리 형성문화원생과 특히 서예반 반원들의 건강함은 물론 취미로 시작한 서예가 멋진 인생의 한 획을 장식하는 결실로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침 해는 희망을 안고 새롭고 밝게 떠오르지만 지는 해는 빛은 바랬지만 저녁하늘을 붉게 물들일 수 있다는 포부를 가지고 나의 인생도 후반전에 돌입하였으니 온 정열을 바쳐서 지는 태양처럼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힘 있게 살아가는 보람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지는 해는 빛은 바랬지만 저녁하늘을 붉게 물들일 수 있다는 포부를 가지고 나의 인생도 후반전에 돌입하였으니 온 정열을 바쳐서 지는 태양처럼 온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힘 있게 살아가는 보람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한국어교육 중급반 수강생과의 만남

- 말씀해 주신 분
카말던이다리사카(필리핀)
응우옌티한(베트남)
막달레나(필리핀)
히야즈바니탈리아(카자흐스탄)
- 도와주신 분
김영아(한국어교육 중급반 담당 선생님)
- 인터뷰 · 정리 이영식

추석을 2주 앞둔 2009년 9월 17일 오전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았다. 방문 목적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이주여성 수강생들을 만나 그들의 고향애기와 횡성에서 삶의 이야기를 듣기 위함이었다.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취지를 밝혔더니 한국어교육 중급반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아 선생을 소개해주었다. 김 선생의 안내로 중급반 교실에서 수강생들과 인사를 나누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자니 옆 교실에서 공부하던 초급반 수강생들도 참여하였다. 갑자기 많은 수강생이 모인 까닭에 교실은 잠시 어수선했으나 방문취지를 모두들 이해하고 협조해 주었다. 그런데 초급반 수강생

들은 대부분 한국에 온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중급반 수강생 네 명을 상대로 얘기를 나누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준비한 20항목의 질문지를 나눠주고 자유롭게 쓰게 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방법을 달리하였다. 곧 이영식이 한 항목씩 읽으면서 먼저 질의를 하면, 김 선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설명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국에는 언제 오셨습니까?

고향 자랑 좀 해 주십시오.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을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한국에서는 설날과 추석을 가장 큰 명절로 꼽습니다. 귀하의 고향에는 어떤 명절이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설날에 떡국을 끓여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빚어먹습니다. 귀하의 고향에서는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귀하의 고향에서 드시던 음식을 한국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먹는 일이 자주 있습니까?

귀하가 고향음식을 만들면 가족들은 좋아합니까?

귀하가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한국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하께서 좋아하는 한국음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국음식 조리법은 누구에게서 배웠습니까?

횡성과 강원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가족들과 여행을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고향이 가장 그리울 때는 언제입니까?

한국과 고향 풍습 중 비슷한 것과 다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과 고향 풍습이 달라 실수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어는 어디서,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귀하의 모국어와 풍습에 대해 가르칩니까?

그동안 한국에서 살며 느꼈던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번 인터뷰에 참여한 중급반 수강생들은 필리핀에서 온 2명, 카자흐스탄에서 온 1명, 베트남에서 온 1명 등 총 4명이다. 원래 중급반 수강생은 10여 명이 되나 집안 일이 바쁜 까닭에 오늘은 출석률이 낮은 편이라 한다.

면담에 참여한 분들은 한국에서 5년 이상을 생활한 분들이라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구술한 것을 그대로 기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부분만 다듬어서 정리하였다.

● 먼저 한국에 온 해외 고향 자랑을 부탁했다. 이에 베트남에서 2005년에 온 응우옌티한 씨는 날씨가 따뜻하여 벼농사를 3모작 할 수 있다는 점, 해산물도 많이 생산되며 과일이 많아서 가격이 싸다는 점을 자랑하였고, 필리핀에서 2000년에 온 카말틴이다리사카 씨와 막달레나 씨는 해변이 아름답고 과일도 많이 생산된다는 점을 강조했고, 카자흐스탄에서 온 히야즈바나탈리아 씨는 카자흐스탄의 넓은 땅을 자랑했다.

●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

국 드라마를 통해 잘 사는 곳으로 알았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대해 전혀 모르고 왔다는 분도 있었다. 나아가 오기 전 생각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달라 한동안 당황했다는 분도 있었다.

● 각자의 고향 명절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필리핀에서는 11월 1일에 망자를 위해 가족들이 묘지에 가서 인사하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풍습과 크리스마스를, 베트남에서는 한국과 같이 설날을 가장 큰 명절로 꼽았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 3월에 봄맞이하는 행사가 큰 명절이라 한다.

● 명절 때 고향에서 주로 먹는 음식에 대해 묻자 카자흐스탄에서는 7가지 재료를 넣어 만든 음식을 먹고, 필리핀에서는 붉은 잡채를 즐겨 먹으며, 베트남에서는 음식이 다양하지만 한국의 송편과 같은 떡을 제일로 꼽았다.

● 고향에서 먹던 음식을 한국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먹는 일이 자주 있는가? 또 가족들이 좋아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베트남이 고향인 응우옌티한 씨는 월남 쌀을 가족들이 좋아하

기 때문에 가끔 해먹는다고 했으며, 카자흐스탄에서 온 히야즈바나탈리아 씨는 시부모들이 카자흐스탄 음식을 다 좋아한다고 했다. 필리핀에서 온 카말던이다리사카 씨와 막달레나 씨는 가족들이 필리핀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다.

●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한국음식에 대해 묻자 미역국, 부침, 감자튀김 등을 자신 있게 조리할 수 있다고 했으며, 또 좋아하는 한국음식으로는 잡채, 삼겹살, 해장국, 보쌈 등을 꼽았다. 그리고 한국음식 만드는 법을 누구에게 배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어머니, 시할머니, 윗동서, 책, 텔레비전 등을 통해 익혔다고 했다.

● 강원도와 황성군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묻자 다들 망설였다. 이에 질문을 바꿔 강원도, 황성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대부분 강원도는 주로 감자, 옥수수, 바닷가, 동굴 등이 떠오르고, 황성은 한우, 황성댐, 계곡, 토지세트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들 강원도는 물이 깨끗해서 좋다고 했다.

● 가족이 함께 여행 다녀온 곳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하자, 한 분만이 제주도 다녀왔다고 할 뿐 나머지 분들은 가족이 함께 여행을 다닌 적이 없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녀온 곳도 드물다고 했다. 이에 그럼 가족들과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묻자 모두들 고향이라고 했고, 그 다음은 제주도라고 했다.

● 고향이 가장 그리울 때는 언제냐고 묻자 설날과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몸이 아플 때와 출산할 때를 꼽았다. 어떤 이는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몹시 아팠는데 남편 및 가족들과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고향의 친정어머니가 생각나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한다.

● 한국과 고향의 풍습이 같은 점과 다른 점, 그리고 풍습이 달라 실수한 적이 있으면 이야기 해 달라고 하자 카자흐스탄에서 온 히야즈바나탈리아 씨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필리핀과 베트남에서 온 카말던이다리사카, 응우옌티한, 막달레나 씨는 존대법을 제일로 꼽았고, 다음으로는 인사법이 달라 이주 초기에는 어른들께 악수



국어를 보다 정확히 익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이 수업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말했다.

● 고향인 필리핀,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의 언어나 풍습을 자녀 및 가족들에게 알려주느냐는 질문하였다. 이 물음에 대해서는 한 집만이 자녀들에게 언어와 풍습을 가르친다고 할 뿐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를 물으니 가족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를 청해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은 대체적으로 매워 적응하는데 어려웠다고 한다.

● 한국어를 어디서 어떻게 배웠고, 배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히야즈바나탈리아 씨를 제외한 세 분은 한국어를 전혀 모른 상태에서 왔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어는 텔레비전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3년 동안 집에 있으면서 남편과 같이 공부한 분도 계셨다.

그리고 혼자 책을 통해서 익히다가 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 한국어교실에서 배웠다는 분도 있다. 아울러 어떤 분은 한국어를 처음 배울 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컸으나, 다행히 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한

● 그동안 한국에서 살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 묻자, 황성군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이 확대되어 많은 이주여성들이 한국어학습은 물론 한국문화를 익히고 교양을 쌓을 수 있는 공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나아가 한국인은 어려운 이웃을 보면 열심히 도와주면서도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약하다고 했다. 아울러 아이들 교육문제가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 정부나 황성군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어 깨끗해서 좋다고 했다.

●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고 묻자 대학을 마치고 한국에 온 분들은 모두 공부를 더하고 싶어 했는데, 영문학을 전공한 분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번역 일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다고 하였으며, 심리학을 전공한 분은 심리학 공부를 더 해서 자신과 같은 이주민 여성 및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원이 되기를 희망했다.



동아리 그림풍경을 만나다



● 박현숙

박현숙 :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계자 : 어서 오세요.

박현숙 : 조동선 선생님께서도 함께 계셨군요? 반갑습니다.

조동선 : 안녕하세요?

박현숙 : 오늘 마침 수업이 있는 날이어서 회원들도 함께 그림에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니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부럽기도 하구요...

이계자 : 감사합니다.

박현숙 : 수업은 언제하시는지요

이계자 : 일주일에 2회, 4시간정도 하는데 저희 학생들은 시간 되는대로 습작을 하기도 합니다.

박현숙 : 실력들이 대단하신것 같아요.

이계자 : 부끄럽지만 실력이랄것까지는... 하지만 저희는 너무 행복합니다.

박현숙 : 행복하시다니까 저도 덩달아 행복해지는 것 같군요.

이계자: 감사합니다.

박현숙: 학생들은 몇 명인가요?

이계자: 15명 정도 됩니다.

박현숙: 회원과 학생과는 구분이 있나요?

이계자: 네, 회원들은 여성회관에서 수강한지 2년이 되면 그림풍경이란 동아리에 입회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박현숙: 그럼 지금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 몇 명인지요?

이계자: 초급반 수강생이 15정도 됩니다.

박현숙: 그렇군요. 화실이 아담하고 예쁘네요

이계자: 아쉬운 말씀을 드리자면 회원들에 비해서 조금 좁기는 합니다. 그래도 가계부담이 적은 비용으로 비 전공자들에게 좋은 취미활동을 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현숙: 여성회관 수강생들이 모두 500명이 훨씬 넘는다고 들었는데, 미술반은 특별한 배려이고 축복인것 같은데요~

이계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군에 너무 감사하다는 표현을 오늘에서야 하게되는군요.

박현숙: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이계자: 제가 횡성에 오고나서 여성회관에서 이런 취미활동을 시작했는데, 끼가 발동을 하게된거죠?

박현숙: 계절 탓인지 회장님의 가을 풍경을 담은 그림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이계자: 감사합니다.

박현숙: 유화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신가봐요?

이계자: 조동선 선생님께서 유화와 수채화를 병행해서 지도해 주시고 폭 넓은 그림을 접하는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현숙: 조동선 선생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계자: 2004년 하반기에 여성회관 미술반이 시작되었는데 지금까지 선생님의 인기는 상승세입니다... ㅎㅎㅎ

박현숙: 훌륭하신 선생님을 모시게 된것도 행복이지요?

이계자 : 그렇지요

박현숙 : 그림 그림풍경이란 이름으로 창단 된것은 언제가 되는지요?

이계자 : 2006년 11월 14일부터 18까지 황성문화관 전시실에서 15명의 회원
들이 사랑과 열정으로 그려낸 작품 들을 선보이면서 창립을 하게됐죠.

박현숙 : 남다른 감회가 깊었을것 같은데요?

이계자 : 네, 제일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으로 지도해
주신 조동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
런 기회를 제공해주신 황성군과 여성회관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박현숙 : 그렇겠군요. 2007년도에는 활발한 활동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는
데요?

이계자 : 예, 1차 전시는 황성문화관 전시실에서 3일동안 개최를 했고, 2차 전시
회는 황성군청 갤러리에서 5일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시
회는 원주공항에서 연말 연시를 기해서 13일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박현숙 : 크신 활약입니다.

이계자 : 부끄럽습니다.

박현숙 :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준비는 되셨는지요?

이계자 : 지금 차근차근 준비중에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황성문화관
전시실에서 4회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현숙 : 많은 기대가 됩니다. 향후 회장님께서 그림풍경을 어떻게 이끌어 갈 계
획 이라도 갖고 계신지요?

이계자 : 저희 동아리는 좋은 조건에서 우리에게 잠재해 있던 능력을 발휘하게
해주신 신 군과 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을 생각한 끝에 봉사계
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박현숙 :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신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좀 해주세요

이계자 : 어제는 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종이접기 봉사를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박현숙 : 다재다능한 재능도 갖고 계시네요

이계자 : 저희 회원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조그만
정성과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 우리의 손길을 펼

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적극 동참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박현숙: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어디에서 거주하시는지요

이계자: 정암리에 살고 있습니다

박현숙: 거리가 좀 있을텐데 배우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신지요

이계자: 더 멀어도 전 열심히 배웠을것입니다. 오고 가는 길이 너무 아름답고 다니면서 배우고자 하는 기쁨과 길가에 아름다운 자연을 접한다면 그것은 저에게 주는 행복의 보너스입니다.

박현숙: 배우고자 하는 열정도 대단하시고 애향심도 크신것 같군요

이계자: 이제는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박현숙: 감사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더욱 발전하시고 횡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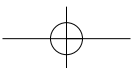
이계자: 그림풍경이라는 동아리가 지역문화의 큰 영향을 끼치고 문화적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우리 회원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숙: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자: 감사합니다.

회원들의 배움을 받고 여성회관 미술실을 나오며, 앞에 보이는 종합운동장의 요소요소에 가을 단풍들이 찬란함에 눈이 시리다. 햇살은 우뚝 서 있는 조형물, 황소의 등에 빛나고 있었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이 한우의 고장이라는 것을 새롭게 실감하며, 느끼며, 가을 속으로 빨려든다.





황성사람

Ⅲ

황성이야기

- 황성의 거미 촬영기 한상균
- 현대 노인들은 억울하다 권용환
- 孝, 효란 무엇인가? 조원섭
- 우리 농업의 현실과 농협의 역할 윤병철
- 카사 그리고 나 박 도
- 황성이야기 연재에 대한 궤변 김승기



황성의 거미 촬영기



● **한상군**
(황성문화원회원 /
前 우천초등학교장)

평소에 사진촬영을 좋아해서 거미를 한두 장 접사하다보니 거미 사진이 쌓이게 되었다. 만나는 거미마다 이름도 찾아보고 분류도 해보니 몰랐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같았다. 거미의 종류가 무척 많다는 생각이 들어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아침 산책길인 운암정과 성지봉, 섬강 둔치 주변(위 사진)의 거미를 촬영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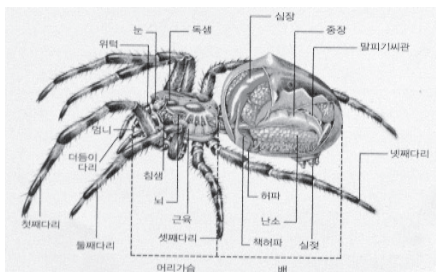
I. 들어가는 말

거미는 거미강에 속하는데 거미목과 통거미목으로 나눈다. “남궁준 著 『한국의 거미』(2003년)”에 의하면 거미는 전 세계에 35,000~40,000여종이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는 45과 256속 679종이 보고되어 있다고 한다.

거미는 곤충과 달리 몸은 앞몸(머리

와 가슴이 융합)과 배로 두 부분이 배자루(작은 관)로 연결되었는데 앞몸에는 4쌍의 다리, 8개의 홑눈, 한 쌍의 더듬이다리(수컷은 생식기관), 위턱이 있고 운동, 먹이섭취 신경통합 기능을 담당하며, 배에는 실젯, 외부생식기(암컷)가 있고 소화, 순환, 호흡(책허파, 기

관), 배설, 생식, 거미줄 생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거미의 피는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시아닌 때문에 파란색이며 혈관 밖으로 흐르는 개방혈관계이다. 눈의 렌즈는 빛의 밝기만을 감지하는 정도이며 다리의 털과 가시털이 부족한 시력을 보충하고 있다. (남궁준 저「한국의 거미」 교학사 2003년 참조)



거미몸의 구조

II. 황성의 거미

황성의 거미는 2목 13과 34속 46종을 촬영하였다.

갈거미과(Tetragnathidae) : 국내 서식 6속 18종 중 2속 3종 촬영. 체형이 긴 편이며 물가 습지, 풀숲에 수평 둥근 그물을 치고 생활한다.

㉑ 무당거미(Nephila clavata)



몸길이 ♀ 20~30, ♂ 6~10mm. 성체시기 8~10월.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거미다. 인가 부근 나뭇가지 사이에 둥근 모양의 노란 입체 그물을 보고 쉽게 알 수 있었다. 잡힌 곤충이 기절하면 사냥용 그물에서 떼어 보관용 그물로 옮기는 독특한 모습이 재미있었다. 암컷 그물 주위에 작은 수컷이 서너 마리가 있는데 거미새끼로 착각하였다. 이 수컷들은 암컷이 기분 좋을 때를 기다려 짝짓기를 한다.

㉒ 장수갈거미(Tetragnatha praedonia)

몸길이 ♀ 13~15mm, ♂ 10~12mm. 성체시기 5~10월. 물가 풀 사이 수평 둥근 그물을 쳤다. 풀잎 뒤에 숨어 먹이가 걸리길 기다리는 모습을 보았다. 서로 발목을 잡은 두 사람이



구르기 체조를 하는 모습 같은 짝짓기 모습이 다른 거미와 크게 달랐다.

㉔ 비늘갈거미(Tetragnatha squamata)



몸길이 ♀ 7~9, ♂ 5~7mm. 성체시기 5~7월. 작고 보호 색이어서 찾기가 힘들었다. 한 번 밖에 보지 못할 정도로 귀한 거미다. 노란빛을 띤 녹색 몸빛깔이 자극을 받으면 변한다고 한다.

게거미과(Thomisidae) : 국내 서식 19속 39종 중 4속 4종 촬영. 그물을 치지 않고 풀숲의 나뭇잎, 꽃송이에 잠복하여 먹이사냥을 한다. 모양과 걸음걸이가 계와 비슷해서 생긴 이름이다.

㉕ 곰보꽃게거미(Mecaphe kumadai)

몸길이 ♀ 3.5~4.5mm, ♂ 2.5~3.5mm. 성체시기 5~10월. 섬강 둔치 제방에 핀 원추천인국 꽃 속에서 꿀벌을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㉖ 줄연두꽃게거미(Oxytate striatipes)

몸길이 ♀ 10~13, ♂ 8~10mm. 성체시기 5~10월. 나뭇잎 위에 뒤에 숨어있는 모습이다.



㉗ 불짜게거미(Synema globosum)



몸길이 ♀ 5~6mm, ♂ 4~5mm. 성체시기 6~9월. 한 번만 보았을 정도로 흔하지 않은 거미다. 모양이 특이하여 쉽게 이름을 찾았다. 잎사귀를 몇 겹 접어 만든 산실에 산란 후 보호한다고 한다.

㉠ 대륙게거미(Xysticus ephippiatus)

몸길이 ♀ 6~12mm, ♂ 5.5~7.5mm. 성체시기 6~8월.

자기 몸보다 서너 배 큰 하늘소를 사냥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대단한 사냥기술이었다.



강총거미과(Salticidae) : 국내 서식 34속 71종 중 10속 10종을 촬영. 배갑(머리와 가슴 부분)이 사각형 내지 사다리꼴이며, 앞 가운데 두 눈이 거대하여 자동차 헤드라이트 모양이다. 몸이 납작하고 다리가 튼튼해 잘 뛰어서 생긴 이름이다. 배회성 거미로 산야의 관목이나 풀 숲, 전답, 제방 담벽 등의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흔하며 각종 해충 구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종류의 거미들은 강총 띠어 매우 빠르게 움직여 촬영하기가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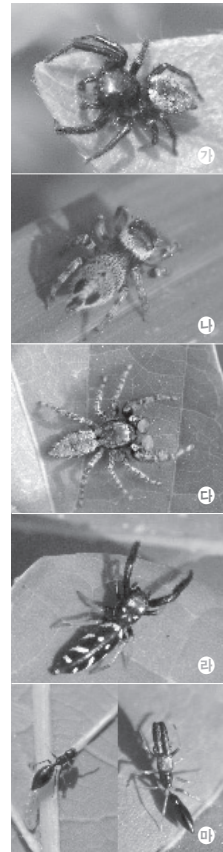
㉡ 털보강총거미(Carrhotus xanthogramma) 몸길이 ♀ 7~9mm, ♂ 5~7mm. 성체시기 5~8월.

㉢ 흰눈섭강총거미(Euarcha albaria) 몸길이 ♀ 7~8mm, ♂ 5~6mm. 성체시기 6~8월.

㉣ 왕강총거미(Marpissa roemer) 몸길이 ♀ 10~12, ♂ 8~10mm. 성체시기 6~11월.

㉤ 머리수검은강총거미 (Mendoza pulchra) 몸길이 ♀ 9~11mm, ♂ 7~9mm. 성체시기 6~9월. 몸의 무늬가 선명하여 작지만 쉽게 구분할 수 있다.

㉥ 각시개미거미(Myrmarachne innermichelis) 몸길이 ♀ 5~6mm, ♂ 4~4.5mm. 성체시기 5~8월. 갈잎 위에서 암수가 빠르게 돌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있었다. 때로는 개미집



에 침입하여 개미 알이 나 유충을 먹는다고 한다. 암컷은 개미와 비슷하다. 수컷의 가위 같이 생긴 앞턱이 인상적이었다.

❻ 눈강총거미(*Phintella arenicolor*) 몸길이 ♀ 5~6, ♂ 4~5mm. 성체시기 5~9월.

❼ 큰줄무늬강총거미(*Phintella arenicolor*) 몸길이 ♀ 8~9mm, 성체시기 5~8월.

⓫ 두줄강총거미 (*Plexippus paykulli*) 몸길이 ♀ 10~12, ♂ 8~11mm. 성체시기 5~8월. 등애를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⓪ 검은날개무늬강총거미(*Telamonia vlijmi*) 몸길이 ♀ 9~11, ♂ 8~10mm. 성체시기 5~9월. 운 좋게도 암 수를 촬영할 수 있었는데 무늬가 달라 구별하기가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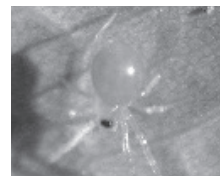


꼬마거미과(Theridiidae) : 국내 서식 27속 73종 중 2속 2종을 촬영. 아주 작은 거미로 접사를 하지 않으면 모습을 보기가 힘들다. 관목의 잎이나 갈대 잎 뒷면에 불규칙한 입체 그물을 치고 있었다. 먹이를 거미줄 띠로 묶어서 잡는다고 한다.



㉑ 주황꼬마거미(*Achaeearanea asiatica*) 몸길이 2~3.3mm. 성체시기 5~6월. 나뭇 잎 위에 빨간 점처럼 아주 작은 거미로 한 때 일본에서는 열대지방의 독거미로 오해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㉒ 검정미진거미(*Yaginumena castrata*) 몸길이 3~7mm. 성체시기 7~9월.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풀밭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거미줄을 늘어뜨리고 지나가는 개미를 사냥한다고 한다.

늑대거미과(Lycosidae) : 국내 서식 7속 52종 중 2속 3종 촬영. 암거미는 공 모양의 알주머니를 거미줄돌기에 달고 다니고, 부화한 새끼는 등에 업고 다니는 종이 많다고 한다. 초원·모래밭 등 건조한 곳에서 주로 떠돌이 생활을 하는데 논밭에 사는 것도 많아 해충 구제에 큰 역할을 한다고 한다.

㉑ **한국늑대거미(Arctosa coreana)** 몸길이 ♀ 6.5~7.5mm, ♂ 5.5~6mm. 성체시기 4~8월. 큰 바위 밑에서 촬영하였다. 매우 빠르게 움직여서 촬영하기 힘들었다. 한국 고유종이다.



㉒ **별늑대거미(Pardosa astrigera)** 몸길이 ♀ 7~10mm, ♂ 6~8mm. 성체시기 4~10월. 알주머니를 실젯에 달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른 봄부터 시가지 공원, 교외, 잡목림, 풀밭, 과수원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한다.



㉓ **가시늑대거미(Pardosa laura)** 몸길이 ♀ 6~8mm, ♂ 5~7mm. 성체시기 4~8월.



닷거미과(Pisauridae) : 국내 서식 3속 6종 중 2속 3종을 촬영. 성체는 그물을 치지 않고 떠돌이 생활을 하고 한다. 산란기에 암컷은 공 모양의 알주머니를 큰 턱으로 물고 다니는데, 부화 후 관목 가지에 불규칙한 육아 그물을 치고 새끼를 지키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었다.

㉔ **황닷거미(Dolomedes sultureus)** - 몸길이 ♀ 20~28mm, ♂ 14~20mm. 성체시기 6~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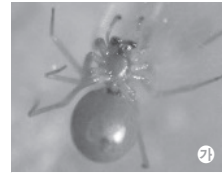
㉒ 닳표늪서성거미(*Pisaura ancora*) 몸길이 ♀ 10~12mm, ♂ 9~10mm. 성체시기 4~9월. 알집을 입에 물고 마른 풀 위를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모성애가 진한 감동을 준다.

㉓ 아기늪서성거미(*Pisaura lama*) 몸길이 ♀ 10~13mm, ♂ 7~11mm. 성체시기 4~9월. 부화한 새끼를 주위에서 지키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관찰학습 대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애접시거미과(Erigonidae) : 3속 3종 촬영. 꼬마거미과의 거미들과 모양과 크기가 비슷해서 혼동되었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이 있었다.

㉔ 앵도애접시거미(*Nematogmus sanguinolentus*) 몸길이 ♀ 1.7~2.2mm, ♂ 1.5~2.0mm, 성체시기 5~9월. 초원, 습지, 풀숲 등의 지면 가까이에 작은 시트형 그물을 치고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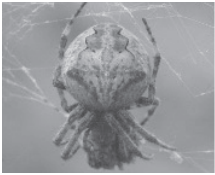
㉕ 쌍코뿔애접시거미(*Paikiniana vulgaris*) 몸길이 2.3mm 정도, 성체시기 3~10월. 비교적 습한 풀숲, 논바닥 등에 작은 시트형 그물을 치고 있다고 한다.



㉖ 등줄애접시거미(*Ummeliata insecticep*) - 몸길이 ♀ 3.0~3.5 ♂ 2.7~3.2mm, 성체시기 연중. 산과 들, 습지, 논 등의 지표면에 시트형 그물을 있거나 배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논거미로 벼 해충구제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왕거미과(Araneidae) : 국내서식 20속 72종 중 6속 13종 촬영. 국내 서식 거미 중 분포도가 가장 높은 거미로 둥근 그물을 치며 매우 우세한 거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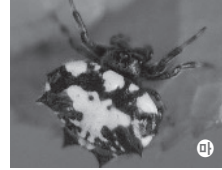
㉑ **그늘왕거미(Yaginumia sia)** 몸길이 ♀ 12~15, ♂ 8~10mm. 성체시기 7~9월. 집 근처, 야외, 산지 등에 널리 서식. 저녁에 크고 둥근 그물을 치고 아침에 걷기도 하나 지역에 따라 그대로 두는 것도 있다고 한다.

㉒ **호랑거미(Argiope amoena)** 몸길이 ♀ 20~25mm, ♂ 5~6mm. 성체시기 6~9월. 대표적인 남방계 거미라고 하는데, 나뭇가지 사이나 풀숲에 수직으로 대형 그물을 치며 가운데에 불완전한 X 자꼴의 흰색 띠를 만들고, 그 교차점에 거꾸로 매달려 지낸다.



㉓ **긴호랑거미(Argiope bruennich)** 몸길이 ♀ 20~25mm, ♂ 8~12mm. 성체시기 8~11월. 산야의 풀숲이나 논·밭에 지름 20~50cm의 둥근그물을 수직으로 치며, 가운데에 흰색 띠줄을 세로로 치고 가운데에 매달려 지낸다. 자극을 받으면 몸을 흔들어 그물을 진동시킨다.

㉔ **꼬마호랑거미(Argiope minuta)** 몸길이 ♀ 8~12, ♂ 4~5mm. 성체시기 7~10월. 산과 들의 나무 밑이나 나무사이에 뚜렷한 X자 모양의 흰 띠줄을 지닌 둥근 그물을 치고 있다. 자극을 받으면 몹시 몸을 앞 뒤로 흔든다. 그물 위에 달린 가랑잎 모양의 편평한 다각형 알집도 볼 수 있다.



㉕ **가시거미(Gasteracantha kuhlii)** 몸길이 ♀ 6~8mm, ♂ 3~4mm. 성체시기 7~10월. 산지의 수림사이를 걸을 때 얼

굴에 거미줄이 걸리는데 바로 가시거미의 거미줄이었다. 자극에 매우 민감해 가까이 가면 즉시 낙하하여 이 가시거미를 보기란 쉽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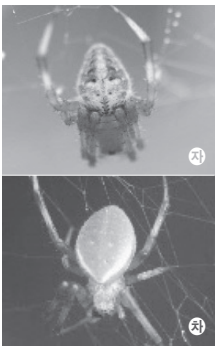


❹ 각시어리왕거미(*Neoscona adianta*) 몸길이 ♀ 6~9mm, ♂ 5~7mm. 성체시기 6~7월. 초원, 습지, 논 등에 수직 또는 수평그물을 치고 있었다. 벼 해충의 천적으로 중요시된다고 한다.

❺ 어리집왕거미(*Neoscona pseudonautica*) 몸길이 ♀ 6~9.5mm, ♂ 5~6.5mm. 성체시기 7~9월. 초원의 물가나 관목에 작은 둥근그물을 치고 산다는데 이놈은 우천초등학교 테니스장 바람막이 위에서 우연히 촬영했는데 후에 찾아보니 어리집왕거미였다. 도감과 색깔이 달라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



❻ 적갈어리왕거미(*Neoscona punctigera*) 몸길이 ♀ 10~13, ♂ 7~9mm. 성체시기 8~10월. 산야의 활엽수나 풀숲 사이에 수직둥근그물을 치고 주간에는 나뭇잎 뒷면에 은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섬강 둔치 물가의 풀잎에서 촬영하였다.



❼ 지어리왕거미(*Neoscona scylla*) 몸길이 ♀ 12~15, ♂ 8~10mm. 성체시기 7~9월. 산야의 수목이나 풀숲 사이에 대형의 수직둥근그물을 치고 그 가운데 정지해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물을 매일 새로 치고 헌것은 먹는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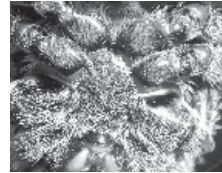
❽ 연두머리왕거미(*Neoscosa melloteei*) 몸길이 ♀ 8~10, ♂ 7~8mm. 성체시기 6~8월. 야행성 거미로 낮에는 잎사귀 뒤에 숨어 있다가 저녁때 나와 산지 나뭇가지나 풀숲

사이에 수직 둥근그물을 친다고 한다. 검은테연두어리왕거미와 구분이 어렵다.

㉑ 기생왕거미(*Nuctenea cornuta*) 몸길이 ♀ 10~12, ♂ 7~9mm. 성체시기 6~10월. 산지 관목사이나 풀밭에 경사진 둥근그물을 치며 풀잎을 접어 만든 집에 숨어 지낸다고 한다. 섬강변 풀밭에서는 주로 개밀(벼과 식물)의 잎을 접어 만든 집이 다양해서 촬영하는 것이 재미있었다. 자극을 주어도 나오지 않던 거미가 입김을 불어넣으니 빠르게 집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신기했다. 이름처럼 예쁜지는 않지만 아무튼 재미있는 거미다.



㉒ 산왕거미(*Araneus ventricosus*) 몸길이 ♀ 20~30, ♂ 15~20mm. 성체시기 6~10월. 집 근처, 야외, 산지 등에 널리 서식하며. 저녁에 크고 둥근 그물을 치고 아침에 걷기도 하나 지역에 따라 그대로 두는 것도 있다고 한다. 배 부분을 접사해보니 꼭 현상 붙은 사나이 얼굴처럼 무서워 보였다.



코리나거미과(Corinnidae) : 국내서식 5속 13종 중 1속 1종 촬영. 지표성 거미로 산야의 낙엽층이나 부시토층 등에서 발견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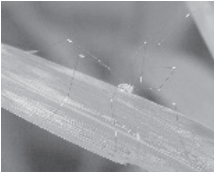
황띠나나니거미(*Castianerina flavimaculata*) 몸길이 ♀ 7.5~9.5mm, ♂ 6~7mm. 성체시기 6~9월. 풀숲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크고 불규칙한 계단식 그물을 치고 가운데에 마련한 터널모양 집 속에 숨어 지내다가 먹이가 그물에 걸리면 재빨리 튀어나와 잡아먹는다고 한다.

플거미과(Agelenidae) : 국내서식 2속 9종 중 1속 1종 촬영.



들플거미(Agelena limibata) 몸길이 ♀ 15~19mm, ♂ 12~14mm. 성체시기 7~9월. 산야의 풀숲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불규칙한 그물을 치고 중앙부 터널 속에 숨어 있다가 먹이가 걸리면 쫓아나와 포획한다. 알주머니는 흰색 다면체인데 부화된 애거미가 그 속에서 월동하다가 늦봄에 밖으로 나온다고 한다. 애거미는 붉은색이다.

통거미목(장님거미목) : 통거미과(Nemastomatidae) 1속 1종 촬영. 통거미목은 3과 5속 6종이 보고되어 있는데 통거미라는 이름은 전체적 형태에서 생긴 이름이며 장님거미라는 이름은 거미줄이 나오는 복부 끝의 방적돌기(실젯)가 없어 붙여진 이름이다. 통거미는 머리, 가슴, 배가 한 통으로 되어있고 8개의 다리가 실처럼 가늘고 길어 유령거미와 혼동한다. 눈이 2개, 독선 대신 악취를 내는 선이 있다. 야행성이며 잡식성으로 작은 동물, 동물의 사체, 새똥, 식물, 버섯 등을 먹는다. 짝짓기가 거미와 다르게 음경으로 직접 한다.



통거미(Leio bunum sp) 몸길이 4~4.9mm, 다리길이 60~70mm.

Ⅲ. 맺는 말

거미를 촬영하면서 첫째, 거미는 모성애가 특이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모든 거미는 실로 짠 주머니 모양의 알주머니 속에 알을 낳고 알집을 정성들여 보호하고 있었으며 어린 새끼들도 목숨을 바쳐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새끼들의 먹이가 되는 거미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놀랍다. 특히 알집위에서 굶어 죽어가는 무당거미의 암컷, 알집을 입에 물고 다니다 부화하면 옆에서 지키는 모습을 보았을 때 숙연해지

기도 한다.

둘째, 거미는 각자 처지에 맞춰 현명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거미마다 성질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호랑이처럼 성질이 급해 거미줄이 흔들리기 무섭게 달려와 거미줄로 사냥감을 감는 호랑거미, 거미줄이 흔들려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무달거미는 무척 대조적이었다. 수컷이 준 먹이를 암컷이 먹는 동안 짝짓기를 끝내야 하는 숫 거미들의 기구한 운명도 상당히 흥미롭다.

요즘 들어 거미는 국가의 큰 자산으로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병해충의 천적인 거미로 무농약 농사를 지을 수 있으며 거미줄은 고강도 섬유, 렌즈의 눈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독과 소화 효소는 국부마취제와 해독제, 소화제 등의 의약품 재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거미 생태 관찰 체험을 통해서 거미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할 것이다. 거미를 촬영하여 황성군 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소개했던 일은 큰 보람이었다. ♣

현대노인들은 억울하다

에이! 늙으면 죽어야지!



● 권용환



인천공항.

짐 보따리의 흐름과 기다리는 사람과 급하게 뛰는 사람들의 흐름은 높은 철제천정 위에서 울려 떨어지는 소리가 대형 풍차의 울부짖음 같았다. 나도 미국행 비행기의 수속절차를 마치고 불안과 긴장의 바닥을 밟으며 손을 들고 기둥 문을 통과하고 긴 주걱의 검은 판대기가 나를 검색한다. 의심과 불신의 독수리눈이 나를 찌른다. 나는 눈을 땅으로 피하며 손가방을 찾아 동전 몇 닢과 여권을 챙기며 큰 죄지은 사람처럼 앞도 된 긴장이 나를 밀어 제친다.

대기실은 중립국 휴게실 같았다. 웬지 안정된 분위기와 고요함이 빈 창고 같았다. 나는 널빤지 의자에 앉아 유리벽 밖을 무심히 바라보았다. 짐을 나르는 트레일러 들이 작은 기차처럼 몇 개씩 밀고 끌고 다니는 분주함이 보였다. 사람들은 개미처럼 작아 보이는데 내가 탈것 같은 비행기는 날개를 펴고 우람하게 버티고 서있다.

비행기를 탈 때마다 안개 같은 불안함이 깔려 흐른다. 땅위에 자동차와 물위에 배는 기계가 고장 나면 길가에 비껴서있고 배는 물위에 떠있으면 되지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100억 이상 갑부가 수없이 많은데 부품을 교체하여 백이십년 백팔십년 살고 있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것 같다.”

만 비행기는 중요 부품이 이상이 생기면 바다에 육지에 떨어져 풍지 박살이 난다. 그 무거운 쇠덩어리에 오백명의 사람과 그 많은 짐을 싣고 공중에 어떻게 떠있으며 어떻게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인가? 나의 지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 불안의 안개가 견히지를 앓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타니까 나도 그들을 믿고 탈려고 기다리는 것이다. 나 혼자 타라면 나는 못 탈것 같으다 아니 나는 결단코 안 탈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비행기의 각종 부품은 유효기간이 되면 무조건 교체한다고 한다. 무사고의 대원칙 이라고 한다. 아! 그래! 그렇겠구나!

“유효기간?!” “유효기간!!” 그렇다면 사람의 각 부품의 유효기간은 얼마일까? 나의 심장, 두뇌, 아니 오장 육부의 유효기간은 몇년 몇개월 몇일이나 쓸 수 있는 것일까? 살아본 사람들의 농담 속에 환갑이 넘으면 남의 나이를 먹는다고 하고 환갑이 넘으면 새로 나이를 계수한다고 한다. 나이 칠십은 고희라고 하며 드문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유효기간을 육십일년이 아닌가? 그러면 사람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갈아 끼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 새 부품으로 전부 교체하여 새것으로 만들자! 얼마면 될까? 50억 100억이면 어지간이 될 것 같다.

미국에 중국에 일본에 100억 이상 갑부가 수없이 많은데 부품을 교체하여 백이십년 백팔십년 살고 있다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것 같다. 다행이도 아직은 비행기는 부품교체가 다 되지만 사람은 부품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다행이다. 만약 사람도 다 교체가 되어 돈 있는 사람만 백팔십년을 산다면 돈 없는 놈 억울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현대 과학이 의술이 발달하여 교체하는 것이 많아 졌다. “관절” “간” “눈”

“늙으면 서러워진다.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섭섭한 생각이 늘고 한숨이 늘 무시(無視) 당하는 것 같고 상여를 보면 마음이 스산해지고 따뜻한 양지바른 곳이 좋아지고...”

“심장” 등... 그러나 중요 부품은 새것으로 교체가 불가능하다 중고품으로 교체 해봐야 십년 이십년을 연장하기가 어려우며 전체를 다 교체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닌가?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몰라도 평등의 원칙이 살아 억울함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유효기간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기계와 물체 육체의 관리를 잘해서 오래 써야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기름 치고 조이고 닦고... 자동차 수리공장에 벽에 붙은 표어이다 사람도 기름 치고 조이고 닦으면 오래 쓸 수 있는 것인가? 자동차는 십년이 지나 십오만키로미터를 타면 중고차라고 한다. 중고차가 되면 힘이 없어지고 고장(故障)이 잦다. 유효기간이 지난 부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미국제품이나 독일제품은 중고차로 십 오년 이상 오래 탈수 있다고 한다. 튼튼하게 유효기간이 긴 부품들로 만들어서 그럴 것이다. 자동차는 폐차장에서 부서지기 까지는 중고차이다 부품을 교체하면 계속 탈수 있기에 계속 중고차이다. 사람도 부품을 교체하여 생명연장만 하면 중 늙으니 인가 팔십이 넘어 구십이 되도 중 늙으니 인가? 아니다 상노인 또는 어르신이라고 한다. 사람은 계속해서 부품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늙으면 서러워진다.

희망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섭섭한 생각이 늘고 한숨이 늘 무시(無視) 당하는 것 같고 상여를 보면 마음이 스산해지고 따뜻한 양지바른 곳이 좋아지고 공연히 외롭고 쓸쓸해지고 태양보다는 밤에 달이 좋아지고 유효기간이 지난 눈은 침침해지고 냄새도 무디어지고 먹고 싶은 것이 없고

“점점 생의 종말을 준비하며 어쩔수 없는 시간들이 나를 묶어 놓으며 말은 하지 않지만 ‘늡으면 죽어야지...’ 하는 섭리에 순종하는 무기력함이 꿈틀대는 벌레같이 되는 것이다.”

입맛이 둔해지고 귀가 어두워 TV음성을 크게 해놓고 손발이 절여오고 움직이는 것이 싫어지고 잠이 깊이 안 들고 살갗이 번들번들하고 찌글찌글 해지며 점 같은 무늬가 많이 생기며 축고 무더운 것을 참기 힘들고 기억력이 약해지며 깜박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두 가지 일을 못하며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나도 어머니 아버지를 닮아가며 불 끄는 것 물 잠그는 것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 태우기를 자주하며 잔소리 같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이 모든 것이 조물주에 섭리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러나 늡어서 그런가? 남은 팬찮은데 나만 그런 것 같고 겁이 나고 두려워진다. 육십년 전만해도 대가족 제도화에 한집안에 아들, 며느리, 손주 온 집안 식구들과 친척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으로 효도하며 섬기며 챙기며 외롭지 않게 대접을 받아 살았는데 지금은 돈만큼 효도하는 요양원이 생겨 감옥살이를 하게 한다. 생지옥으로 몰아간다.

점점 생의 종말을 준비하며 어쩔수 없는 시간들이 나를 묶어 놓으며 말은 하지 않지만 늡으면 죽어야지--!?! 하는 섭리에 순종하는 무기력함이 꿈틀대는 벌레같이 되는 것이다 멍하니 벽을 응시하는 시선이 두려움으로 변하여 밤을, 검은 밤을 하얗게 지새며 보낸다 자식도 소용없고 그렇게 귀엣든 손자손녀도 공연히 어색함에 슬픔이 머스 닦아온다. 돈만 있으면 참으로 살기 좋은 세상을 골이 빠져라 만들어 놓고 후배들에게 양보하고 억울하지만 별도리 없이 뵤족한 수가 없어서-

“허-! 그거 참-! 에이-! 그거 참-!”

“한국의 현재의 노인들은 오십년 동안 갑자기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라고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한 세대들이다.”

현재의 노인들은 참 고생을 많이 했다. 한국의 현재의 노인들은 오십년 동안 갑자기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놓으려고 피나는 노력을 많이 한 세대들이다. 6.25때 12동란때 걸어서 청주까지, 대전까지,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 오니 집은 불타고 땅에 묻고간 곡식은 중공군들이 다 파먹어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었다. 썩까만 아이들은 미군부대 쓰레기장이 놀이터였다 쓰레기 버리는 차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돌을 던지고 뛰어놀았다. 쓰레기차가 오면 아이들은 갑자기 눈에 혈기가 돈다.

행동이 빨라진다. 깡통, 광대기 박스, 금종이 은종이 휴지 떨어진 군화, 군복... 등을 서로 먼저 찾으려고 눈이 벌개 행동이 번개 같다. 우선 한곳에 쌓아 놓는다. 그리고는 다 켜후에 다시 정리를 하며 먹을 수 있는 것과 입을 수 있는 것 신을 수 있는 것을 정리한다.

먹다버린 뼈-터, 빵조각, 은박지에 들어있는 커피, 씹는담배, 더러 나오는 쪼코렛, 껌, 미국여자들이 별거벗은 나체사진의 잡지책, 신문지... 등 미군들이 쓰다버린 생활용품이 다 나왔다 알지도 보지도 못한 물건들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먹을 것이 제일 좋았다. 쓸만한 것만 골라 신나게 집으로 가져갔다. 얼마 후 휴전이 되어 동네로 교회로 학교로 구호물자가 많이 나왔다. 우유가루 설탕 밀가루 옷가지 신발 등...

선진국의 여러 나라에서 한국 전쟁의 불쌍한 아이들 노인들 사진을 신문에 보도하며 한국을 돕자는 캠페인에 그런 생활필수품의 구호물자가 많이 들어왔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 세계에 호소하여 비참한 전쟁 후에 상황

“미군부대 주위에 예쁜 여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들도 애국한다고 하여 나중에는 양공주라고 부르라고 하여 양갈보가 양공주로 바뀌었다. 사회가 문화가 미국을 닮아 갔다.”

을 호소하여 가장 불쌍한 나라로 보도되어 구호물자가 쏟아졌다.

그런데 하루는 이상한 일이 생겼다. 구호물자 옷 속에서 이상한 간단한 내복이 나왔다. 어른들이 낄낄대며 못 볼 것을 본 것처럼 얼굴을 붉히며 그 옷만 남았다. 그 옷이 무엇에 어디에 쓰이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저것이 무엇이예요? 왜 안 가져가요?! 네!」

「누가 크게 말했다.」

「젓 싸게-여-」

미국여자 사이즈의 큰 부래지어였다. 나는 이상했다 신기했다 저 옷을 왜 우리에게 보냈나 그런데 그 옷이 없어졌다.

얼마 후 중학교에 입학하니 매일 휴전반대 쫄기 대회였다 공부는 안하고 플랜카드를 앞에 들고 군청 마당에 모여 쫄기대회만 했다. UN,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메시지 낭독이 있을 후 팔독이 하늘을 찌르며 구호를 외치기 시작하면 시가행진이 벌어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 얼마 후 읍에 나이롱 양말 공장이 생기고 누에고치 농사를 장려하며 가발공장이 생기고 구공탄이 나오고 읍에 전기가 들어오고 손으로 돌리는 전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새벽중이 울리네 노래를 부르게 했고 학교에서는 우리의 맹세를 외우게 했다. 지금은 예쁜 색시는 배우이고 가수이지만 그 당시는 양갈보였다. 미군부대 주위에 예쁜 여자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그들도 애국한다고 하여 나중에는 양공주라고 부르라고 하여 양갈보가 양공주로 바뀌었다. 사회가 문화가 미국을 닮아 갔다. 미국 것은 무엇이든 좋았다 미제는

“이제 조금 돈 벌어 잘먹고 잘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나이 많으니 이제 고만 나가라고 하여 쥐꼬리 만한 퇴직금으로 위로받으며 나와 보니 허무하고 것 없어서 허공만 바라보게 되었다.”

최고였다. 미국은 우리의 이상이었다.

관공서를 짓기 시작하고 학교를 짓기 시작하고 큰 방직공장이 생기고 비료공장 기계공장 버스가 자동차가 많아지며 자전거 오토바이가 나오고 길을 닦고 다리를 놓고 학교 담벽 관공서 담벽에는 수출 몇 만불 달성이라는 큰 글씨가 쓰여 지고 웅변대회가 많아지고 쫄기대회가 데모로 바뀌고 선거가 많아지고 서울과 큰 도시에는 고층 빌딩이 생기기 시작하고 구멍가게가 많이 생기고 공산품이 쏟아져 나왔다.

그런데 대통령 장관 고관 관리들이 많아지고 사장이 생겼으며 직업의 수가 많아져서 일터가 다양해 졌다. 농사꾼이 줄어들고 돈을 잘 버는 월급쟁이가 아주 많아 졌다. 그런데 지금 잘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인가? 대통령과 장관 고관 관리 사장들 정치인들은 시키기만 했지 직접 일을 한 이들은 지금의 노인들이 공장에서 논밭에서 건축공사장에서 방직공장에서 기계공장에서 가발공장에서 공산품 제조공장에서 봉급을 조금씩 받으면서도 물건이 딸리면 밤을 새워 3교대 2교대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암병과 고질병이 몸에 생기는 것도 모르고 골 빠지게 일을 했다.

이제 조금 돈 벌어 잘먹고 잘살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나이 많으니 이제 고만 나가라고 하여 쥐꼬리 만한 퇴직금으로 위로받으며 나와 보니 허무하고 덧 없어서 허공만 바라보게 되었다. 지금의 노인들의 말없는 하소연이다.

그 좋은 집에 고급 승용차에 외제 골프채에 외국 관광에 진탕만탕 고급음

“두 내외가 한상표로 한 대리점 점포에서 구입한 것 같으며 진까만 투피스가 남편과 조화를 이룸이 환상적인 커플이었다.”

식에 별장에 호화로운 이들을 보며 기가 죽으니 손발이 절여오고 혈압이 올라가고 어지럼병이 생겼다.

그러니 어떻게 해- 팔자소관(八字所關)인걸 뉴-욕 딸네 집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오늘은 뉴욕시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박물관을 보기로 했다. 우리 두 내외는 오전 10시쯤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다. 사람들이 많았다. 입구에 들어가 안내판을 보니 문화권 별로 전시한 유물이 광대하여 3일을 보아야 다 본다고 한다. 나는 그리스문화 이스라엘문화 로마문화부터 보기로 하여 들어서니 온통 왕들의 무덤 공주와 왕족들의 유품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 신기함과 고귀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어떻게 아주 오랜 옛날 것을 파손 없이 그대로 보관 하고 손질하여 원형 그대로 전시를 했을까? 그것이 더 궁금하고 신기하게 생각 되었다.

조금은 지루하다 생각 하는데 좋은 휴게실이 보여 우리는 한 옆 의자에 앉아 연못에 물고기의 여유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저쪽 의자에 두 사람이 보였다. 유난히 눈에 유혹을 느낀다. 잘생긴 전형적인 미국인 두 노인네였다.

미국인의 나이를 측정 할 수 없으나 한 칠십은 넘은 듯하다. 남자는 까만 버버리 코트에 멋있는 반짝이는 회색양복에 커피색 넥타이에 멋진 모자를 썼으며 끈이 있는 조금 큰 가방을 들었다 부인은 은발에 머리를 말아 늘어뜨린 것이 유명한 배우의 스타일이었으며 진 빨간 버버리코트가 두 내외가 한상표로 한 대리점 점포에서 구입한 것 같으며 진 까만 투피스가 남편과 조화를 이룸이 환상적인 커플이었다. 스카프는 연한 하늘색이 한 가닥은 어깨 위로 넘어가 마치 바람에 흔들림 같았다. 그들도 힘든 몸을 의자에 내려놓으며

“지식 있고 교양이 풍부한 음악가 미술가 고고학 박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됩시다!”

한참 쉬어갈 모양이다.

「여보! 여보! 저기 두 노인네 참 멋있어 보이지!」

「응? 그러네 어쩜 노인네가 저렇게-!」

「지식 있고 교양이 풍부한 음악가 미술가 고고학 박사인 것 같아요. 우리도 저 나이가 되면 저렇게 됩시다!」

「그래요! 그런데 흉내를 내서는 금방 탈로가 날걸-!」

나는 탄전을 부리며 그들을 계속 살피게 되었다. 부인이 남자가 든 가방을 열어 C.D플레이어를 꺼내 이어폰을 귀에 꽂는다.(그 당시는 C.D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다.) 그러더니 남자는 가방에서 크지 않은 마호 병을 꺼내어 뚜껑으로 컵을 삼아 차를 따라 부인에게 건넨다. 그리고는 이내 가방에서 플라스틱 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 부인 앞에 펼쳐 놓는다. 빵조각 몇 개 고급 비스킷 고급 과자 인듯하다. 또 하나의 통을 꺼내 뚜껑을 열어 놓는다. 거기에는 견과류 과일 망고 말린 것 건포도 각종 말리 과일이 가득하다.

부인이 차를 마시며 핸드백을 열어 물티슈를 꺼내 손을 닦는다. 그리고는 과일을 집어 남편을 준다. 받아먹으며 눈으로 미소로 말을 한다. 부인이 음악을 듣다가 이어폰을 내려들고는 무어라고 남편에게 한참 말하더니 이어폰을 남편에 귀에 끼워준다. 둘은 차를 마시며 과자와 마른 과일을 먹으며 음악을 듣는다. 나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정말 맛있는 아름답고 고귀한 참삶을 사는 차원 높은 사람들이었다.

저들의 일상생활은 어떨까? 좋은 정원이 넓은 멋있는 집에서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으며 시를 감상하고 아침저녁으로 공원을 산책하고 운동을 하며

“호들갑을 떨며 남자가든 과자 봉지에서 연실 과자를 먹으며 여성상위 시대의 본을 보이듯 부자의 티를 보이고 있었다.”

오늘은 이집에서 초청받아 파티를 하고 내일은 음악 발표회 관람을 하고 다음날은 미술작품 전시회 초청을 받아 참석하고 그리고는 달력에 표시대로 연극관람 오페라 관람 유명한 관광지 관람 생일파티 참석 작품발표회 초청 강연회 간담회 참석 일 년의 몇 번은 넓은 정원에서 작품발표회 초청파티 한 달 일정이 바쁜 중에 오늘은 박물관을 관람하며 역사관찰과 세계문화 관찰을 하는 날일 것 같다. 시간이 한 30분은 된 것 같다. 멋쟁이 두 노인이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선다. 나는 멀리 그들을 따라 다니며 그들의 모습을 좀 더 찾으려고 했다. 그런데 2층 그리스관 입구에서 많은 사람 때문에 그들을 놓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은 일주일전에 예매한 뉴욕 맨하탄 브로드웨이에서 제일 큰 극장으로 향했다. 기대에 부풀어 시간에 맞추어 입장했다. 입장료는 130달러 한화 십오만원쯤 되어 관객이 많지 않으리라 생각했는데 만원이라 표에 지정된 자리를 찾느라 한참을 헤매었다. 우리 옆자리에는 젊은 애인들인 듯싶은 사람들이 앉았다.

추운 한겨울인데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비싼 고급코트를 무릎위에 놓고 얇은 하늘거리는 가슴이 다 보이는 옷을 걸치고 털이긴 밍크 목도리를 한 바퀴 돌려 뒤로 제치고는 호들갑을 떨며 남자가든 과자 봉지에서 연실 과자를 먹으며 여성상위 시대의 본을 보이듯 부자의 티를 보이고 있었다.

최신 창작 오페라인 듯 등장인물들의 화장 의상이 현대적이며 음악 효과가 입체적이어서 깜짝 깜짝 놀랄 것 같은 웅장함에 나는 공중에 떠있는 것

“지금의 현실을 보라 동네마다 노인정에서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한국의 노인들이 누릴 노인 문화가 없다.”

같았다. 등장인물도 무대 밑에서 옆에서 천정에서 막 날아다니며 영어대사라서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도 사랑에 빠진 젊은이들이 이별을 하고 남자 주인공이 자살을 하여 죽게 되는 것이다. 4막 7장의 긴 두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극장에서 나온 뉴욕의 겨울밤도 너무 추웠다.

한국의 노인들이 누릴 노인 문화가 없다. 이조시대에는 선비와 양반 몇 사람들이 가끔 광대를 불러 생일잔치와 사랑채 뒷마루에 앉아 바둑을 놓는 것이 유일한 놀이이며 평민은 장기와 명절놀이 몇 개가 있을 뿐 여가를 즐기는 놀이가 마땅치 않았다. 지금의 현실을 보라 동네마다 노인정에서는 무엇으로 시간을 보내는가?

복지시설은 많지만 노인들이 즐기는 고상한 프로그램 무엇이 있는가? 한국의 노인들은 폐쇄적이고 담배나 피우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인가? 화투나 하고 술이나 먹고 TV이나 쳐다보고 집이나 지키는 불쌍한 골치덩어리인가? 그릇이나 깨고 냄비를 태울라치면 며느리에게 야단이나 받고 화장실 불 안갠다고 야속한 눈치덩어리가 되는 것이 현재의 노인이다.

복지관 복지센터 노인대학 노인 회관 모여서는 유행가나 부르고 주책부리며 웃기는 것 외에 무엇이 있는가? 노인끼리 외로움을 달랜답시고 남몰래 만나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도 꼴불견이고 동방예의지국의 무너지는 소리가 노인에게서도 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서구 문화와 한국 문화가 만나 새로운 문화를 정립하는 시기에 혼란기라고 할 수 있겠으나 또 50년 만에 서구문화 민주주의로 갑자기 잘사는 나라

“노인들의 건전한 문화를 빨리 만들고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 연구 하여야 한다. 노인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왜 우물쭈물 하는가?”

가 되어 준비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은 부작용의 하수구가 막힌 부산물의 쓰레기 더미 속 같은 면이 한국사태의 현실인가? 왜? 좋은 참 살기 좋은 문화적으로 잘사는 나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현재까지의 대통령들이 물질 문명에만 총력을 두고 정치인들도 물질에만 돈 버는 일에만 돈만 있다면 다 해결된다는 물질 만능 주의 황금만능주의에 병들어 국민 전체를 병신을 만들어 놓아 병인 줄을 몰라 고치려고 하는 이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한국사회가 아닌가?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참 삶의 질이 어떤 것 인가를 알아야 한다. 선진국을 보라 그들은 고상한 문화생활을 한다. 물론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도 고상한 문화가 없는 민족은 타락하기 마련이다. 퇴폐적이고 쾌락주의에 빠지고 만다. 우리 한국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대학이 많고 국민전체가 대학생이 된다. 대통령이 정치인이 지도층에 있는 모든 이들이 무슨 일 이든 하려고 하면 금방 성공 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이다.

노인들의 건전한 문화를 빨리 만들고 프로그램을 빨리 개발 연구 하여야 한다. 노인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왜 우물쭈물 하는가? 이제 노인들도 유식한 지식인들이 많아진다.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노인들도 가르치고 배우고 아름다운 가치관을 세우는 일에 돈을 써야 한다. 복지사업에 돈을 많이 쓴다고 한다.

아름답고 고상하게 사는 방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원에 연구 개발을 빨리 서두르라 이미 때가 늦었다. 안타까운 생각이 강이 되어 흐른다. ♣



효 孝란 무엇인가?



● 조원섭 (횡성향교 전교)

효란, 한마디로 부모에게 근심걱정 없이 편안하게 하여드리는 것이 효이다. 옛날에 효는 오로지 부모를 배불리 먹을 수 있고 편안히 모시는 것이 효에 으뜸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의식주에 대하여 또는 미래에 자식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보다는 현재의 위치에서 부모의 근심이나 걱정 없도록 마음 편히 하여드리는 것이 최선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효이다. 그러면 옛 성현들이 말씀하신 효(孝)를 한자로 음미해보자.

詩曰(시월) 父兮生我(부해생아)하시고 母兮鞠我(모해국아)하시니

哀哀父母(애애부모)여 生我 劬勞(생아구로) 셤다

愆報沈恩(옥보심은)인대 昊天罔極(호천망극)이로다. (명심보감 효행편)

시경에서 말했다. 아버지여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여 나를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부모님이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힘쓰고 수고 하셨도다.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한다면 넓은 하늘과 같아 끝이 없도다.

▶▶ 부모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낳고 기른 것은 물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부모다.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반항심도 있지만 이를 잘 극복하여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공경하며 효도를 다해야 한다.



子曰(자왈) 孝子之事親也(효자지사친야)에 居則致其敬(거즉치기경)하고
 養則致其樂(양즉치기락)하고 病則(병즉) 致其憂(치기우)하고
 喪則致其哀(상즉치기애)하고 祭則致其嚴(제즉치기엄)이니라. (명심보감 효행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자가 아버지를 섬길적에. 거처 할 때에는 그 공경을 다하고,
 봉양할 때에는 그 즐거움을 다하고, 병이 들었을 때는 근심을 하고,
 돌아가시면 슬픔을 다해야 하며, 제사는 엄숙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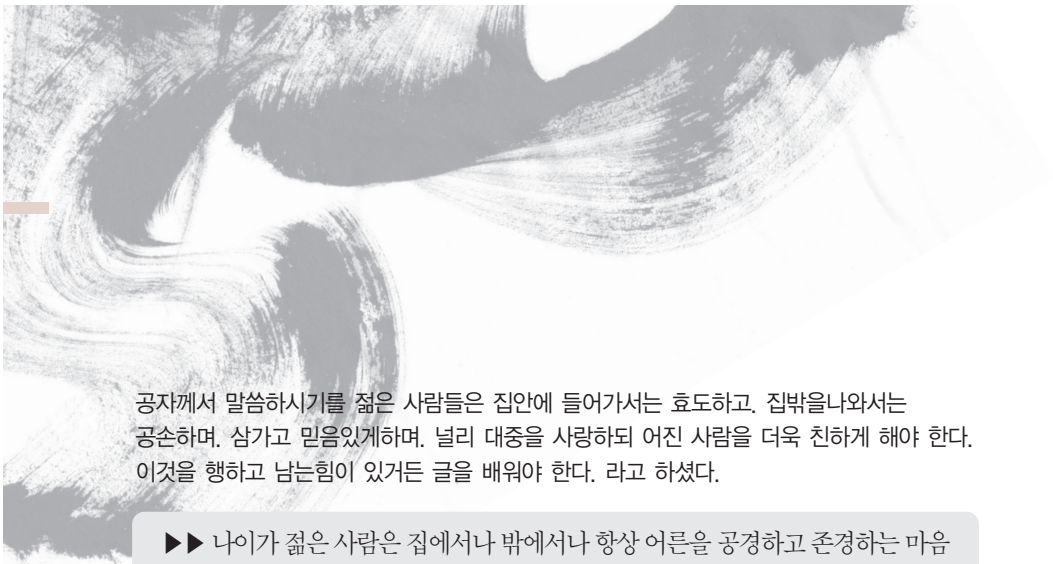
▶▶ 효도란 살아계실때는 공경스런 태도와 즐거운 마음으로 부모를 모시는것이
 며. 몸이편찮을 때에는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돌아가신 뒤에도 부모의 뜻을 잘 받
 들어야하는 것이다. 효도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기 때문에 잊지말고 실천해야한다.

子曰(자왈) 父母召(부모소)어시든
 唯而不諾(유이불락)하고 食在則吐之(식재즉토지)니라. (명심보감 효행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명하여 부르시거든
 즉시 대답하여 지체하지 않으며, 음식이 입에 있거든 이를 뱉어야한다.

▶▶ 요즘 청소년 가운데는 부모가 불러도 짜증을 내는 사람이 있고 무슨일을 시키
 면 게으름을 피우며 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부모
 가 부르면 즉시 대답하고 달려가며 심지어 밥을 먹다가도 달려가야 한다.

子曰(자왈) 弟子入則孝(제자입즉효)하고 出則弟(출즉제)하며
 謹以信(근이신)하며 汎愛衆(범애중)하되 而親仁(이친인)이니
 行有餘力(행유여력)이어든 則以學文(즉이학문)이니라. (논어 학이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젊은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가서는 효도하고, 집밖을나와서는 공손하며, 삼가고 믿음있게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더욱 친하게 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고 남는힘이 있거든 글을 배워야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 나이가 젊은 사람은 집에서나 밖에서나 항상 어른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되 훌륭한 사람을 더욱 가까이해야한다. 이러한 행동을 먼저 익힌 다음에 학문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에는 학문에 치중한 나머지 실천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진정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다.

孟武伯(맹무백)이 問孝(문효)한대

子曰(자왈) 父母(부모)는 唯其疾之憂(유기질지우)시니라. (논어 위정편)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묻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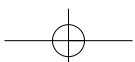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는 오직 자식의 질병을 걱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 효도가운데 한 가지 방법은 자신의 몸을 다치지 않게 잘 유지하는 것이다.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하게 간직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모든 정성을 다해 간호하고 치료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건강한 것만으로도 효도는 시작된 것이다.

子游問孝(자유문효)한대 子曰(자왈) 今之孝者(금지효자)는 是謂能養(시위능양)이니 至於犬馬(지어견마)하여도 皆能有養(개능유양)이니 不敬(불경)이면

何以別乎(하이별호)리오. (논어 위정편)

자유가 효에 대해서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효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봉양만을 말하는데 개와 말과 같은 동물들도 모두 사람이 길러주고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구별하겠는가? 라고 하셨습니다.





▶▶ 부모님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자기와 생각이 다를 경우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한다. 설령 부모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라도 공경하는 마음을 어겨서는 안 되고, 몸이 힘들더라도 부모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

子曰(자왈) 父母在(부모재)어시든
不遠遊(불원유)하며 遊必有方(유필유방)이니라. (논어 이인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가 계시면 멀리 나가서 놀지 않으며, 놀 때에는 반드시 있는 곳을 알려드려야 한다. 라고 하셨다.

▶▶ 부모는 자식을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항상 걱정을 한다. 따라서 친구와 놀때도 멀리 나가지 않으며, 자신이 있는 곳을 알려드려야 한다. 부모님께서서는 도서관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몰래 친구와 놀러간다면 부모를 속이는 행위다. 급하고 중대한일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반듯이 자신이 있는 곳을 말씀드려야 한다.

子曰(자왈) 父母之年(부모지년)은 不可不知也(불가부지야)니 日則以喜(일즉이희)요
日則以懼(일즉이구)니라. (논어 이인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의 연세는 알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 자식으로서 부모의 연세도 알지 못하고 생신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부모가 오래사시면 자식으로서 기쁜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연세가드시면서 건강도 약화되고 돌아가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부모의 연세가 많아질수록 자식은 부모의 건강을 돌보고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농업의 현실과 농협의 역할



● 윤병철 (황성군농협동우회장)

지난 추석에 어떤 중앙일간지에서 ‘우리나라 농업의 이상과 현실’이라는 제하의 사설을 읽었다. 사설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은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 33.3%로 전체인구평균인 10.3%를 3배 이상 웃돌고, 40세 미만의 농가경영주는 2%에 불과해 세계에서 가장 노령화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농업의 안타까운 현실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농업·농촌의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은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변화, 그리고 농협이 준엄한 자기반성을 통해 열린 마음으로 농업을 위한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으로 미래를 위한 길을 모색한다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사설의 내용에 공감을 하면서 국내외적으로 다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우리농업의 현실과 위기해결을 위한 방향을 포괄적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여러 자료를 기초로 살펴본다.



한국농업의 위기 - '국민농업' 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지난해 초에 세계 곡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는 소비량의 증가를 생산량이 못따라와 2000년 이후 세계 곡물재고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식량문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는 세계의 식량 확보 전쟁의 시작과 식량의 무기화·투기화가 현실이 되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율은 25.3%로 OECD 국가중 포르투갈, 일본, 네덜란드와 함께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고 한다. 쌀은 자급하고 있지만 옥수수, 콩, 밀 등을 포함한 나머지 곡물은 자급율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최근의 곡물가 폭등에도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이나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치닫지 않고 있는 이유는 주식인 쌀의 국내 자급기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까지 쌀의 8% 의무수입과 그 이후 사실상 완전개방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의 상상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바로 우리농업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국가차원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다른 산업보다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농업이 붕괴했을 때 지불해야할 대가가 훨씬 크기 때문이다. 우리농업이 해체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가장먼저 떠오르는 것은 식량안보의 위기일 것이다. 공산품이나 에너지는 소비를 억제할 수 있지만 식량의 경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듯이 이미 세계의 식량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식량문제는 상상 이상의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뿐만 아니다. 농업은 식량생산 이외에도 생물다양성 유지, 홍수조절, 온도 및 습도 조절, 대기정화, 토양보존, 공동체 유지,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라고 한다. 농업이 붕괴된다면 이러한 다원적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막대한 손실과 함께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농업이 붕괴되었을 때 미칠 파급은 비단 농민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다. 모든 국민이 그 부담을 함께 안게 될 것이기에 농업의 이해당사자는 바로 전체국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농업의 육성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고, 국민 전체가 먹거리 문제를 함께 책임지는 ‘국민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안전한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먹을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농업의 일차적 기능과 함께 질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것이 농민의 몫이다. 두 번째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국민 모두의 이해와 직결되는데 파괴된 생태계를 복원시키고 정화하며 홍수를 조절하는 기능 등은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농민의 생존을 국민 모두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농민의 생존은 농업의 목적이면서도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농업이 국가기간사업으로 간주되고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선진국의 징표이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농민의 몫으로 돌려서는 안되고, 국민농업으로서 모두가 함께 고려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한 것이다.

농산물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농협의 역할

농업·농촌의 발전에 농협이 주도적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대내외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농업과 농촌 환경은 농협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역할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농협의 역할과 관련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협이 유통·판매 분야의 기능을 확대하여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받아 농민과 소비자 그리고 농

협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농협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것이다.

농산물의 산지유통은 수탁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어 농가조직화가 미흡한 실정이고, 시장의 요구조건과 맞지 않아 공급여력이 낮고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산지유통사업은 시장지향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농협은 농가와 소비자시장의 중간에서 거래관계의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농가와는 유통협약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소비자시장에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또한 산지유통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상품화 및 차별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효율적 공급망 관리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공급체제로 유통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낭비요소를 제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통합리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지역내 ‘농협연합사업단’의 구축도 검토해 봄직하다. 이는 지역내의 농가별, 조합별로 같은 작목으로 소모적인 경쟁에 따른 출혈을 방지하고, 규모화되고 조직화된 유통사업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협조·지원과 농협, 농민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군과 농협과 농민이 사업의 파트너라는 파트너쉽에 입각한 협력구조가 필요할 것이다.

세계적인 식량문제, 그리고 우리농업·농촌의 현실은 농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 물론 농업정책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우리농업·농촌에 대한 전체 국민의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그리고 그간 농촌발전을 주도해 온 농협의 보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변화를 기대해 본다. ♣



우리집 고양이 카사이야기 카사 그리고 나

● 박도

● 기척이 없는 카사

카사가 내 집 식구가 된 지 그새 6년째로 접어들었다. 그놈 입주 초기에는 서로 갈등도 많았지만 이제는 어엿한 가족이 되었다. 처음 3년은 집안에서 지냈지만 그 뒤부터는 밖에서 길렀는데 다행히 잘 적응하고 있다. 그는 밥 때가 되면 내 방문에 와서 “아웅, 아웅” “아, 아” 등의 소리로 몹시 보챈다. 내가 못 들은 척 내버려두면 창틀까지 뛰어오르고는 애절히 부르는 소리에 그제야 “알았다. 맘마 먹으러 가자”하고 나서면 엉덩이를 좌우로 흔들며 아주 신이 나 제 집 밥그릇으로 달려갔다. 제 밥을 주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후딱 먹고는 한바탕 기둥을 타고 오르는 재롱을 부리며 밥값에 대한 보답을 한다.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저를 잊지 마세요 나는 당신 카사예요.”

그제부터 아내가 서울 아이 집에 갔기에 혼자 지내고 있는데 어제 저녁은 밥 때가 되어도 이놈이 내 방문 앞에서 보채지를 앓았다. 이럴 때는 마당에 나가 “카사야! 카사야!”하고 두어 번 부르면 곧 “애, 애” 또는 “야옹”하고 어디선가 불쑥 나타나기 마련인데 기척이 없다. 그래 곰곰 생각해 보니 아침나절 앞집 노씨네 배추밭 한 모퉁이 콩각지 더미에서 카사가 쥐를 마냥 기다리는 것을 보았기에, 거기를 가서 불러도 아무 기척이 없었다. 그래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세 집밖에 안 되지만) “카사야!”, “카사야!”를 부르면서 해매도 기척이 없었다. 갑자기 불길한 생각이 들어 집 앞 도로 여기저기를 살펴도 그놈 종적은 보이지 않았다. 애간장이 타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와 “카사야!”크게 부르자, 이놈이 그제야 제 집 잠자리에서 깨어나 하품을 하면서 점연쩍게 내게로 다가왔다. 먼저 내가 제 집을 살피지 않고 바깥에서 소동을 피우며 애간장을 태운 게 멧쩍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카사가 무사한 게 반가워 저녁밥을 준 뒤 문을 닫아주고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 아침밥을 깜빡 잊다

오늘은 원주 기독교병원에 건강검진 예약 날로, 병원 측에서 아침밥을 먹지 말고 빈 속으로 일찍 오라고 일렀다. 이른 아침 모닝콜을 듣고 일어날 때만 해도 ‘카사 밥을 주고 병원으로 가야지’라고 생각했으나, 세수하고 외출복을 갈아입자 버스시간에 늦은 듯하여 후딱 집을 나섰다.

그 바람에 카사 밥 주는 일을 깜빡 잊어버렸다. 버스가 전채 고개를 넘을 때에야 불쑥 카사 밥을 주지 않은 게 떠올랐다. 오늘은 채혈을 하고 그 결과까지 보는 날인데, 그러자면 아무리 빨리 집에 돌아간 데도 오후 3시는 될 테다. 그때까지 이놈의 밥을 굶기고 제 집에 가뉘든다고 생각하니 그에게 무척 미안했다. 버

“우리는 하늘이 준 인연이에요.
사랑해요, 정말로 당신을...”



스에 내려도 안흥으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려면 길거리 정류장에서 다시 30분은 더 기다려야 하고, 그렇게 하다가는 병원 예약시간을 도저히 맞출 수 없었다. 집에 차를 두고도 바보 등신 같이 굴릴 줄도 모르는 구닥다리인 내가 또 다시 미워졌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 세상에, 그럴수록 높은 지위에 오르는 세상에 나는 20년 전에 쓴 글에 스스로 족쇄가 되어 살고 있다.

마침 주머니를 뒤지자 수첩이 나왔고 옆집 전화번호를 찾아 다이얼을 눌렀으나 신호는 가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른 아침에 부부가 벌써 들에 나가셨나?’ 집 전화 아래에 다행히 손전화번호가 있어 누르자 노씨가 받았다.

“이장님(올해 이장이 되다), 저 옆집 박도입니다. 지금 원주에 가는 중인데, 깜빡 잊고 우리 집 카사에게 아침밥을 주지 않고 나왔네요. 좀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곧장 가서 줄게요. 걱정 말고 잘 다녀오세요.”

잠시 뒤 이장님한테 카사 밥을 잘 챙겨주었다는 전화를 받고는 편안한 마음으로 병원에 갔다. 채혈을 하고 두 시간 기다린 끝에 담당 전문의를 만났다. 내가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기분이라고 하자, 의사는 밝은 표정으로 “수치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계속해 채식하시고 운동 많이 하십시오. 이제 약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라는 선고를 하기에, 가쁜 마음으로 병원을 나선 뒤 버스를 두 번 갈아타고 집으로 돌아오자 오후 3시였다.

● 우리는 하늘이 준 인연이에요

그때까지 카사라는 놈이 제 집에 갇혀 있었다. 이장님이 밥만 챙겨주었지 제 집 문을 열어주지 않았나 보다. 내가 문을 열어주자 그는 얼른 밖으로 뛰어 내려 내 앞에서 뒹굴었다. 저를 애무해 달라는 신호였다. 한참을 등을 긁고는 안아 주자 눈을 지그시 감고는 그렇그렇 거렸다.

“고마워요. 보고 싶었어요. 저를 잊지 마세요. 나는 당신 카사예요. 우리는 하늘이 준 인연이에요. 사랑해요, 정말로 당신을.”

어느 시인은 늘그막에 고양이와 단 둘이 산다고 하더니, 영판 내가 그 처지다. 아니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늘그막에는 개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과 여생을 보내고 있다. 나는 카사의 등을 쓰다듬어 주며 “미안하다, 카사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게” 하고 말하자, 그놈이 눈을 감은 채 “애, 애” 라고 대답하고는, 계속 그렇거렸다. ♣

박도



1945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나다. 구미초등학교 구미중학교 중동고등학교 고려대 국문학과를 졸업하다. 1994년 장편소설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며 산다〉로 등단하다. 서울에서 33년간 교단생활을 마무리한 뒤, 황성군 안흥면 안흥 4리 214번지에 거주하다가 지금은 강원도 원주에서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다. 한국작가회의 회원으로 작품집에는 장편소설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며 산다〉와 산문집 〈비어있는 자리〉, 〈일본기행〉, 〈안흥 산골에서 띄우는 편지〉, 〈길 위에서 길을 묻다〉, 〈그 마을에서 살고 싶다〉, 〈로테르담에서 온 엽서〉, 〈항일유적답사기(2007년 제1분기 문화예술행위 우수 문학도서)〉, 〈누가 이 나라를 지켰을까〉, 한국전쟁 사진집 〈지을 수 없는 이미지 1·2·3〉, 〈나를 울린 한국전쟁 100 장면(2006년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길 위에서 아버지를 만나다〉 등이 있다.

황성이야기

연재에 대한 궤변



● 김승기 (황성군 청정환경사업소장)

요즘은 새로 나온 모 신문의 청탁에 못 이겨 황성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다. 물론, 신문사와 친분관계가 있거나 원고의 대가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욱이 그 신문이 “지역 정서에 부합하느냐? 또는 신문사로서의 위상이 어떠한가?”는 애초부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음을 밝힌다.

원고 청탁을 받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그동안 황성인으로 살면서 황성에 대하여 알고자 노력하고 그래서 얻은 작은 지식들을 지역민과 공유함으로써, 이곳에 터 잡아 살기는 하지만 사는 게 바쁜 탓에 향토사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분들, 또는 뒤늦게 산 좋고 물 맑은 이 땅에 보금자리를 틀고 제2의 고향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는 분들에게 이 고장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이해를 도

움으로써 보다 쉽게 황성인으로 동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사명감으로 쾌히 승낙했다.

나에게는 그 신문이 지역 언론으로써 맡은바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지? 명실상부한 황성의 참 언론으로 성장할 것인지? 또는 지금까지 부침해 온 어느 지역신문과 같은 전철을 밟으며 궤를 같이 할 것인지 관심사항이 아니다. 다만, 나름대로의 기준과 자격을 갖춘 소통의 장이 새롭게 열린 것에 감사하고 그 통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생성되는 크고 작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마당이 생겼다는데 감사할 따름이다.

그런 까닭에 이처럼 소중한 기회와 통로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찬란했던 또는 부끄러웠던 옛 자취를 재조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연재를 시작하면서 당부하였듯이 문자화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랐지만 아쉽게도 무반응이다.”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소통의 통로가 건재하고 내가 아는 황성이야기가 남아 있는 한 연재를 계속하리라 생각하지만 걱정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은 이처럼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용기가 가상한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 내 향토사를 전문으로 공부한 분이나 향토사를 연구하는 공사의 단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디에선가 읽고 들었던. 결코 정론일 수 없는 설익은 이야기를 문자화함으로써 혹세무민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염려와 오도된 진실로 밝혀져 지탄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다. 가끔은 나와 같은 일개인이 아닌 사학을 전공하고 향토사에 정통한 분들이 이러한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다면 독자들로부터 더 큰 호응이 있을 것이란 아쉬움과 기대를 가져보는 한편, 반년 가까이 연재한 결과에 대하여 가타부타의 반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 더 두렵게 한다.

연재를 시작하면서 당부하였듯이 문자화한 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논쟁의 대상이 되어 공론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랐지만 아쉽게도 무반응이다. 물론, 황성군지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있지만 나의 상식과 편견이 이 전부 진실이 아닐 수 있기에 검증하는 장을 만들고 싶건만 역부족이다. 부디 공론의 장이 마련 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지난번 황성군민의 날 제정과정에서와 같은 시행착오와 오류를 범하지는 않는 길이기도 하다.

이 일련의 과정이 잠든 향토사를 깨워 군민의 희망과 긍지로 삼고 단합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4.1황성군민만세운동이란 자랑스러운 유산이 있어서 애국의 고장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오랜 기간 그 흔적을 찾아내 갈고 닦고 보전한 군민의 정성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러하듯이, 그에 못지않은 조상의 슬

기와 얼이 깃든 자취들이 외면되고 있음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난날 가난으로부터 헤어내기 위하여, 또는 의식주와 같은 시급한 민생고의 해결하기 위해서 미처 살려볼 겨를이 없었다면 이제 도움 받는 나라에서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고 지방의 경쟁력도 높아졌으니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저명한 지리학자가 “횡성에는 진산이 없냐고 물어왔다.”라고 했다. 나도, 누구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었다. 그렇다. 먹고 입고 사는데 진산이 어디에 있던지, 혹은 있고 없고가 무슨 소용이라. 풍수지리를 따지고 명당을 찾는 배부른 세상에 살면서 수백, 수 천 년을 어느 고을에나 꼭 있어야 했던 진산을 잃어버렸다면 부끄러움이 아닐까? 자괴감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진산을 찾아내고 앞들 어딘가에 있을 사직단 옛 자리와 봉화산 봉수대자리도 찾아내 작은 표시라도 해 두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수가 아닐지라도 문화를 이야기하는 시대라면 태풍제례를 그에 걸 맞는 자리에서 올리고, 새해 아침을 맞이하는 일출행사도 의미 있는 곳에서 열고 오랜 가뭄 끝이라면 조상님네들과 같이 예법대로 기우제를 지낸다면 하늘도 감읍하지 않을까?

문암리 토호의 아들로 태어난 한상열 의병장은 우리 군이 배출한 의병중에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자타가 공인한다, 국내에서 눈부시게 활약하던 그는 일제의 감시가 심해지자 만주로 건너가 대한독립군 참모장을 지내다 순국했지만 그의 가족은 풍비박산되고 그의 고향은 사후 80년이 지나도록 환국하지 못하고 이국의 구천을 떠돌고 있는데 애국의 고장이란 수식앞에 당당할 수 있을까?

고려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인물 여덟 분 중 한분으로 추앙받는 문정공 조충은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명재상이었

“횡성에는 진산이 없냐고 물어왔다. 나도, 누구도 대답하는 이가 없었었다. 그렇다. 먹고 입고 사는데 진산이 어디에 있던지, 혹은 있고 없고가 무슨 소용이라. 풍수지리를 따지고 명당을 찾는 배부른 세상에 살면서 수백, 수 천 년을 어느 고을에나 꼭 있어야 했던 진산을 잃어버렸다면 부끄러움이 아닐까?”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로인해 끝까지 외면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땅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주라는 믿음 때문이다.”

음에도 문하시랑 대신 장군, 상장군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은 오랜 군부정치적 영향도 있겠으나 몰이해를 넘어 모독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군민만세운동의 긍지를 먹고 살지만, 그날 순국의 현장이 어딘지. 몇 분이 총탄에 순국했는지, 유관순처럼 신학문을 깨우친 청순한 여성은 아니었는지도 횡성군민만세운동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황소갈보라 불리던 여인이 있었음을 기억하는지, 등등의 잊혀져 가는 퍼즐들을 모아 기리는 만세공원조성 등 일련의 사업처럼 더 많은 분야에서 시련과 고난의 역사를 이겨낸 소중한 분들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작은 소망들과 그 과정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궁금증에 몰입하다 보면 궁금증은 꼬리를 물게 마련이어서 지역신문이란 공간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분야가 물음표를 단 현재진행형 또는 나의 능력과 한계로 인하여 방치되고 사장되면

다음 세대와는 완전히 단절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환기하기고자 것도 연재의 한 이유이다.

이 연재가 10회, 20회, 30회로 그 수를 늘리면서 그러한 관심이 배가되고 향토사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면 그것이 향토사랑의 구심점이 되고 향토사랑 운동의 모체가 되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면 하는 것이 작은 바람이다.

또 하나의 원고가 활자화 된 오늘 아침신문을 본다. 연재를 시작한지도 반년이 되어가건만 아직 단 한건의 이의를 달리지 않은 것을 보면 내가 아는 사실이 지극히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철저한 무시와 무관심의 결과인지 모를 일이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그로인해 끝까지 외면 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땅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재주라는 믿음 때문이다. ♣

문예마당

IV

- 수주 강변의 단풍 최옥순
- 여기 어딥니까? 진광수
- 내 친구에게 김미애
- 화성 태기문화 발전 정병유
- 황파만야 박동근
- 공주 문화유적지를 다녀와서 최정규
- 횡성 유적 답사 기행문 한세희
- 향토문화 유적지를 다녀와서 조병찬
-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신윤진
- 어머니의 손 유지은
- 어머니 사랑합니다 안지원

수주강변의 단풍



● **최옥순**

제7회 전국 문화가족 창작시 공모전 동상 수상

수주강 절벽의 단풍은
 속이 타 들어 가는 연인의 눈물
 봄부터 속삭이던 햇살의 변심에
 온통 핏병이 난걸 누군들 알까
 간밤 무서리가 사무친들 알기나 할까
 가지에 매달려 애태우다
 그 열기 식히려고 갈물로 뛰어 내린다
 미친듯 웃다가 울다가
 물결 따라 아득히 흘러 간다
 차라리 강물로 강물로
 흐르고 싶은가 보다.

여기 어답니까?

산수가 빼어난 곳 여기! 어답니까?
누가 살기에
이리도 훈훈한 바람 부나요

태고부터 우리 선조님들
태기산 품에 둥지 틀고
후손이란 씨앗 뿌려 살던 곳
여기가 바로 어사매였습니다.



● 진광수

인심이 후한 곳 여기! 어답니까?
누가 살기에
이리도 따뜻한 정 넘치나요

예로부터 조상님들
덕고산 품에 자리 잡고
높고 큰 덕 가르치며 살던 곳
여기가 바로 인심 좋은 횡성입니다.

소 울음 정겨운 곳 여기! 어답니까?
누가 살기에
이리도 울음소리 희망찬가요

오래전부터 우리 부모님들
사재산 품에 터를 잡고
약초베어 소먹이며 살던 곳
여기가 바로 한우고장 횡성입니다.

배움이 샘솟는 곳 여기! 어답니까?
누가 살기에
이리도 학습열기 뜨거운가요

미래 향한 우리 군민 성지봉 정기 받아
성인들의 지혜 배우는 곳
여기가 바로 평생학습도시 횡성입니다.

참사랑 실천하는 곳 여기! 어답니까?
누가 살기에
이리도 명랑하고 활기찬가요

이제부터 오만군민 너와나 하나 되어
자율실천운동 펼치는 곳
여기가 바로 미래청정법인 횡성입니다.

내 친구에게



● 김미애

친구야
 팔자라 생각하고 살아라
 이런 말 모르고 우리 열심히 살았던
 아가씨 시절을 떠올리면서
 아줌마로 살아가는 텃밭에
 이젠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빛나고
 주름진 시간을 만남으로 다림질한다

친구야
 세월을 실눈 뜨고 살았구나!
 감꽃 빛깔의 비가 우리를 스치고
 세월이 주고 간 거친 손바닥에
 비스듬히 누어있는 고단함은
 흰머리 하나 둘 줄넘기를 하고
 육즙과 녹즙을 뿜어내는 이 현실을
 머리 숙여 팔자라 생을 받아 드렸지

친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연히 마주친 너의 모습에서
 지난 25년의 세월 몽땅 다 주고받으며
 내 마음을 떼어주는 기쁨에
 우리를 차지했던 신열의 혼돈을 지우고
 한세상 돌아가는 아픔이 와도
 씩씩하고 착하게 밀어내는 익숙함에
 아줌마의 삶은 약속처럼 웃고 있었다

친구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우연히 마주친 너의 모습에서
 지난 25년의 세월 몽땅 다 주고받으며
 내 마음을 떼어주는 기쁨에
 우리를 차지했던 신열의 혼돈을 지우고
 한세상 돌아가는 아픔이 와도
 씩씩하고 착하게 밀어내는 익숙함에
 아줌마의 삶은 약속처럼 웃고 있었다

친구야
 노을 되어 사라지는 만남에 의지 한 채
 아낌없는 시간을 나눠 갖자는 설레임
 서로 휴대폰에 번호를 입력하는
 너와 나의 손끝엔 단비가 여우 울음소리처럼
 애잔하구나 나의 친구야

화성 태기문화 발전



● 정병유

泰岐山下位花城(태기산하위화성)
 蟾水同流文花成(섬수동류문화성)
 增産韓牛經濟富(증산한우경제부)
 養生父母大倫明(양생부모대륜명)
 史觀特校英才育(사관특교영재육)
 淸淨雄都瑞世亨(청정웅도서세형)
 傳統繼承能暢達(전통계승능창달)
 將來發展享光榮(장내발전향영광)

태기산아래 화성이 자리하오
 섬강물 함께 흘러 문화이루네
 한우를 증산하여 경제를 풍부하게 하고
 부모새전 잘 봉양하고 사후엔 후히 예장하여 크게 인륜을 밝게하네
 사관특수 고교는 영재를 육성하고
 청정한웅도는 좋은 세상이 형통하리
 전통을 계승하고 능히 창달하면
 장내는 발전하여 영원히 영광을 누리리

황파만야



● 박동근

黃波萬野九秋迎(황파만야구추영)
 五穀饒多豐熟成(오곡요다풍숙성)
 甘雨蒙蒙知節下(감우몽몽지절하)
 惠風拂拂適時淸(혜풍불불적시청)
 萬村果稔摘盈雇(만촌과임적영고)
 千里桑麻華暎城(천리상마화영성)
 農老洗枷禾積稟(농노세가화적름)
 銀河落照彩雯生(은하락조채문생)

황파가 들에 가득하니 구추를 맞고
 오곡풍오롭고 많으니 풍성하게 익음을 이루었더라
 단비가 몽몽하게 계절을 알아내리고
 해풍 불불하여 때을 맞쳐 맑았더라
 만촌에 과일이 풍년되어 따서 창고에 차고
 천리에 상마가 화려하게 성미치었더라
 농노촌도리개불새어곡식은 두치에 쌓고
 은하에 해가 저무더라니 채식된 구름이 생기더라

공주 문화유적지를 다녀와서



● 최정규 (횡성 문화학교 서예반)

횡성문화원에서 문화학교 수강생 및 문화원 회원님들과 함께 충남 공주지역 문화유적지 문화탐방 행사가 있는 날이다. 일정 계획이 정해져 있어 서예반에서 부지런히 준비한 음식을 챙겨 가지고 세 대의 버스에 서예반은 문화원 회원님들과 같은 차를 타게 되었다. 차안의 분위기는 조금 엄숙 하고 조용하였다. 오늘 고 노무현대통령의 영결식 장례 절차 의식이 텔레비전에서 생방송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속으로 고인의 명복을 삼가 빌면서 문화원에서 준비한 빵과 과일, 음료수를 맛나게 먹으면서 오늘도 의미 있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기원해 본다.

내가 처음 서예반에서 붓글씨를 배우게 된 동기는 남편의 권유로 하게 되었

고 농촌에서 노후에도 혼자 취미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싶어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잘한 것 같다. 각자 다른 생각과 모습으로 모였지만 그 순간만은 한마음으로 붓을 다루지 않을까?

오늘은 오전 8시 문화원에서 출발, 공주 무령왕릉, 공주박물관을 관람하고 점심 먹고 공산성, 계룡산 도예촌을 탐방 하고 횡성에 도착해서 저녁식사 후에 헤어진다고 담당자께서 말씀하셨다. 서예반에서 준비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환담 하다 보니 첫 번째 코스인 무령왕릉에 도착했다. 소나무 그늘 아래에서 문화관광 해설사의 인사와 설명이 이어졌다.

무령왕릉은 1971년 7월 5일 송산리 6호분 배수로 공사중 우연히 발견 되었



무령왕릉

는데 묘실 전체를 벽돌로 쌓은 벽돌무덤으로 입구통로에 해당하는 연도와 시신을 안치하는 현실의 두 부분으로 만들어 졌으며 이 왕릉에 발견된 가장 중요한 유물은 지신에게 무덤의 터를 사는 기록을 새긴 묘지석으로 무령왕은 523년 5월 7일에 돌아가셨고 3년째 되는 525년 8월 12일에 왕릉에 안장하였으며 왕비는 526년 12월에 돌아가셨고 529년 2월 12일에 왕릉에 안장하였다고 쓰여 있다고 한다.

무령왕릉 발굴 이후 일반에게 공개되었으나 지난 '97년 정밀 조사한 결과 누수 현상으로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원형 보존을 위해 영구 폐쇄 했으며 이에 공주시와 문화재청은 무령왕릉 폐쇄 후 모형관을 재현 일반에 전시하기로 하였으며 5, 6호분은 발굴 당시 도굴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물은 볼 수가 없으나 송산리 고분군모형관에서 내부모습

을 재현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출토된 부장품 중 국보로 지정된 것이 12종 17점이라고 한다.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다시 언덕길을 따라 무령왕릉 실제모습을 보니 잠깐 마음이 숙연해진다. 보기 드문 명당이라는 해설사의 말에 모두가 조용해지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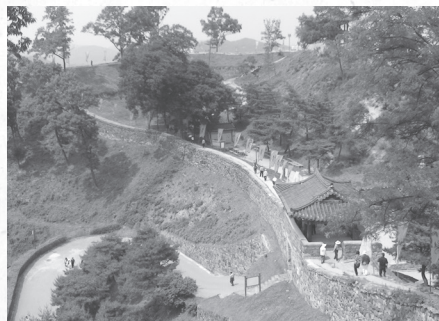
다시 길을 따라 내려와 고분군모형관 안으로 들어가 해설사의 설명에 무령왕릉 연도는 길이 2.9m 너비 1.04m 높이 1.45m 현실은 길이 4.2m 너비 2.72m 높이 2.93m 크기인데 모두 긴네모꼴(장방형)의 평면에 터널형 천장을 하고 있으며 벽돌은 대부분 연꽃무늬가 있는 것을 사용하였고 동 서 북에 감을 만들어 5개의 등잔을 올려놓았으며 왕과 왕비 두 분을 합장한 이 무덤은 왕 서쪽에 왕비의 시신을 모셨는데 머리를 남쪽으로 두고 있었다고 한다. 잠시 망설이다가 모형관이라 들어가 살펴보기도 하고

체험도 해 봤다. 이 왕릉은 한국 발굴사상 최대의 학술적 의미와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본 왕릉에서는 왕(왕비)의 지석을 비롯하여 108종 2906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웅진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곳 이란다.

제1전시실 무령왕릉실. 무령왕릉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전시하는 공간이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국보급 유물들은 그 당시 왕(왕비)의 숨결이 남아 있는 것만 같다. 누구의 숨씨인지 왕 두침은 시신의 머리를 올려놓도록 나무토막의 중간 부분을 U자형으로 만들었고 왕 족좌는 왕의 두 발목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발받침의 중간부분을 W자형으로 파서 무늬는 벌집모양에 금칠을 해 영원을 염원한 것 아닌가 생각해 본다.

제2전시실 웅진문화실. 원삼국시대부터 사비(부여)로 천도하기 이전까지 웅진(공주)를 중심으로 한 백제 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다. 백제 유민들의 망국의 한과 선조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계유명삼존천불비상 이불비상은 지붕모양의 덮개돌 연꽃무늬 받침 몸체를 각각 따로 만들어 결합 비석 모양으로 전면에 걸쳐 작은 불상들이 수 없이 새겨져 있어 천불비상이라 한다.

야외전시장. 공주 일원에서 출토된 많은 석조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앞에 놓여진 석조유물들이 더러는 머리가 없어진 부분도 있고 보물로 지정된 석조2기와 석조여래입상과 석탑들이 말없이 서있다. 전시관을 나오니 점심시간이 되었는지 배가 고픈 것 같아 일행은 모두가 식당으로 안내 되어 자리에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며 식당도우미



공산성



계룡산 도예촌

들의 친절한 애교에 음식을 맛나게 먹고 뿌듯한 마음으로 다음코스 공산성으로 향했다.

공산성은 백제의 웅진성으로 공주를 지키기 위한 성곽, 원래는 능선과 계곡을 따라 쌓은 포곡형으로 토성이었으나 조선시대에 석성으로 개축되었다고 한다. 성내 유적은 금서루, 진남루, 공북루, 쌍수정, 명국삼장비, 쌍수산성사적비, 영은사, 연지, 만하루, 임류각, 광복루 등이 남아있다. 백제의 역사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숙연해진다. 해설사의 설명에 의하면 공산성 야경은 아름다움의 극치이며 금강교 조명도 금강에 투영되어 지나는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다음코스 계룡산도예촌 탐방. 더운 날씨에 조금 피곤함을 느낄 시간이라 모두들 걸음걸이가 느리다. 대충보고 가고 싶은 생각도 들긴 했으나, 입구에 들

어서자 체험장과 갤러리들이 곳곳에 있어 마음 편히 구경하면서 마을 이정표 옆 나무판에 쓰여진 [사람이 풍경으로 피어나]란 글귀에 발걸음이 멈춰 나도 모르게 눈으로 읽어 보았다. 도예촌 답게 자연과 잘 어울려져 지나가는 사람의 발길을 잠시 멈추게 한다.

모든 코스를 마치고 출발지인 횡성문화원으로 향하는 차안에서는 음주가무생략으로 조용하고 가볍게 남은 음식 나누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횡성에 도착했다. 문화원에서 제공하는 저녁식사 준비가 되어 있어 횡성의 자랑거리인 횡성 한우사골곰탕을 맛있게 먹고 즐거운 하루 여행을 마감했다. 아직도 백제의 숨결이 함께하는 역사문화의 도시 공주를 생각하면서, 유익한 문화탐방 기회를 마련해주신 횡성문화원장님, 사무국장,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2009. 5. 29.

횡성 유적 답사 기행문

● 한세희 (둔내고등학교 1학년 2반)

4월 6일 둔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횡성 문화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버스에 타게 되었다. 학교에서 주관 해주었을 뿐 더러 우리에게 공부 보다는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이 일이 그저 즐겁게만 느껴졌다. 물론 중학교 때도 한번 갔다 왔었기 때문에 시시하다거나 지루 할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중학교 때 제대로 보고 듣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확실히 봐 두고 오자라는 생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제대로 들을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디에 들러서 무얼 들었는지는 생각나니, 이 정도면 아깝지 않은 하루였다고 생각한다.

우선 내가 제일 먼저 기억나는 곳은 3.1운동 기념비, 충혼탑이 있던 곳이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횡성의 문화 유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셨던 선생님께서는 3.1운동 기념비가 도내에서 가장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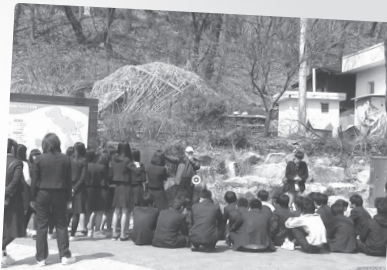
횡성 유적 답사 기행문

발했던 독립운동지였음을 상징한다고 말씀해주셨고, 횡성에서는 3월 12일부터 3월 27일 첫 만세 운동이 있었고, 4월 1일, 4월 3일 3차에 걸쳐 횡성장터에서 있었다고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기쁘지 않을수 없었다. 당연 그 이유는 횡성에서도 3.1운동이 진행됐다는 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도내에서 가장 성행 했다는 말을 듣고는 더큰 기쁨을 얻을수 있었다. 그리고 우린 3.1운동 기념비와 충혼탑 앞에서 목례를 했었는데, 목례를 하는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곳은 풍수원성당이다. 마음에 드는 이유는

밥을 먹으며 자유 시간을 가질수 있어서 라는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지도 모르지만 이 탐방의 목적과 관련된 이유에 초점을 두어서 생각해 보면 바로 이 성당이 한국인 신부가 지은 한국 최초의 성당이라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이 성당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1800년대 초 신유박해를 피하여 경기도 용인의 신태보(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40여명의 천주교 신자들이 피난처를 찾아 헤매던 중 강원도 횡성군 서원리 지역이 산간벽지로서 산림이 울창하여 관헌들의 눈을 피하기에 알맞다고 여겨 정착한 곳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곳 외에도 상동리 석불좌상과 3층석탑, 읍하리 석불좌상과 3층석탑, 태종대, 장송모 도자 연구원등을 다녀왔다. 우린 장송모 도자연구원에서 장송모 선생님께서 만드신 도자기도 보고, 도자기 굽는 온도와 무늬에 따른 시대나 자기의 이름등과 함께 횡성의 지리적 위치와 관련지어 횡성에서 도자기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잘 들을수 있었다. 물론 그곳에 들어가서 도자기를 깎까 노심초사 했어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으며 도자기에 대한 것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흥미



횡성 유적 답사 기행문

롭기도 해서 시간이 되면 거기에 마련되어 있는 실습소에서 실습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리고 횡성 향교에 다시 가보고 싶었는데 못가본게 조금 아쉽기도 했다.

횡성의 문화 탐방에 대한 기행문을 마치며 나는 많은 것을 배웠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솔직히 횡성이라는 작은 군에 문화재가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나였는데, 이 탐방을 통해 우리 고장의 유적에 대해 더 배울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 내심 뿌듯함을 느꼈다.

솔직히 내 근처에 있다는 걸 알아도 쉽사리 시간을 내어 가진 못했을 것인데, 이렇게 단체로 가게 되고 설명해 주실 선생님도 계셨으니 우리 고장의 유적에 대해 잘 알 수 있었던 최고의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

향토문화 유적지를 다녀와서

● 조병찬 (갑천중학교 3학년 1반)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날씨도 화창하다. 맑은 날씨만큼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횡성 주변에 있는 미처 시간이 없어 못 가본 가까운 유적지를 답사한다. 횡성의 수많은 유적지들을 직접 보면서 이곳에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내가 너무 무심하게 느껴졌다. 다른 지역의 유적지에는 관심이 많았던 나인데 우리가 사는 고장의 유적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유적지들이 제대로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고장의 유적지들을 하나하나 알아보자.

상동리 석불좌상 3층 석탑. 1989년 10월에 도난을 당했다고 한다. 아쉬운 대로 새로 복원해 놓았으나 원래의 것보다 작은 모습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서러움을 잊은 듯, 모든 것을 용서한 듯이 입가의 미소를 띠어 자비로운 모습을 하고 있다.



풍수원 교회. 횡성은 다른 지역보다 천주교회도 많고 신자도 많다고 한다. 왜냐하면 천주교도들이 숨어서 신앙을 키우던 곳이기 때문이다. 강원도에서는 처음으로 건축된 성당이며, 전국에서는 네 번째로 건설된 것으로 뛰어난 예술미를 보여 주고 있다.

횡성향교. 향교, 사회 시간에 배운 용어라 자신감이... 향교란 음~ '학교'와 같은 곳이다. 좀더 보충설명을 하자면 공자를 비롯하여 여러 성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사를 지내는 기능과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유학 교육기관이다.

이곳저곳 둘러보니 벌써 점심 먹을 시간이 왔다. 점심 식사 후 버스에 올라타 멀미로 고생을 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힘내서 해 볼까? 메모하면서 뿌듯한 답사 여행. 하나하나 알아보니 횡성에 대한 뿌듯함도 생긴다. 유적지에 대해 잘 모르는 나인데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니 재미도 있고, 유적지에 대한 흥미도 생긴다.

비록 아직은 그 지식이 부족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유적지들이 제대로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이다. 상동리 석불좌상, 3층석탑, 금대리 의병총, 태풍루, 운암정 등 우리가 지금 본 모습 그대로 훌륭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남아 있으면 좋겠다. ♣

우리 고장의 향토문화 유적지 답사를 마치고

● 신윤진 (갑천중학교 3학년 1반)



오늘은 우리 고장 횡성의 향토 문화재 답사를 가는 날이다. 횡성에 살면서도 잘 알지 못했던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답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정말 기뻐다. 특히, 횡성 문화원에서 우리를 안내해 주실 분이 오셔서 잘 가르쳐 주셔서 이해도 잘되고 너무 좋았다.

버스를 타고 처음으로 간 곳은 공근면에 있는 상동리 석불좌상과 3층석탑을 답사하였다. 석탑의 층은 지붕처

럼 생긴 옥개석 개수로 나누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3층석탑을 약탈하려다가 탑이 손상되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의 흔적이 남아 있어서 마음이 아팠다.

다음은 장송모 도자 연구원. 초등학교 때도 한번 와 보았지만 오늘도 역시 도자기가 멋있다. 도자기 굽는 곳도 모았는데 신기했다.

우리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새기며 다음으로 서원면에 있는 풍수

원 천주교회를 답사했다. 드라마에 나왔던 성당이라 관심이 많이 있었지만 횡성 관내에 있다는 말만 듣고 그동안 직접 가보지 못해서 아쉬웠는데, 이렇게 직접 보게 되어서 기쁘고 새로웠다.

그 다음으로는 횡성읍으로 가서 읍하리 석불좌상과 3층석탑을 보았다. 읍하리 석불좌상은 공근면에 있는 상동리 석불좌상에 없는 광배라는 석불좌상 뒤에 둥근 것이 있었다. 그리고는 조금 걸어 올라가서 3.1 공원에 도착했다.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분들에게 친구들과 함께 묵념을 했다. 그리고 태풍루에 가니 횡성시내가 한눈에 보여 속이 땡땡리는 것 같아서 좋았다.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 선생님께서는 도시락과 간식을 주셨다. 도시락은 김밥이었다. 나는 원래 밥을 조금 먹는 편인데 오늘은 답사를 하고 돌아다니다 보니 배가 고팠는지 맛있게 다 먹었다.

점심을 먹은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우천에 있는 한얼문예박물관을 갔다.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맞이한 것은 갑천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동물들이었다. 타조, 꿩, 공작, 거위, 원숭이 등 동

물원에서나 보던 동물들이 있어서 신기했다. 박물관에는 우리나라의 멋진 그림들과 옛날에 사용하던 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다른 친구들은 그림을 그렸는데 가져갈 수도 있어서 좋았다.

강림면에 있는 태종대를 갔다. 태종대에 얽힌 이야기와 연분홍의 진달래꽃이 바람에 나풀거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오늘 답사 여행의 끝으로 청일면 신대리에 있는 봉복사와 3층석탑을 보러갔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속을 걸어 가보니 멋진 대웅전이 지어지고 있었다. 빨리 지어지기를 빌며 신대리 3층석탑을 보았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밭 한 가운데 있어서 아쉽고, 더 좋은 곳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긴다.

오늘 나는 책으로, 글로 읽어 보았던 문화재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직접 걸어 다니며 살아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었고 우리 고장의 소중한 문화재를 체험하면서 자부심과 안타까움 등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성장한 눈으로 우리 고장의 문화재를 마음에 담고 오고 싶다. ♣

어머니의 손

● 유지은 (춘당초등학교 6학년)
故(고) 이연승 선생 동시비 건립 추모 어린이 글짓기 대회 동시부문 최우수작

우리 어머니의 손은
자신을 보호하는
장미꽃의 가시보다
더 거칠고


우리 어머니의 손은
밤을 감싸는
밤송이 보다
더 따갑고

우리 어머니의 손은
처마 끝에 갈,
고드름 보다
더 차갑지만

우리 어머니의 손이
장미꽃의 가시보다
더 거친 이유는
나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이고
우리 어머니의 손이
밤송이보다


더 따가운 이유는
사람들이 아무리
따가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이들의
따가운 시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 어머니의 손이
고드름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이유는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냉정한 눈빛과
날카로운 몸짓으로
나를 막아주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엄마의 마음은
아기보다 풀꽃보다 여리고
화창한 봄날의
햇볕보다 따사롭고
태양보다 뜨겁고
바다보다 드넓고
하늘보다 깨끗하다.



나에게 엄마는
가장 빛나는 별이고
내 마음의 안식처이고
튼튼한 버팀목이고
최고의 선생님이고
세상 그 어느 것보다
튼튼한 담벼락이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한
갑옷이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 안지원 (둔내초등학교 6-바다)

故(고) 이연승 선생 동시비 건립 추모 어린이 글짓기 대회 산문부문 최우수작

학교가 끝난 후 집에 가보면 대부분 어머니께서 안 계시는 경우가 많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학교를 갔다 온 나를 반겨주시기는 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가득 채워주실 수는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어머니께서 회사일이 끝나신 후에는 어머니의 빈자리는 두 번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듯하다.

어머니께서 회사일을 끝내고 오시면 팔, 다리, 허리 등 안 아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하신다.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고 저린 듯하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잘 듣고 기분 좋으시게 해 드리려고 하지만 어느새 그 마음가짐을 잊고 어머니의 마음을 아파게만 하는 그런 내 자신이 밍다. 나를 태어나게 해 주시고, 나를 지금까지 길러 주신 어머니.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실 어머니. 지금까지 주신 사랑을 되돌려 드린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더 커서 되돌려 드린다고 해

도 그 사랑의 크기는 건잡을 수 없게 커질 것이다. 나를 위해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 나의 곁에 있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우리 어머니.

하지만 내가 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고작 말씀 잘 듣기, 안마 해드리기,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편지 써 드리기 등 남들도 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일 뿐이다. 어머니께서 내게 주신 사랑은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내가 어머니께 드리는 것은 한없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로 저에게 주신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길인 것 같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문화원 소식



- 2009 문화사업 실적
- 문화원 회원명부

2009 문화사업 실적

지역사회문화사업

전시회

- 제2회 횡성평생학습축제 서화작품전(6. 17~19)



군민의 정서함양과 개인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적 통합 증진 및 경제적 경쟁력 제고로 문화적 소양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평생학습 공동체를 도모하고자 횡성평생학습축제 서화공모전이 열렸다. 각 작품마다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고, 진하게

흘러나오는 묵향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 2009 횡성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전시회 (12. 16~18)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한해를 마무리하고 배운 과정을 작품으로 보여주는 전시회를 가졌다. 서예(한글,한문)를 일년동안 배우고 익히고 만든 작품들이 전시되어 문화원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과 큰 호응을 받았다.

음악회

- 모던팝스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크로스 오버 음악회 “음악이 있는 풍경” (12. 2)

전문 오케스트라단을 초청하여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횡성군민과 수험생들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평소에 들었던 영화음악과 뮤지컬모음곡을 연주하였고, 모노폴리 록그룹이 출연해 수험생과 함께 ‘클래식의 대중화’로 대중들의 눈높이를 올려 관중들에게 클래식을 좀더 친근하게 느끼도록 하는 좋은 공연이었다.



문화예술공연

- 역사국극(국악뮤지컬) 『아침이 올 때 까지...』 공연 (9. 24)

광복 64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역사 국극(국악뮤지컬) 으로 해방이 될 때까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애환,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민족의 투쟁 등을 국악 뮤지컬 형태로 만들어진 작품이다.



향토문화교육사업

● 문화강좌(12. 2)

관내 고3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연세대학교 이정화 강사님을 초청해 ‘매력적인 자기 관리’란 주제로 강연회가 열렸다. 앞으로 우리가 사회에 나가 꼭 필요한 행동과 자기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강의였다.



● 문화유적지순례

문화원은 향토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5차에 걸쳐 관내 중.고등학생, 문화원 회원 및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문화유적 답사에 참여하였다.

[관내 문화유적지]

1차: 2009. 4. 6 둔내고등학교 51명 / 2차: 2009. 4. 18
 갑천중학교 30명 / 3차: 2009. 4. 21 공근중학교 40명 /
 4차: 2009. 4. 24 안흥중학교 65명



[관외 문화유적지]

일시: 2009. 5. 29 / 답사지: 충남 공주지역 문화유적지 <공주무령왕릉, 공주박물관, 공산성, 계룡산도예촌>
 참가대상: 문화원 회원 및 수강생 120명



향토문화보존전승사업

● 2009년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개최(2. 9)

횡성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달맞이행사가 횡성군 전천둔치에서 열렸다. 어느해보다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던 이번 행사에는 '미래청정법인횡성'과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횡성문화원'이라는 로고를 넣어 제작한 연으로 연날리기 체험을 하였으며, 사물놀이팀의 지신밟기와 놀이마당은 행사의 흥을 북돋워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해마다 발전하고 있는 대보름행사가 앞으로도 횡성군민과 늘 함께하길 바란다.



● 제1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6. 17)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가 주최하여 횡성실내체육관에서 열렸으며 강원도 시·군별 18개 문화원팀의 경연이 있었고 작년 대상 팀인 횡성문화원의 시연공연이 있었습니다.



● 기타 전국 단위 풍물 및 사물놀이 경연대회

•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성인부분 동아리 경연대회」(10. 18)

경기 구리시 한강둔치 경연장에서 열린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성인부분 동아리경연대회에 우리 문화원 ‘어사매풍물패’가 참가 공연함으로써 횡성의 위상을 높였고, 보다 더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였다.

• 태기문화제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정금리 민속마을에서 열린 태기문화제에서 문화원은 ‘양주상여 회다지소리 보존회’를 초청해 시연공연을 보여주었으며 장수춤과 국악공연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향토문화의 발전과 전통민속문화를 보존. 전승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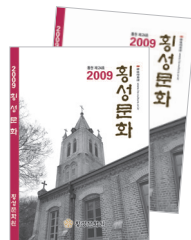
• 향토문화기록촬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유. 무형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기념물, 향토문화유적등과 각종 문화생사 자료들을 촬영하여 후손들에게 전해질수 있도록 그 기록, 보관하고 있다.

애향활동 전개사업 ● ●

● 애향지 발간

어사매에서 횡성문화로 제호를 변경 통권 제24호로 발간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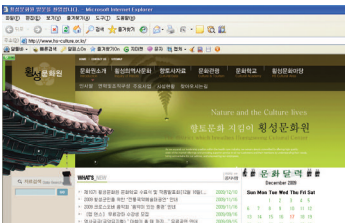
는 『2009횡성문화』는 향토문화 창달을 위한 향토문화연구문, 문화예술탐방, 지역문화 학습정보, 횡성사람 횡성이야기, 문예마당, 문화원 소식 등을 수록해 전국 문화원과 문화원 회원 및 관내기관 및 단체, 공공도서관, 자료실 등에 배포하여 횡성을 알리는 소식지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

● 향토인물선양(6. 4)

아동문학가로서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가득했던 故(고)이연승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 어린이들에게 시심과 동심을 심어주며 새로운 창작 문학 활동을 창달시켜 나가는데 이바지하고자 금년에도 어린이글짓기대회가 동시비가 위치해 있는 횡성초등학교에서 열렸다. 5월13일 열린 글짓기 대회는 횡성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1개 초등학교, 약 300여명이 참가해 동시부문 221편중 50명, 산문부문, 98편중 22명을 입상자로 선정해 시상하였고, 입상작품집을 발간해 300부를 배포하였다.



시설관리 유지사업



문화원의 소식을 빠르게 전하고 다양한 문화정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문화원 홈페이지를 운영, 유지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개선하고 업무능률 또한 향상시켜나가고 있다.

향토사료조사사업

● 향토사료 수집 및 자료집 발간

본 문화원에서는 향토사료 제23집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한말과 일제강점기의 횡성』을 발간 당시 14종의 신문에서 발췌한 횡성관련 기사를 토대로 일제 강점기 횡성군민들의 생활상과 지역 변모상을 생생하게 밝히고 신문기사 원본 그대로의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대문을 함께 실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하며 근대 시기 횡성지역사 연구에 토대가 되는 자료로 조사 하였다.

● 향토사 연구

지역의 향토사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방법의 일환으로 매년 “강원도 향토문화 연구논문 발표회”가 개최된다. 금년도에는 고성문화원에서 열렸으며 우리문화원은 최정훈(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이 “춘천, 횡성, 평창의 태기왕 설화 분석 : 강원도 상고사 연구 사료로서의 가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한국문화원연합회에도 논문을 제출하여 격려상을 수상하였다.

문화학교 운영사업

매년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통하여 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적 감성 계발 및 지식기반 창출로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밝고 명량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각 대회에 출연하여 많은 상을 수상하는 등 어느 해보다도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2009년도 운영현황〉

강좌명	강좌내용	교육기간	수강인원	수료인원
사물놀이 (주간)	기초사물가락및장단	3.9~12.18	37	21
사물놀이 (야간)	기능사물가락및장단	"	21	13
서예 (한문)	한문필법	"	25	15
서예 (한글)	한글필법	"	18	13
국악(판소리,민요)	기초가락 및 창법	"	21	11
비즈&암화 교실	암화기법 및 작품	"	16	10
사진교실	사진촬영기법	"	18	10
장수춤	장수춤 춤사위	"	28	27
가야금교실	가야금 기초연주	"	10	6
태평교실	태평기초	"	21	20
회다지소리교실	횡성 회다지소리	"	21	13
계	11개 과목	8개월	236	159

가야금 교실



회다지소리교실



국악(판소리,민요)



사물놀이

사물놀이



서예



탭댄스 교실



장수춤

● 제10기 문화학교 운영성과

- 각종지역문화행사참가사물놀이, 국악, 장수춤시연및공연(15회)
- 문화유적지 답사 행사 문화학교 전 수강생 참여(5/29)
- 제14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사물놀이/어사매풍물패)
전년도 '대상' 시연공연(6/17)
- 제2회 횡성군평생학습축제 문화행사 수강생 참여(6/17~6/19)
 - 전시 및 체험 : 서예작품 / 비즈&압화 작품 / 사물놀이
 - 시연공연 : 사물놀이(주 · 야간반풍물패), 국악(민요, 판소리), 장수춤 공연
- 제6회 횡성여성 Festival(장수춤공연) '금상'
- 2009. '나이없는날' 행사 장수춤공연참가(9/9)
- 제8회 전국평생학습축제 성인부문경연대회(사물놀이/어사매풍물패) 참가
(10/11)
- 제12회 남도민요 전국경창대회 신인단체부문 최우수상
(판소리 '울림' 팀) (11.23일)
- 제2회 횡성평생학습축제 서화공모전

(서예반/최우수 2명, 우수 1명, 특선 3명, 입선 3명)

- 2009 태기문화제 만장쓰기 공모전 (우수 1명, 장려 1명, 입선 2명)
- 2009 탄허 대중사선사 함양 전국회화대회(특선 2명, 입선 2명)
- 제5회 대한민국 운곡 서예대전(특선 2명, 입선 8명)
- 제1회 나라꽃 무궁화축제 전국 무궁화사랑 회화한마당(우수 3명)
- 제주 전국추사 서예대전 회화대회(특선 1명)
- 효석문화제 회화대회 (우수 1명)
- 제7회 전국노인서예대전(특선 1명)
- 2009 강원서예대전(특선 2명, 입선 2명)

문화사랑방 운영사업

● 국제문화교류

한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주관 아래 18개 문화원장님들과 간사가 참여하는 해외 문화교류 탐방이 1,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오스트리아 등 대표적인 문화역사도시를 찾아 다른 어떤 때보다도 타국의 선진문화를 접해 보는 좋은 기회였다.



해외문화연수(원장) - 스페인 세비아대성당



해외문화연수(간사) - 오스트리아

● 전통문화체험학습

점점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이들에게 우리문화를 좀 더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기위해 관내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여

름방학 전통문화체험학습이 열렸다. 사물놀이 배우기, 전통부채만들기, 민요, 판소리, 우리춤과 탈춤, 천연염색, 한지공예, 전통떡만들기 등의 수업이 있었으며 51명이 2주 동안 참가하였다.



● 문화학교 수강생 작품발표회

문화원 수강생 작품발표회가 12월 18일 오전 10시30분에 횡성문화관에서 열렸다. 사물놀이를 비롯한 총9개반의 작품발표회가 있었으며 문화원 수강생 뿐만 아니라 문화원 가족들이 약 300여명 참가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기타지원 문화사업

● 제13회 청소년 건전가요제(5.16)



청소년들간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끼를 마음껏 뽐내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들만의 문화의 장을 마련한 '청소년 건전가요제'가 관내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6일 열렸다. 예선 23팀중 본선에 15팀이 경연하여 입상자들에게 장학금과 부

상을 수여하고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자기육구를 건전하게 발산 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할수 있다.

● 전통문화예술대공연(11.26)

문화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우리지역에 우리의 전통문화를 접하고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2009 횡성군민을 위한 전통국악 예술대공연’이 문화원 주관아래 11월 26일 열렸다. 특히 배뱅이굿으로 유명한 이은관, 판소리명장 신영희 등이 출연해 앙코르 공연을 할 정도로 그 무대는 뜨거웠으며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짝 찬 공연장은 국악인들의 한마당에 모두 하나가 되었다. 2시간동안 진행된 공연은 남도민요를 비롯한 장구춤, 중국가수, 품바 등 여러 가지 공연을 선보였으며 과히 성공적이었다.



● 사랑을 실은 우리춤 ‘장수춤 봉사공연단’ 양성과정 운영

어르신들의 삶에 적극적인 의욕과 사회적 자긍심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여가문화체험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한 장수춤을 보급하고 수료자로 구성된 “장수춤 봉사공연단”을 조직하여 교육기관 및 각종 복지시설에서 봉사공연활동 및 지역축제 등에서 시연공연활동을 하고 있다. 4월부터 11월까지 총 27명의 수강생들이 교육하였으며 관내 행사 및 지역축제에 참가하여 축하공연을 비롯한 각 단체 위문공연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금년에는 횡성여성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 제1회 나이없는날 메인무대 공연등 문화원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





황성문화원 임·직원 현황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원장	김광수	황성읍 읍상2리 284-3	343-2618	011-371-2618	백우사장
부원장	안병성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409	342-1155	011-9791-1323	
"	정재영	황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A-201	343-3326	016-352-3326	교직원
이사	김두선	황성읍 읍상4리 동원아파트 209호	343-2495	011-9791-1323	보험업
"	김상겸	황성읍 마산리 451-3	343-3514		농업
"	민영진	황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B-401	343-4073	011-362-2965	건설업
"	박순업	황성읍 조곡리 277	343-3637	017-370-0124	문화관광해설사
"	방규진	원주시 개운동 한신후1차APT 102-1104	763-9667	019-312-9661	자영업
"	신상선	황성읍 읍하리 422-2	343-8910	019-380-8910	동화당한약방
"	유관중	황성군 우천면 용둔리 93	342-2706	016-9337-2706	사물놀이강사
"	유제호	황성군 황성읍 태기리 15 황성군청	340-2051	011-372-9184	공무원
"	이석원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346 황성새마을금고	343-3518	011-361-3488	황성새마을금고
"	이영식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중앙아파트 5-410	342-2094	016-774-2094	대학강사
"	정두영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299-6	343-2404	011-377-2404	서원사인쇄소
"	진광수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162-1	342-7777	018-210-5888	사회복지협의회장
"	홍성익	황성군 우천면 정금2리	342-2671	011-9158-2678	정금민속보존회회장
"	양기호	원주시 명륜2동 현대아파트 202-1007	762-8328	011-374-8328	농업
"	윤병철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90-6	343-2208	011-377-2913	문화관광해설사
국장	홍성진	황성군 황성읍 목계리 102-2	343-2271	011-362-3120	문화원직원
간사	김재성	황성군 황성읍 읍상3리 320-1	343-2271	010-3730-6939	문화원직원
사무직원	장현주	황성군 황성읍 조곡리 126번지	343-2271	010-5370-5726	문화원직원

황성문화원 회원 명부

2009년 황성문화원 현재 총 166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1	강승호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849	342-2621	011-9840-2621	농업
2	강주연	황성군 황성읍 조곡리 3반 277		010-5507-3637	
3	고락웅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189	343-2576	018-351-2576	리장
4	고명규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511-16	345-3355	018-368-3344	21C정책연구소
5	고명자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616-5		011-9011-9356	국악인
6	고봉재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119-17		011-9058-6687	임업후계자
7	고석용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1305	344-9080	011-374-9088	
8	고정자	황성군 청일면 갑천2리 1122-1	342-0037	016-352-4886	지역업
9	고한석	황성군 공근면 수백리 965	343-6336	011-371-6698	농업
10	구본섭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289-12 동화꽃회원	343-2752		동화꽃회원
11	권용환	황성군 황성읍 조곡리 70	345-0555	011-227-4038	
12	권육래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65-8	343-2686	011-379-6160	
13	김광수	황성읍 읍상2리 284-3	343-5100	343-2618	백우시장
14	김광홍	황성군 공근면 학담리 356	342-3042	011-369-5273	문화관광해설사
15	김동근	황성군 황성읍 내지리 217	343-3959		농업
16	김두선	황성군 황성읍 읍상4리 동원아파트 209호	343-2495	011-9791-1323	보험업
17	김명수	황성군 황성읍 읍상4리 56	343-4206	011-9797-6199	오성부력
18	김병기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65-17	343-3172		농업
19	김병남	황성군 황성읍 북천2리 115-57	340-2601		공무원
20	김상경	황성군 황성읍 마산리 451-3	343-3514		농업
21	김수암	황성군 우천면 우항1리	342-6459		우천우체국
22	김승진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A 102-606	343-2711	011-360-2711	
23	김영근	황성군 서원면 석화2리 494	342-8065		농업
24	김용화	황성군 황성읍 읍하3리 267	343-5038		지역업
25	김응렬	황성군 황성읍 곡교리 89-18	343-2016		



황성문화원 회원 명부

2009년 황성문화원 현재 총 166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26	김윤수	황성군 공근면 학담2리 성골	342-2181	343-7896	문화관광해설사
27	김인규	황성군 공근면 창봉768	343-6180	011-374-2288	
28	김재울	황성군 둔내면 둔방리 179-2	342-1480	011-9978-5417	농업
29	김정수	황성군 황성을 송전리 118번지	343-4453		농업
30	김정웅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김약국		343-2707	김약국
31	김종대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86-3	343-3061	011-361-7270	
32	김종익	황성군 우천면 하대리 424	342-6147	343-2707	농업
33	김지연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574-8 나눔기획	345-6827	010-4579-5162	나눔기획
34	김진혁	황성군 우천면 문암리 55	342-6019	011-268-6019	농업
35	김창수	황성군 청일면 신대리 1반 산삼작목반		017-435-5331	산림농업
36	김창식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73-6 국도광고	343-4900	343-2100	국도광고
37	김철호	황성읍 읍상리 123-6	345-2288	016-354-2689	섬강애드
38	김혜숙	황성군 황성을 읍상리 385	343-7792	011-9919-2207	사물놀이강사
39	남복순	황성군 황성을 읍상리 616-5번지 황성소리마당	345-5225	010-6217-5168	민요강사
40	도광태	원주시 단계동 롯데아파트 3-504	742-8229		
41	도창혁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A105-907	343-5946	343-3229	현대종합건재
42	민영균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171-5	343-3743		
43	민영진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B-401	343-4073	011-362-2965	건설업
44	박관수	황성군 안흥면 소사리 1334 민족사관고등학교	343-1115	343-6255	교직원
45	박덕식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607	343-8384	011-9790-8380	자영업
46	박동근	홍천군 남면 시동리 1252	432-4529		농업
47	박순성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192	344-0758	017-377-9361	축산업
48	박순엽	황성군 황성읍 조곡리 277	343-2612	017-370-0124	문화관광해설사
49	박용규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328-3	343-2915	011-9796-6115	보험설계사
50	박종일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11-3번지 고향사진관	343-3259	343-2380	고향사진관

황성문화원 회원 명부



2009년 황성문화원 현재 총 166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51	박진국	황성군 우천면 우항1리 756-7	343-3405	019-660-3405	농업
52	박태식	황성군 황성읍 가담1리 468	342-2609		농업
53	박현숙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A105-708		011-9797-3622	
54	방규진	원주시 개운동 한신휴 1차 아파트 102-1104	763-9667	019-312-9661	지역업
55	백기운	황성군 황성읍 읍상3리 310-5	343-4556	016-346-3739	
56	서상준	황성군 우천면 산전리 5반	342-2690		농업
57	서제원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3-907	343-5812	011-9709-5812	
58	석원수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137-5 영진아파트 102호	343-6900	343-3370	상업
59	송세영	황성읍 읍상리 609 이안아파트 102동 1004호	343-9833	011-9977-2851	교직원
60	송영국	황성군 공근면 매곡리 2반 367-10	342-3014	016-9223-3014	농업
61	송호봉	황성군 둔내면 영랑리 539	343-1774		농업
62	신구선	원주시 우산동 동보렉1차 101-402	340-2384	017-374-1350	공무원
63	신동환	황성군 황성읍 마산리 333	343-3765		축산업
64	신상선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422-2	343-8910	019-380-8910	동화당한약방
65	심명규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118-1 심명규의원	343-9855	011-365-9855	의사
66	심진환	황성군 황성읍 교항리 보람아파트 102-1406	343-7841	011-360-7841	
67	안병성	황성군 둔내면 자포1리 409	342-1155	011-9791-1323	
68	안병화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원흥아파트 102-505	343-0641	343-6975	
69	안희준	황성군 둔내면 궁중리 146-2	345-3135	011-776-3135	농업
70	양기호	원주시 명륜2동 현대아파트 202-1007	762-8328	011-374-8328	농업
71	양동근	황성군 황성읍 교항리 61-1	343-3205	016-9335-2934	농업
72	양우환	원주시 개운동 한신휴 1차 아파트 104-1503	343-7364	황성한의원	
73	양중하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849-3	342-2602		농업
74	오세민	황성군 둔내면 둔방내리 108-9	342-5888	011-361-2633	상업
75	우광수	황성군 황성읍 묵계리 22-3 황성여고 관사	342-7041	011-9791-1446	황여고교장



황성문화원 회원 명부

2009년 황성문화원 현재 총 166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76	원재성	황성군 청일면 속살리 671	343-8916	017-373-5302	농업
77	원종숙	황성군 황성읍 남산리 50	343-0451		농업
78	원종춘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110 한림서당	343-3162		한림서당
79	원종택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75-5 명문사	343-2653		명문사
80	원종훈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304	343-7920		자영업
81	유관종	황성군 우천면 용둔리 93	342-2706	016-9337-2706	사물놀이강사
82	유병규	홍천군 남면 명동리	432-4252		농업
83	유인상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115-11 황성치과	343-8890		황성치과
84	유장곤	황성군 둔내면 현천리 139	342-2130	019-9009-2131	농업
85	유제호	황성군 황성읍 태기로 15 황성군청	340-2051	011-372-9184	공무원
86	유태선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2반 991		011-9901-9315	국악강사
87	윤기화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18	343-3171	018-278-3171	
88	윤만복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215-3	343-2575	010-8773-2575	농업
89	윤병철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90-6	343-2208	011-377-2913	문화관광해설사
90	윤춘식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333	343-3349	343-1286	
91	이계범	황성군 우천면 정금리 256	342-2761		농업
92	이광수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태우아파트 3-801	342-6006	011-1788-6011	
93	이근형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295	343-2748	016-352-4102	농업
94	이길자	황성군 우천면 오원리 통골길 196	342-7772	011-9057-7050	
95	이돈영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영진아파트 가-503	343-2755		상업
96	이방우	황성군 공근면 학담리 209-8	342-3412	011-495-4127	
97	이병오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1008	343-6789	011-305-6055	
98	이병완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A 102-1107	344-6171	016-379-6171	공무원
99	이병진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A104-308	342-7890	016-330-2831	나눔기획
100	이석원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346 황성새마을금고	343-3518	011-361-3488	황성새마을금고

황성문화원 회원 명부

2009년 황성문화원 현재 총 166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101	이선순	황성군 청일면 유평리 572	344-0350	018-350-3066	주부
102	이송윤	황성군 황성읍 정암리 206	345-9905	011-286-9905	농업
103	이양형	황성군 우천면 용둔리 75-2 한얼문예술박물관	345-0151	011-255-7200	한얼문화예술관
104	이영석	황성군 청일면 신대리 174	343-5543		시누대펜션
105	이영식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중앙아파트 5-410	342-2094	016-774-2094	대학강사
106	이예숙	황성군 둔내면 궁중리 32	344-4411	011-9875-4415	
107	이옥순	황성군 청일면 유평리 580	342-0990		주부
108	이우만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65-16	343-2690	010-9937-1259	
109	이인규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태우아파트 3-706	345-2881	011-667-2881	
110	이일영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69	343-0808	010-5225-2669	
111	이장우	황성군 황성읍 반곡5반 2-1	343-2723	010-9865-2723	
112	이재구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305	343-2434	343-1202	
113	이종근	황성군 황성읍 마산리 13-2	343-2722	343-0207	농업
114	이종환	황성군 둔내면 삽교리 1101	343-1530	017-381-1530	농업
115	이춘우	황성군 강림면 월현리 825-8	344-6263	011-326-9629	자영업
116	임중훈	황성군 둔내면 자포2리 643	342-1555		농업
117	임중흥	황성군 황성읍 읍하4리 6반 352	343-2056		농업
118	장동식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574-8 나눔기획	342-7890	019-240-2704	나눔기획
119	장태종	황성군 황성읍 읍상4리 3084	343-2930		자영업
120	전덕현	황성군 청일면 유동리 908	342-5071	011-366-5071	축산업
121	전두표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86-9	344-3888	011-373-3888	전두표법무사
122	전상국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65	343-2466	018-504-2466	농업
123	전상규	황성군 황성읍 읍상4리 541-5	345-2356	011-374-2590	농업
124	전인환	황성군 황성읍 조곡리 433	343-7700	017-375-2070	초암평농원
125	정건환	춘천시 후평3동 동아아파트 105-1003		010-3365-3901	



황성문화원 회원 명부

2009년 황성문화원 현재 총 166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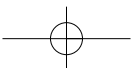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126	정경철	황성군 공근면 오산리 224	342-3157	016-9375-2847	축산업
127	정계철	황성군 공근면 가곡리 308번지	342-3555		
128	정두영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299-6	343-2404	011-377-2404	서원사인쇄소
129	정무홍	황성군 황성을 부천리 현대아트빌 102동 102호	342-0594	018-258-0594	임업조합장
130	정병유	황성군 공근면 공근리 350	342-3217		
131	정병익	황성군 황성을 입석리 132	343-2390		
132	정삼영	황성군 황성을 읍하3리 214-6	343-3130		상업
133	정운철	황성군 황성을 부천리 영진아파트 A-203	343-8292		자영업
134	정인영	황성군 황성을 읍하택지 550-3	344-1558	011-9813-1558	
135	정재영	황성군 황성을 부천리 영진아파트 A-201	343-3326	016-352-3326	교직원
136	정창면	황성군 서원면 금대리 11-1	343-0776	010-3233-8153	
137	조경택	황성군 황성을 읍상2리 274	343-2742		
138	조영현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금광포란재 A105-1006	343-2164		
139	조원섭	황성군 황성을 입석리	343-2685	016-9221-8545	
140	조원용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1307	344-0939	340-2204	공무원
141	조정섭	황성군 황성을 읍하4리 377-31	343-2828		자영업
142	조창호	황성군 갑천면 울동리 59-7	342-7997		
143	주대섭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456-1 그린빌라 101동 301호		011-371-3296	공무원
144	주창석	황성군 공근면 신촌리 622-3	343-5660	011-370-5445	자영업
145	지영수	원주시 우산동 233-4 88스포츠타	762-7701	011-374-7701	88스포츠타
146	진광두	황성군 황성을 개전리 96	343-7656	010-3191-9160	
147	진광수	황성군 황성을 입석리 162-1	342-7777	018-210-5888	사회복지협의회장
148	진기범	황성군 황성을 읍하리 대동아파트 102-501	343-2687	011-369-4687	
149	채금순	황성군 둔내면 자포리 455-2	342-1245	017-380-9983	가사
150	최두현	황성군 강림면 월현2리 692-5	342-9004	016-265-5004	

황성문화원 회원 명부



2009년 황성문화원 현재 총 166명 2009년 12월 31일 현재

직위	성명	주소	연락처	휴대폰	직업
151	최현식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94-10	343-7277	343-2212	건설업
152	하정미	황성군 청일면 봉명리 10	342-6264	011-9291-6268	연극인
153	한상균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대동아파트 101-204	343-2144	342-6072	
154	한성동	황성군 황성읍 읍상리 609 이안아파트 101동 1104호	343-4019	010-3346-4019	농업
155	한성래	황성군 황성읍 입석리 162-8	343-2670	343-3553	황성군노인회
156	한성숙	황성군 황성읍 교항리 22-1 일산기계	343-5527	343-5525	일산기계
157	한성운	원주시 우산동 120-40	744-0527		
158	허명자	황성군 황성읍 읍하3리 251	343-4728	016-9223-3744	
159	호인수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A105-107	343-0277	011-719-1406	자영업
160	홍성익	황성군 우천면 정금2리	342-2671	011-9158-2678	정금민속보존회회장
161	홍영표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90	343-0423		상업
162	홍용표	황성군 황성읍 읍하5리 519-3	340-2251	010-4155-1145	공무원
163	홍원식	황성군 우천면 우항리 773-8	343-2684	010-3150-2684	
164	홍종광	황성군 황성읍 읍하리 금광포란재 A105-305	343-0658	011-361-5201	건설업
165	홍창기	춘천시 죽림동 188번지 경남아너스빌 612호	252-9301	011-240-2003	
166	홍천유	황성군 강림면 월현2리 984-1	342-2007		



*

황성문화 편집후기

그간 '어사매'를 21호까지 탄생시켰고 '황성 문화'로 이름을 바꾸어 세 번째, 통권 제24호의 황성문화원誌를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선사시대부터 솔하게 이 땅에 묻혀있는 설화, 향토사, 삶의 자취, 그리고 내부에 용해되어 있는 문화의 정체성을 찾아 노력한 결과물들입니다.

이번에도 좋은 문화원誌를 만들기 위하여 여러 번 편집위원들이 모여 지혜를 모은 끝에 제24호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 특히 옥고를 보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황성문화의 정체성을 찾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여 꽃피우는 알찬 '황성 문화'가 계속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2009. 12. 14

편집위원 대표 박순업





문화원 회원 입회안내*

황성군 관내 성인 남·여 거주자로 학력 및 직업 등의 자격 제한없이 수시로
누구나 입회 가입 할 수 있습니다.

입회비 : 10,000원 | 연회비 : 30,000원

안내 | 황성문화원 ☎ 343-2271

편집위원장 : 박순엽

편집위원 : 권용환, 박현숙, 윤병철, 이영식,
정재영, 진광수, 홍성진

2009 횡성문화 (통권 제 24호)

발행일 _ 2009. 12. 31.

발행처 _ 횡성문화원 ☎ (033)343-2271

발행인 _ 김광수

기획 _ 홍성진

디자인·제작 _ 디자인퍼플 ☎ (033)766-9920

※비매품

